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5월 16일(음력 3월 30일) 수요일 (주간) 제 628 호

"간탐심 버려야 자비세상"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초파일 앞두고 '나눔과 화합' 위한 보살행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가톨릭 주교회의 김희중 주교에게 '자비연꽃'을 달아주고 있다.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이 축제 분위기다. 산골 암자에도 오색연등이 물결친다. 도심지에는 대형 장엄물이 위용을 드러낸다. 봉축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서울시청 앞 점등식도 5월 9일 열려 '나눔과 화합의 등'에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 '나눔'과 '화합'을 기원하는 등이 켜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나눔과 화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통계청이 5월 9일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돈을 많이 버는 가구와 적게 버는 가구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져 계층간 빈부 격차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이전투구에 목숨을 걸고 있다.

왜 나눔과 화합이 되지 않는 것일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0일 불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눔이 잘 안 되는 것은 '간탐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탐심은 절약과 다르다. 절약은 내가 쓸 것을 아끼는 것이지만, 간탐심은 꼭 써야 할 것을 안 쓰는 것이다.

지관 스님은 "나눔에는 남의 괴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의 괴로움을 생각한다면 자기 것도 선뜻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관 스님은 또 "자기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나와 남 사이에 자비스러운 마음이 오고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내 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처님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남 생각 잘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고, 잘 못하는 사람은 중생이다.

그런데 말은 쉽게 하지만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지관 스님은 "문수보살 같은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하고, 관세음보살 같은 따뜻한 자비의 가슴이 있어야 하며, 보현보살 같은 실천의 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지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나온다. 생각을 많이 하려면 침묵하고 관(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리는 말을 떠난 자리다. 분별심으로 옳다 그르다 할 뿐이다. 말 없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자리부터 관(觀)하자.

종교간대화 평의회 봉축메시지 발표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폴 조세프 장 푸파르 추기경)가 봉축메시지를 발표했다.

종교간대화평의회는 메시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전 세계 각지의 불교 공동체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대화는 풍요로운 종교 간 관계를 맺어가는 확실한 길"이라며 종교 간의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톨릭 주교회의 김희중 주교도 5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교구(敎區)를 관할하는 성직자인 주교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총무원장스님을 예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남동우 기자

신 · 해 · 행 · 증 불자의 근본 가슴에 새겨

빛고을아카데미 9일 회향

4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광주 동구 KT센터 대강당을 뜨겁게 달궜던 2007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5월 9일 영진(前 조계종 기초선원장) 스님의 '증득(證): 참다운 불법은 깨달음에 있다'의 강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현대불교신문사(사장 혜월)와 광주 승보회(회장 석장, 문빈정사 주지)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혜거(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미산(중앙승가대 교수), 월호(쌍계사 강원 강사) 스님 등이 불교의 기본 신행체계인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진행했다.

연인원 3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좌는 신해행증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하는 주제여서 관심이 높았다. 관련기사 9면 김원우 기자

빛으로 오신 부처님 어둠 밝히는 가르침

서울시청 앞 '나눔과 희망의 등' 점등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나누는 '나눔과 화합의 등'에 환하게 불이 켜졌다(사진).

5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에는 지관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해봉 국회 정각회장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글=남동우 · 사진=박재완 기자



선무도
선체조/선요가/선호흡/선기공/선무술
선무도 전국지원
·경주 총본원 골굴사 및 협회 054)744-1689, 054)742-1605 www.sunmudo.com
·서울 : 종로 02)763-2980
서초 02)581-6521 방배 02)599-5554
송파 02)3431-498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7
·인천 032)541-6301 일산 031)924-5655
·안산 031)475-2600 청주 043)285-1732
·대구 053)525-0718 포항 054)275-6069
·울산 052)276-6271 양산 055)382-5074
·부산 :
보림 051)524-1600 중앙동 051)464-1380
금정 051)515-8323 서면 051)818-0166
국외지원
·U.S.A L.A 213-487-5377
·Canada Toronto 941-656-9642
·Austria Salzburg 06-215-5394
·France Toulouse 05-61-08-1010
(사)세계선무도협회



인물經세상鏡

최만희 · 충희 형제의 '행복한 희망사항'

최만희 시인은 요즘 행복하다. 작년 30년 공직 생활을 정리하며 발원했던 삼성 스님의 이야기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운주사)를 지난 3월에 출간 했고 반응도 좋기 때문이다. 최 시인은 25년간 삼성 스님을 시봉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청년회 활동을 하던 그의 불심에 삼성 스님의 "양심이 불심이다"라는 가르침이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는 바로 삼성 스님의 일기를 바탕으로 최 시인이 엮은 책이다. 처음엔 "이 책을 내고 종단의 스님들이 상당히 화를 내고 고소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오히려 좋은 반응으로 어필되고 있다. 이제 최 시인은 이 책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읽혀 '양심적인 세상'이 되기만을 희망한다.

그런데 최 시인의 친동생인 최충희(늘봄공원 상무이사)씨는 획기적인 발원을 했다. 삼성 스님의 생애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문관에서…>를 한 참에 읽었다는 최충희씨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간 스님이 있다는 것을 보다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들어 낸다면 그보다 더 큰 법문이 어디 있겠느냐"며 "형님이 평소 입만 열면 불교 얘기를 해서 싫증이 나기도 했지만 이제 더 깊이 형님을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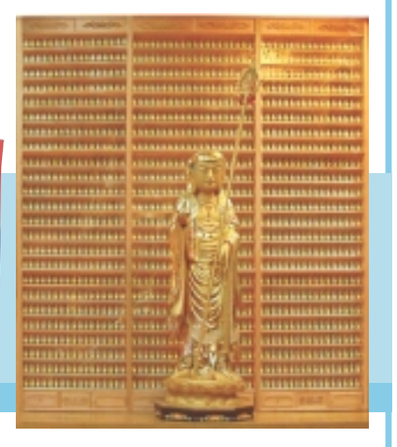
최충희씨는 자신이 일하는 업소에 영화인이나 프로듀서들이 적잖게 출입하고 친분도 있다는 점에 착안, 그들에게 <무문관에서…>를 법보시 하기로 했다. 그 책을 읽은 뒤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고 싶다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두 형제는 "언젠가 우리들의 희망사항이 현실이 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손을 맞잡았다. 임연태 기자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계율 연구·율사 양성 '법령' 세운다

조계종 교육원 '율원령' 제정키로…원장 · 교수 자격 · 교육과정 등 명문화

조계종 율원의 설립과 인가, 운영 등을 담은 '율원령'이 제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5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율원장 회의를 열고 율원령 제정안을 검토 · 심의했다.

현재 율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교육법에 부분적으로 있을 뿐이다. 하지만 조계종 교육제도가 정착되면서 몇 년 전부터 율원의 행정원칙이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증가해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율원 학인정원은 학년당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전체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율원은 율주와, 율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율사)를 둔다. 총림 율원장은 총림 방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하고 그 외 율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교수는 율원장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율원장은 승랍 20년 이상인 자로 전계를 받아야 하며, 율원에서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 있어야 한다. 교수는 승랍 5년 이상인 자로 율원에서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을 이수하거나, 율원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율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율원에는 1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인정원, 청규 제정 및 개정, 율원 폐지 등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율원이 위치한 사찰의 주지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율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며,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율원은 율원장, 율감, 교수로 구성되는 교무회의를 둔다. 교무회의에서는 학인선발, 학사운영, 학인상벌 등을 심의한다.

수업은 학기당 16주 이상 해야 한다. 수업 연한은 전문과정 2년으로 한다. 전문과정을 마친 경우 연구과정 3년을 둘 수 있다.

2년간 계속 학인 정원(휴학 중인 학인 포함)이 반수 이하일 때, 율원의 시설이 영에 정한 기준 이하여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등은 등록취소한다.

이상봉 교육원 교육팀장은 "율원령은 교육원 회의와 종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TIP 율원이란 율장의 계율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청정지계의 가풍을 확립하는 율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율원은 신라시대 자장 율사가 스님들의 기강을 세우고 올바른 율법에 의해 구족계를 받게 하기 위해 양산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설립함으로써 개설됐다. 현재 조계종에는 송광, 영산, 해인, 고불, 영축, 청암, 금강율원 등 총 7개 율원이 있다.

중앙종회 운영규칙 '손질' 개정 소위원회 발족

조계종 중앙종회 운영 규칙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상운)는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중앙종회 운영 규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위원으로 덕문(위원장), 일문, 진화, 선문, 일법 스님을 선출했다.

소위는 올 9월 임시중앙종회 상정을 목표로 △중앙종회 의사일정에 관한 규칙 △중앙종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앙종회의원 여비지급 규정 △중앙종회 관련 서식 등의 규칙을 제 · 개정할 방침이다.

총무분과위는 또 사찰등급조정을 규정대로 시행한 뒤 결과를 차기 총무분과위 회의에 보고토록 총무원 총무부에 공문을 보내도록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통도사 주지에 정우 스님

축산문도회서 추천



영축총림 통도사 축산문도회(회장 초우)는 5월 8일 통도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통도사 주지로 정우 스님(서울 구룡사 주지 · 사진)을 만장일치 추천했다.

이날 회의에는 150여명의 문도들이 참석했으며, 같이 후보로 거론됐던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산옹 스님은 회의 서두에서 "산중이 안정되면 언제든지 주지직을 물러날 계획이었다"며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축산문도회측은 "지난 3월 6일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차기 통도사 주지를 축산문도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승가대 교직자 해외연수

전국 승가대학(강원) 교직자 직무연수가 최초로 해외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제7회 전국 승가대학 교직자 직무연수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불광산사와 중대선사, 법고산사에서 진행된다"고 5월 10일 밝혔다.

교직자들은 불광산사를 방문해 승가교육체계를 살펴보고, 불학원 교직자 스님들과 양국의 승가교육체계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아무도 못쓴다

조계종, 문장 ·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승소

앞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도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문장,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라는 명칭 자체, 조계종 문장과 유사한 문장, 문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라는 명칭의 결합 모두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5월 4일 모두 승소(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는 2002년 9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했고, 승려증에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명기했다. 조계종 문장마저 음각과 양각을 바꿔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혼동을 일으킨 신도들이 조계종에 항의하는 사례가 생기자 조계종은 2007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와 총무원장,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했다.

조계종은 "종단명칭과 문장을 내용으로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명칭 사용과 관련해 지속적인 관리와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는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에 대해 형사고발조치를 취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계속 도용할 경우 사용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해 적극 동참"

지관 스님, 김종민 장관 만나 기원등 달기 등 '약속'

조계종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김종민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이 5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올 연등축제 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꽃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진).



이에 지관 스님은 흔쾌히 허락하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때 각 사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등을 달도록 공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지관 스님은 또 "지난 4월 조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법회가 열렸지만, 부처님오신날 후 종단 차원에서 기원법회를 여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문화재관람료나 전통사찰불사 이중규제 등 종단 현안에 대해 정부측과 협의 중에 있다"며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종민 장관은 "몇 가지 보고받았지만 깊이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동우 기자

끝 안보이는 '관음사 문제'…초선의원들 "특단 조치 추진"

조계종 중앙종회 초선의원스님들이 제주 관음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 광고를 통해서다. 초선의원스님들이 종단 현안에 공동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화 스님을 비롯한 초선의원스님 23명은 '제23교구본사 관음사와 제주불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주지직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관음사의 일부 스님과 신도들에게 속히 종단의 합법적인 절차와 명령에 따라 관음사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관음사의 점거가 길어진다면, 중앙종회에서 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님들은 총무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고 처벌함으로써 종헌종법의 신성함을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 관음사 회주 중원 스님 상좌인 선일 스님도 은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글을 5월 7일 발표했다. 스님은 성명서에서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은사스님의 조계종에 대한 정체성에 회의를 품게 됐다"며 "총무원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제주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9일 호소문을 통해 "중원스님은 하루라도 빨리 수행자의 초심으로 돌아가 걸망 하나 들고 제주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도 9일 기자회견에서 "관음사 종무행정 및 관음사 종무소를 즉시 인수인계하고 일체 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형태로도 관음사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제주불교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은 기자회견 참석자와 관련 "관음사와 무관한 스님과 신도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혜자)는 7일 前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과 前 월라사 주지 도종 스님이 제기한 '주지 교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소청 내용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또 관음사 주지를 선출한 다음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다시 품신하도록 총무원에 결의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총지종 종조설법 CD · 테이프 보급

탄신 100주년 사업 일환

총지종(통리원장 원송)은 5월 2일 종조탄신 100주년, 창종 35주년 기념으로 '모든 것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라는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이프를 제작 배포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이프는 편안한 배경음악에 성우 이규항씨가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다.

총지종 총무부장 경원 정사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의 사상과 유훈을 이 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라며 "CD와 테이프를 활용해 명상이나 요가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을 연구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 552-1080~3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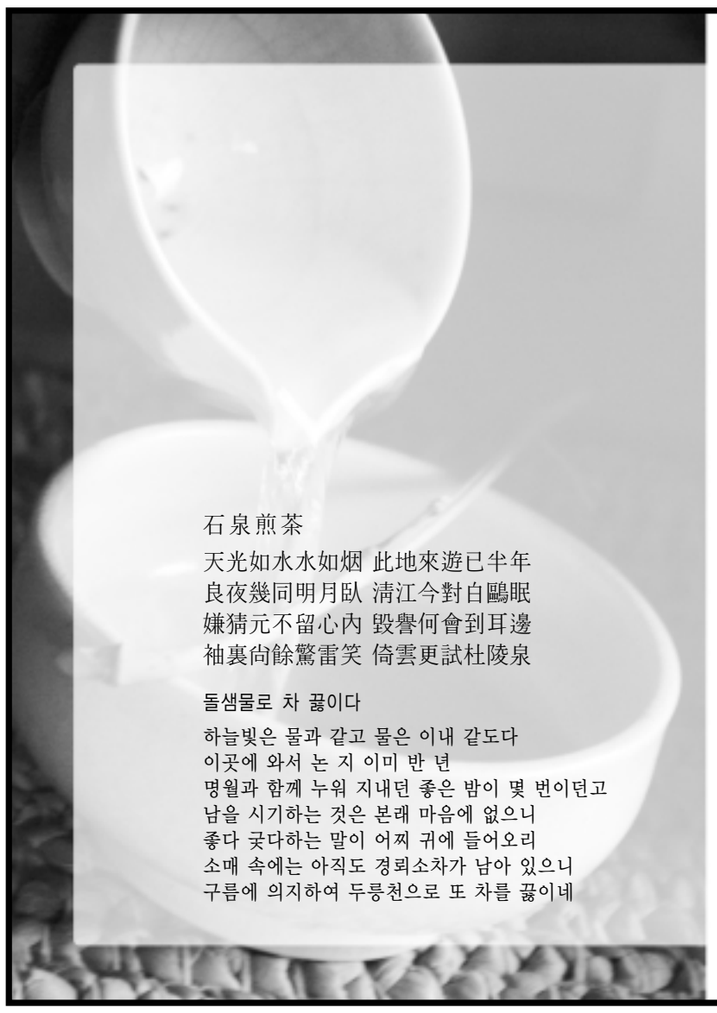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02-2004-8279



탄생 제221주년 기념

초의선사탄생문화제

다도의 이론과 실제를 생활화하신
한국의 다성(茶聖)초의선사(艸衣禪師)
우리 전통차 문화를 꽃피운 초의선사의 정신문화를
널리 선양하고 차문화의 저변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다인 및 불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행 사 개 요

◆일 시 : 첫째날 2007. 5.19(토) 14:00 ~ 17:00
둘째날 2007. 5.20(일) 10:00 ~ 17:00
◆장 소 : 초의선사탄생지 경내 및 다 교육관 주변
◆주 최 : 무안군
◆주 관 : 초의선사탄생문화제 집행위원회
◆문 의 : 사단법인 초의학술문화원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943번지
전화 061)285-0922 / 팩스 061)285-0304

행사 프로그램 일정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첫째날 : 5월 19일(토)		
초의선사 학술세미나	14:00~16:00	다 교육관
초의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16:00~17:00	다 교육관
둘째날 : 5월 20일(일)		
농악놀이	09:00~09:40	행사장 주변
어린이 행다시연	10:00~11:30	다 교육관
초의선사 헌다의식	11:00~11:30	다성사
천인헌다제	11:30~17:00	다성사
차문화 도서전시회	12:30~13:30	다 교육관 앞
초의선사 동상 헌다제	13:00~14:00	초의선사동상 앞
전통행다법 시연	14:00~16:00	다 교육관
차와 소리의 만남(국악공연)	16:00~17:00	다 교육관
상설 · 부대행사 5/19(토)~5/20(일)		
세계각국의 차 전시	10:00~17:00	용호백로정 주변
茶 음식전시 및 체험	10:00~17:00	명선관 주변
전통한과 전시 및 체험	10:00~17:00	명선관 주변
다식 전시 및 체험	10:00~17:00	명선관 주변
차떡 전시 및 체험	10:00~17:00	명선관 주변
떡차 만들기	10:00~17:00	명선관 주변
차상보 전시회	10:00~17:00	산책로
차문화 사진 전시회	10:00~17:00	명선관 주변
초의차 제다법 시연다	10:00~17:00	교육관 주변
초의선사 행다법 시연다	10:00~17:00	교육관 주변
차모음 전시 및 시음회	10:00~17:00	명선관 주변
자기나무 심기	10:00~17:00	명선관 주변
다인결계수인 만들기	10:00~17:00	명선관 주변
무료차 시음회	10:00~17:00	명선관 주변
초의등불 밝히기	10:00~17:00	행사장 주변

조계사 성역화 사업 2단계 '시동'

70억원 투입 시민선원 건립·극락전 해체 보수 등 예정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 시민선원 기공식을 시작으로 성역화 사업 2단계에 돌입한다.

조계사는 5월 18일 오후 2시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시민선원 기공식을 개최한다. 기공식에는 총무원장 지관,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혜총,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 등과 국회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공식은 2002년부터 시작한 조계사 대웅전 해체 보수, 일주문 건립, 삼존불 봉안 등 1단계 성역화 사업 마무리 후 2차 성역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조계사는 2차에서 시민선원 건립을 비롯해 극락전 해체 보수, 종각 철거와 신축, 문화사업관 건립, 영산전 건립을 할 계획이다.

총 70억원이 투입될 시민선원은 수송빌딩과 안심당을 해체한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대지면적은 241평이며, 건축면적은 603평.

시민선원에는 선방과 기초선원실 등 수련 시설과 발우공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양간, 다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들어서며, 교육생 숙소와 교수실, 사무실도 마련된다.



조계사 시민선원 조감도.

인사동-조계사-경복궁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의 틀을 구체화하기 위해 건립되는 문화사업관은 대지면적 175평, 건축면적 800평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영산전은 대웅전 삼존불 조성으로 기존 목조 석가모니 부처님 및 후불탱화를 모실 전각 및 신행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된다. 대지면적 263평, 건축면적 20평에 맞배지붕 정면3칸 측면2칸으로 조성된다. 총 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 내 준공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시민선원은 올 9월 완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배에 사랑 담고, 1배에 아픔 나누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기도' 행사

5월 4일 저녁 7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과 앞마당에 6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돕자는 마음으로 모인 불자들은 1배, 1배에 정성을 담아 3000배를 채워 나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이 실시한 '제7회 난치병어린이돕기 3000배 정진기도'에 참여한 이들은 1배마다 100원을 모금해 백혈병이나 심장병 등의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지원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이날 법회에 참석해 지원금과 "바쁜 시간을 쪼개 참여한 불자들에게 감사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법문을 내렸다. 정진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불자들은 1배당 100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보내 마음을 보탰다.

이번 정진기도를 통해 현장모금 2000여 만원과 불교방송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 수익금, 온라인 후원금 등을 합친 총 3000여 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복지재단은 5월 중순 경 선정위원회를 열고 6월 초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할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미래사회연구소 현판식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 성관)가 5월 3일 산하 종책연구기관인 불교미래사회연구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문을 연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법안 스님(실천승가회 부의장)이 소장을, 보경 스님(서울 법련사 주지)이 부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스님과 재가불자 관련분야 전문인 10여 명이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돼 법률,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종책 분야를 연구하게 된다. 올해는 '주요종책 의제개발 및 단 · 중기 과제실천'을 목표로 삼고 사찰경영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강맥 전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5월 9일 안암동 보타사에서 전강법회를 통해 박한영, 운허, 홍법 스님으로 이어진 한국불교 전통강맥을 선지(통천사 주지), 법인(화엄학림 강사), 승원(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 관장) 스님 등 세 명의 제자에게 전수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인천불교 범종단 화합을"

5월 19일 봉축대법회 봉행

인천불교 범종단 공동 봉축위원회(위원장 지명)는 5월 19일 오후 5시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봉축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인천불교 범종단 화합과 불교의 대중화, 남북 평화통일 및 2014년 아시안 게임 성공을 기원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열린다.

식전행사로 컵등 만들기, 합장주 만들기, 풍선 나눠주기, 사물놀이 공연, 법고 연주 등이 열리며 본행사로 축하공연과 봉축법요식이 개최된다.

남동우 기자

北에 비닐하우스용 자재 지원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5월 10일 인천항을 통해 북측 남포항으로 비닐하우스 설치용 자재인 골조용 철근과 비닐 등 40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을 지원했다.

이번에 보낸 자재는 4월 23일 금강산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합의한데 따른 것.

조선불교도연맹은 평양시에 위치한 두루섬에 폭 6m, 길이 50m의 비닐하우스 7개동(면적 300㎡)을 설치해 북측 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야채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진각종과 조불련은 현재 불교협영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원우 기자

"예성애드컴 공사대금 조계종에 반환하라"

"불교중앙박물관 입찰 사기" 판결

예성애드컴의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입찰행위는 사기이며, 공사대금 중 7억1260만1481원은 조계종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25일 서울중앙법원 제24부(재판장 김경배)에서 진행된 불교중앙박물관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성애드컴만이 조계종의 낙찰기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조계종의 낙찰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거나 응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입찰함으로써 조계종을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 계약 무효를 인정한다"고 적시했다.

남동우 기자

"발굴유물 소유권 회암사에"

대법, 국가 귀속 관례 뒤집고 사찰에 승소 판결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발굴유물의 소유권이 회암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4월 27일 회암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였던 사찰 경내지의 발굴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사찰에 있음이 인정된 첫 판례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절이 소실돼 사라지거나 규모가 줄었어도 재건 돼 승려들이 활동한다면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회암사와 옛 회암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곧 회암사지 출토 유물의 소유권이 현재의 조계종 회암사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해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조계종은 5월 8일 "이번 회암사 승소 판결은 법원에서 사찰 경내지의 발굴유물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동안 사찰출토 문화재가 국유화되면서 여러 기관으로 유물이 분산 보관돼 오던 폐단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앞으로 사찰 경내지 출토문화재 관리에 관한 법령 보완 및 행정지침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사찰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구독료 및 법보시 자동이체 안내 매월 자동이체 하시는 통장의 예금주가 (주)현대불교신문사에서 (주)에이치비엠씨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중국 장가계와 남보타사 순례 떠나요

현대불교신문사는 중국 전문 여행사인 격린여행사와 정식으로 업무제휴를 맺고 성지순례 사업을 실시합니다. 수려한 봉우리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중국 여행의 최고 백미로 꼽히는 호남성 장가계(사진)와 당나라시대에 건립된 천년고찰인 복건성 하문 남보타사를 참배합니다. 장가계에서는 천자산 자연보호구를 비롯해 무릉원으로 불리는 백장협, 봉우리가 붓을 꽂아 놓은 듯한 어필봉, 원가계 풍경구, 중국최대의 동굴인 황용동굴 등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문에서는 남보타사 이외에도 역시 천년고찰인 천주의 개원사와 범천사 등 3사 순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하문 최대의 온천장인 '일월곡' 관광도 할 예정입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격린여행사
- **일시:** 6월 1일(금)~6월 6일(수)<5박6일>
- **일정:** 장가계, 원가계, 하문 남보타사, 개원사, 범천사
- **가격:** 84만9천원(비자 수수료 포함)
- **문의:** 격린여행사(02)778-9338/담당 임수연, 안경아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 · 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http://hompy.buddhapia.com/homepy/hawaii)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6일(목)~8월 14일(화)(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1차= 3월 15일~ 4월 20일
  2차= 5월 1일~ 5월 30일(참가비 5% 인상)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하와이 무량사
- **후원:** (재) 보덕학회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720-1868/ 010-6318-1976
- **주요 프로그램**

-어학연수: 하와이주립대 영어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역사체험: 사탕수수농장 방문, 진주만 탐방, 펀치볼 국립공원 참배.
-자연체험: 와이키키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리버랑산, 와이메하공원.
-문화특강: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 강의' 실시.

21세기 불교를 학문과 교양으로 읽는다



자유인 임제

성열 지음 | 신국판 | 값 18,000원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지宗旨인 임제종을 창시한 임제臨濟의 일대기!

부처님을 믿고 매달리는 신앙인이 아닌 부처님으로부터 벗어난 대자유인으로 선禪의 참모습을 보여준 임제를 통해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을 찾는다.

현암사가 신보이는 불교 서적



보살예수 김희성 지음 |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오강남 지음 | 세계 종교 둘러보기 오강남 지음 | 신쓰끼리뜨로 금강경 공부 성열 지음 |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숭산선사 공안집 |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대우 지음 | 부처님 말씀 성열 엮음 | 다석강의 다석학회 엮음

알기 쉬운 불경

불교경전의 정수精髓만 모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불경 시리즈

불교대전 민혜 한몸로 편찬 | 이원섭 역주
불교성전 석혜운 옮김
불교개론 마스타니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붓다 무사고지 사네아츠 지음 | 박경훈 옮김
법구경 김달진 옮김
열반경 다무라 요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아함경 마스타니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회엄경 다이키 고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반야·유마경 이시다 미즈마로 지음 | 이원섭 옮김
미란타왕문경 이시카미 젠오 지음 | 이원섭 옮김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121-862 서울시 마포구 아현 3동 627-5 전화 02-365-5051 www.hyeonamsa.com

한국불교학회 '불교와 젠더' 주제 학술대회

부처님도 성 변화된 출가자 인정

2001년, 연예인 하리수씨가 처음 방송에 데뷔했을 때 우리 사회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담론'으로 떠들썩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성'이나 '여성'을 부여받고, 그 성(性)은 평생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성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그 사이 하리수씨는 주민등록상 '여성'이라는 법적 정체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5월 19일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등 '자신이 추구했던 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자신에게 주어진 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아직 배타적이기만 하다. 불교에서는 성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는 '불교와 젠더(Gender)'를 주제로 5월 11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2007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옥선 교수(순천대)는 '불교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초기불교 율장에 나타나는 트랜스젠더 사례와 대승불교의 '변성(變性)' 개념을 통해 트랜스젠더 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의 입장을 살펴봤다.

안 교수는 우선 트랜스젠더의 개념을 정의했다. 흔히 '수술에 의해 성을 전환한 혹은 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안 교수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생물학적 성을 전환한 사람을 일컫는 정확한 용어는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며 "이 보다 상위 개념인 트랜스젠더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자웅동주의 양성적인 사람 △외과적 수술을 통해 출생 시 주어진 성을 바꾸거나 바꿀 사람 △남자로서 여장을 하거나 여자로서 남장을 하는 사람 등이 모두 트랜스젠더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 "부처님, 자연스럽게 수용 합당한 조치 취해"
>
> 성전환수술은 자아정체감 확보의 문제

그렇다면 불교경전 속에 트랜스젠더에 관한 사례가 있을까?

초기경전 율장에는 여성 성징(性徵)이 나타나는 비구와 남성 성징이 나타나는 비구니의 예가 나타난다. 부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반대의 성징이 출현한 출가자에 대해, 여성 성징이 나타난 비구에게는 비구니의 계를 따르도록 하고, 남성 성징이 나타난 비구니에게는 비구의 계를 따르도록 했다. 안 교수는 "부처님은 성전환을 병적인 현상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는 '변성' 혹은 '전성(轉性)'의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안 교수는 '우리의 몸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라는 변성 개념에 대해 "변성에 대한 이중적 입장은 이에 대한 무집착의 메시지로 읽혀진다"며 "또한 이는 변성에 대한 적극적 독려나 금지보다는 변성행위 자체에 대한 무집착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안 교수는 불교적 입장에서 '성전환 수술은 부당 · 불가하다'고 말한 근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의 성별변경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성전환수술은 단순한 성지향성이나 성정체성의 표현이기 이전에 자아정체감 확보와 자기긍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안 교수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과 자신이 동일시하는 성별 사이의 괴리로 인한 트랜스젠더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을 불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번뇌'는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모두의행복을가꾸는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 이하 밝은사람들)은 5월 26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교와 상담-괴로움의 뿌리인 번뇌, 무엇이며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주제로 제3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가 '초기 · 부파불교'를, 안성두 교수(금강대)가 '중관 · 유식불교'를 장익 교수(위덕대)가 '밀교'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지창규 교수(동국대)가 '천태 · 화엄불교'를, 월암 스님(벽송선원장)이 '선불교'의 입장에서 불교와 상담의 접점을 살펴본다. 여수령 기자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열려

차계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잡은 '초의선사 탄생문화제'가 5월 19~20일 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초의선사 탄생 22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茶)교육관 준공식과 다양한 전시 ·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첫째 날인 19일에는 실내악 연주와 대금, 국악공연이 어우러지는 '초의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와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20일에는 초의선사 헌다의식과 어린이 행다 시연, 차문화 관련 도서 전시회, 초의차 제다법 시연 및 체험, 초의선사 궤불 봉안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동다송비' 제막식과 금오초당 준공식도 함께 열린다. (061)285-0303 여수령 기자

"일제강점기 불교정화 중심 인물"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세미나

"동산 스님은 현대불교사의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일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불교정화의 중심인물이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불교계의 변화와 모순의 흐름을 그 당시 불교정화운동의 주역과 활동과 함께 살펴보는 논문이 발표됐다.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동산문도회와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5월 8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개최한 제1회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학술세미나'에서 '동산의 불교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동산 스님이 입적한지 40여 년이 지났고 불교정화운동의 최고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조계종단의 불교정화운동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1912~26년까지의 동산 스님 행적과 수행을 살펴보고, 일제하에서 불교정화운동에 가담한 1935년 이후의 행적을 구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동산 스님의 일제하의 불교정화 활동에 대해 "1935년 수좌대회와 1941년 유교법회에서의 선종 창건, 종무원 설립, 선풍진작, 계율수호, 전통불교 수호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성미 기자

조선왕실의궤 반환 요청

日에 환수 요구 민사조정신청서 제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의장 정념 · 철안 · 김원웅)는 5월 8일 11시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의 환수를 요구하는 민사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사진).

환수위원회는 일본 왕실과 일본 정부를 피신청인으로 한 민사조정신청서에서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를 비롯한 72종의 왕실의궤 반환을 요청했다. 환수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부당하게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민족의 열망을 담아 '조선왕실의궤'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고자 한다"며 "이것은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를 넘어 민간 차원의 청구권이 살아 있음을 공표하는 일이며, 일본 정부에 약탈문화재 반환의 역사적 당위성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의 의례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기록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지정신청돼 있는 상태다. 이 의궤는 오대산과 태백산 등의 사고(四庫)에 보관되어 오다, 일본 침략기에 조선총독부가 일본 왕실에 기증함에 따라 도쿄 일왕궁(日王宮)으로 옮겨졌다.

2006년 일본 도쿄대가 소장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환수 운동을 주도한 환수위원회는 '조선왕실의궤환수위'로 개편하고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청규' 정의 내려야"

적멸 스님, 대각사상硏 세미나서 주장

제반 규정 사이 상관성 등 모호

통상적으로 선원의 규약 · 규칙 등을 일컫는 용어인 '청규(淸規)'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까?

적멸 스님(현불사 주지)은 5월 4일 서울 법안정사 관음전에서 열린 대각사상연구원 학술세미나 '백용성 스님과 한국불교의 계율'에서 '근현대 한국선종교단에서 제정된 청규에 관한 고찰'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스님은 "청규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기준이 없다"며 "청규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고 그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용성선사의 결사회 규칙, 한암선사의 선문규례, 성철선사의 공주규약 그리고 오늘날 조계종 5대 총림이 제정한 여러 규정을 살핀 후 "이 모두를 일괄적으로 청규라고 부르는데, 언제 누가 무슨 이유로 청규라 칭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중국 선종교단의 청규는 백장의 청규를 말하는 것이고, 이후 제정된 청규서도 근본 사상이나 체제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근현대의 제반 규정은 무엇을 청규라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청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여수령 기자

인도음악 들으며 템플스테이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5월 26~27일 '인도음악과 함께하는 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인도 타고르 예술단 '마무리(MADHURI)'를 초청해 타고르의 시와 노래, 춤 등의 인도음악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는 미황사 창건설화와 걷기명상, 산행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참가신청은 5월 24일까지이며,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일반인 5만원, 학생 3만원. (061)533-3521 김원우 기자

봉은사, 부부 주제로 강좌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가 5월 11일부터 5회에 걸쳐 '부부'를 주제로 참살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부가 함께 참가하는 이번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부부갈등' '성(性)' '대화' '기 살리기' 등의 강좌를 통해 행복한 가정 꾸리는 법을 배워본다. 불교상담개발원 권경희 사무총장과 이근후 열린마음클리닉 원장, 이서원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6월 23~24일에는 봉은사에서 '의사소통과 대화법'을 주제로 수련회도 개최한다. 선착순 20쌍 모집. 참가비 5만원. (02)3218-4728

관음사, 트로트 음악회 개최

부처님오신날,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에는 흥겨운 트로트가 울려 퍼진다. 1000여 명의 불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인 '관음사 트로트 산사음악회'는 올해로 3회를 맞는다.

관음사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개그맨 염경환씨가 사회를 맡고 현진우 최유나 진요근씨 등이 초대가수로 참여한다. 어린이 벨리 댄스 시범단의 공연도 펼쳐진다. 현진 스님은 "가장 서민적인 무대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트로트 산사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7~24일에는 관음사 천불전에서 50여 점의 연꽃 사진전도 열린다. (043)256-6254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네팔무용단 초청 경로잔치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 법요식과 함께 네팔 국립 민속무용단 초청공연 및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오전 11시 열리는 1부 행사에서는 용암사 제10회 경로잔치가 옥천 관성회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고, 저녁 6시 30분에는 네팔국립민속무용단 공연 및 대성사(주지 혜철)의 네팔 문화교류 증서 교환이 진행된다. 이어 봉축 법요식과 시내 제등행렬 등도 펼쳐진다. (043)732-5560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봉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부종정) 석정관

원로원장 석화담

호법원장 대원 의전원장 원담 원로 법령 원로 월타
교육원장 구진 포교원장 보광 원로 무송 원로 도원
연수원장 도명 총무원장 도법 원로 혜암 원로 일우

● 서울 총무원
총무부장 일두
교육부장 무초
사회부장 청암
연수부장 성운
비구니부장 혜광

● 각부국장
문화국장 보성
포교국장 도명
연수국장 지우
사서국장 성덕
비구니국장 영암
부산포교국장 용정
충남포교국장 법정

● 각시 도 종무원 원장
경기종무원장 지공
경북종무원장 태룡
제주종무원장 의공
경남종무원장 청강
충남아산종무원장 수암
대구시종무원장 성진
대전광역종무원장 혜각
충북영동종무원 선학

수행국장 보각
수행특보 덕우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66-7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2)391-8583

축

한국생활불교조계종법사단종무원

경남법사승 종무원장 도혜 대법사
울산법사승 종무원장 법광 대법사
충남법사승 종무원장 명보 대법사

중앙포교국장 보현 중앙총무국장 원명
서울경기국장 자운 대구포교국장 송정

종무원 국장 혜명
종무원 국장 수혜

● 부산지부종무소
지국장 혜성
부산지부 051)865-7975

● 강원지부종무소
지국장 덕경
강원지부 033)553-6653

● 충남지부종무소
지국장 성각
충남지부 041)547-1442

● 경남창녕지부종무소
지국장 법성
창녕지부 055)532-7070

◆마산사무실 : 경남 마산시 오동동 55-36 2층 대표전화 055)224-1769
◆울산사무실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57-1 대표전화 052)251-7748
◆충남사무실 : 충남 서산시 팔봉동 금학리 1061 대표전화 041)664-2296


외송리 전경

“산수유도 내 껏 아니여 새들이 주인이지”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⑫ 조계산 송광사


우화각 아래 홍교


우화각 아래쪽 징검다리.

송광사에 갈 때마다 사람주나무를 본다. 미끈한 종아리를 가진 사람주나무를 오래 전에 두고 온 나를 보듯이 자세히 본다. 지난 겨울의 혹독함을 견딘 나무는 어느새 새 이파리를 달고 있다. 얼마나 속이 뜨거웠을까. 잎 색이 붉다. 사람주나무 옆에는 서어나무 굴참나무들이 저마다 잎을 내밀고 있다. 세상에 있는 색깔 중에서 봄 나무의 잎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 굴참나무 서어나무는 투박한 남정네의 손처럼 굵은 각질의 피부를 가졌고, 사람주나무는 열여섯 처녀애의 종아리처럼 미끈한 피부를 가졌다.

절로 가는 길은 언제든 마음 접는 길. 거듭 절하며 나보다 더 하찮게 여겼던 것들에게 미안해하며 가는 길. 뉘우치며 가는 길. 느리게 걷는 발걸음이 무겁다.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보 사찰의 하나인 송광사. 몇 년 전 나는 송광사에서 부처님의 복장유물을 친견하는 영광을 맛보았다. 광주 자운사 아미타좌상의 복장유물을 조사하는 전문가들과 함께한 자리였는데 <묘법연화경> <주금강경>

외송리 일대 대부분이 절 땅 마을 30여호 식당 민박집뿐 “절 혜택 많이 입고 살아요”

등과 함께 발견된 자료 중엔 ‘헝겁 한 쪼가리’까지 시주한 내역이 적힌 문서도 있었다.

송광사는 언제 와 보아도 단정한 모습이다. 매무새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학승의 모습이랄까. 우화각을 지난다. 우화각 아래 홍교에는 백년도 넘었을 엽전 몇 닢이 매달려 있다. 옛날 절을 지을 때 남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후세 사람들을 위해 남겨 둔 것이라 한다. 헝겊 한쪽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 마음 그대로다.

절 안의 건물들은 대부분이 보물이고 국보다. 사천왕상을 지나자 종무소가 나온다. 대웅전 마당은 정갈하다. 비사리구시에 눈 한 번 주고 마음은 풍경에 매달린다. 맑은 풍경 소리 끝에 조계산의 꽃들이 피어난다. 닦아도 더께 가득한 가슴 속에 문득 울리는 풍경 소리가 물길을 낸다.

징검다리를 지나 절을 나온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흥에 겨워 있다. 바위를 악착같이 감싸고 있는 나무의 뿌리들. 뿌리들의 안감힘을 위무라도 하는 듯 물소리는 낮고 차분하다.

일주문 근처에는 조계산에서 나왔을 나물이나 약재를 파는 할머니들이 있다. 장사가 잘 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늘어선 식당 앞에는 물건을 덮어 둔 포장이 밧줄에 동여매져 있다.

“마수도 못했소. 당아.”

이애자 할머니(80)는 둥글레, 헛개 열매, 고사리, 표고, 호박 말린 것 등을 팔고 있다.

“차로 쩌 우게다가 다 대뿔고, 하레 마수도 못할 때가 쎄부렀어. 저 보씨요. 저 우게 가면 노인들이 줄줄이 앙겄어. 나는 담배가 있어서 담배나 하나 폴라고 앙겄제. 담배 두 보루 폴아사 한 갑 남은다디야?”

마수도 못했다는 말에 헛개 열매와 둥글레 등을 조금씩 산다.

“댈에(달여) 잡수면 좋아요. 간에도 좋닥항께, 드씨요. 만원인디, 마수고 긍께 오천 원만 주씨요. 갖고 가서 약해 잡수시요.”

할머니는 아들을 먼저 저승으로 보내고, 며느리와 손자와 할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산다. 손자 학용품 값이라도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도 시원치 않다.

“일정 때게 태어나서 눈도 봉사제.”

물건을 좀 더 샀더니, 몇 움큼을 기어이 덤으로 준다.

송광사 사하촌인 외송리(순천시 송광면)는 식당과 민박집뿐이다. 식당을 하고 있는 장대철(53)씨는 구산 스님과 얽힌 일화를 들려준다.

“계실 때게 뭐, 절약하셨죠. 구시에 밥태기도 있으면 주워 묵고, 아깝다고 그만큼 검소하고, 든든하신 분이죠.”

구산 스님을 뵈면 항상 웃는 얼굴에 덕이 느껴졌다고 한다. 장씨는 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낸다. 비구승들이 몰려오기 전 송광사 스님들도 속가에서 지낸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장씨의 친구 중에는 스님네 자식이 꽤 있었다고 한다.

“세배를 꼭 갔죠. 스님네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요. 세배 가면 돈 줘요.”

외송리 일대의 땅은 대부분 송광사 소유이다. 마을은 30여호 쯤 되었는데, 옛날 논 자리에 식당들이 새로 들어섰고, 원래 마을의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절 땅이 약 팔십 퍼센트 됩니다. 우리가 절 혜택 많이 입고 삽니다. 옛날에는 다 농사지었어요.”

농사철이 시작되어선지 마을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집마다 민박집 간판을 내걸고 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김숙자(61 · 외송리)씨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다.

“옛날 같이 손님이 안 많애요. 이, 뭐냐? 숭년(흉년)이 안 들었을 때, 그때 많앴죠.”

숭년이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아인에프”라고 말한다. 하긴 아이엠에프만한 흉년이 어디 있을까.

“닭도 촌닭 켜서 폴고, 이만 원씩에 막 폴고, 백숙까지 삶아주면 삼만 원은 받아사 돼. 근디 그 지서리도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할라면 청소 해야제, 멋 하제.”

‘아들 서이 딸 둘을 다 여웠다’는 김씨에게 집 자랑을 해 보라 하였더니, 갑자기 차려 자세를 취하며, 말을 한다.

“여름내 오만 과일나무 있고, 두릅이랑 감나무도 있고, 우리집 오면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

산 바로 아래 집이라서 전망이 좋다. 그런데 닭장에 가 보니 닭이 한 마리도 없다.

“풀 뜯어 묵으로 갔제. 그랑께, 촌닭.”

하면서 환히 웃었다. 여러 종류의 산새들이 풍경 소리보다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새들은 그다지 이로운 존재가 아니다.

“산수유도 내 껏이 아니여. 산수유 못 따요. 여름이면 거 흑한 새가 다님서 복성(복숭아)이고 머이고 다 따묵어요. 젠딜 것이 없어요. 다 따 묵어부러.”

결국 산수유나 감나무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야생 조류인 셈이다. 그래도 김씨는 “새소리가 얼마나 좋냐?”며 활짝 웃었다.

송광사=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야생화를 혈육처럼 김해화시인

“꽃이 울면 나도…” 지독한 야생화 사랑



80년대를 대표하는 노동자 시인 김해화(사진). 공사판에서도 거칠기로 소문난 철근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감수성은 한없이 예민하다. 시를 쓰는 틈틈이 사진을 찍는 그. 그의 야생화 사랑은 지독하다. 비가 오는 날이나 공친날이면 어김없이 그가 찾아가는 곳. 조계산과 모후산 일대이다.

“꽃들이 말을 해. 환청이 들려. 꽃들의 울음을 들으면 나도 몰래 눈물이 나지.”

그에게 야생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넋이다.

“우리 마을에서 처녀 하나가 죽었는데, 세상에 거기다 나무를 박아서 죽였다는 거야.”

그 처녀의 울음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어느새 시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린다. 그에게는 열여섯에 고향 떠난 분이, 여순사건 때 총 맞아 죽은 아재, 늙은 철근쟁이 이씨 등,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민중들의 모습이 얼레지꽃, 광대나물꽃, 히어리꽃으로 살아 말을 건다.

시인의 야생화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몇 년 전에는 야생화 사진과 글을 모아 <김해화의 꽃편지>라는 책을 묶기도 하였다.

“한번은 모후산에 갔는데, 타래난초가 있는 거야. 눈에 잘 띄는 곳에 기가 막히게 피어 있드라고. 그래서 사진 찍고는 꺾어 버렸지.”

그의 입에서 꽃을 꺾었다는 말이 나오자 당혹스러웠다.

“사람들이 그거 있는 거 알면 캐 가 버리거든. 그런데 꽃은 꺾어 버려도 뿌리가 있어서 다 살아.”

방법은 같아도 사랑의 깊이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금강 오색 오방氣 염주 (차량걸이)

5색기는 동, 서, 남, 북, 중앙의 5방을 표시하기도 하고 청, 황, 적, 백, 흑의 5색인종이 하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래 이 기는 1882년 영국군인 올콧트대위가 창안한 것인데 1950년 W.F.B(세계불교도 우의회)에서 만국공동의 불교기로 채택하면서 청색은 귀의, 황색은 지혜, 적색은 자비, 백색은 청정, 등색은 정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자고 결의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금강 오색 오방氣 차걸이용 염주는 불자님의 무사고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점안 기도하여 출시되었다.



안전케일 무사고운전

가격 : 8,000원 (낱개 주문시 택배비 별도)

(차걸이로 사용하세요!!)

출시기념 : 3개 이상 구매시 1개 더 드립니다.

특허, 상표등록, 디자인등록출원원

신제품

희담석 지압 신발 패드

희담석지압 신발 패드는 희담석의 뛰어난 에너지가 걸으실때 언제 어디서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특히 외근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걸어야하는 직장인들,선방스님, 발이 아파 많이 못 걷는 분, 자주 등반하시는 불자님, 군인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4,000원~~ → 20,000원 (출시기념 할인판매)


희담석이 들어있습니다.

사용법 및 주의사항

1. 신발크기에 맞게 가위로 잘라 사용하십시오.
2. 세탁은 부드러운 솔로 닦은다음 건조시켜서 사용 하십시오.
3. 절대로 수세미로 글거나 문지르지 마십시오.
4. 신발안의 못, 자갈등의 이물질로 인해 패드에 손상이 있을 시 제품의 교환이 불가능 하오니 주의하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 주문전화 02)2004-8219 [국민은행] 023-25-0007-617 (주)에이치비엠씨

일주문



안양교도소 수계법회

안양교도소 불교위원회장 현성 스님은 5월 21일 안양교도소 대강당에서 전 재소자들에게 빵과 두유 등을 공양하고 모범 재소자 176명에게 수계했다.



봉축탑 연등점화

은평불교사원연합회장 성운 스님은 5월 9일 은평구청 불심회와 공동 주관으로 은평구청 광장에서 '나라와 은평구민을 위한 봉축탑 연등점화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문화유적 답사

광주불교교육원장 영조 스님은 5월 20일 충남 마곡사와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제72차 불교문화유적 답사를 떠난다.(062)228-9098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6월 13일 실상사에서 '제12회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을 연다.(063)636-5388



정각선원 개원 12주년 법회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장 이해봉 의원은 5월 15일 성수 스님(해동선원 조실)을 초청법사로 국회 정각선원 개원 1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세계불교교육포럼 참석

금강대학교 성낙승 총장은 5월 17일~18일 중국 양주불교대에서 열리는 '세계 불교교육포럼'에 참석, '금강대 불교교육의 현황'이란 주제로 발제한다.



고교생이 장학금 방과 후 교실에 '희사'

고교 3년생들이 자신들이 받은 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기금으로 써달라며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지현)에 기탁해 훈훈한 미담거리가 되고 있다(사진).

화제의 주인공들은 경희고 3년생인 유승협, 이민기, 송현민, 오원택 등 네 명. 이들은 그간의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SK그룹으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들은 5월 9일 장학금 전액을 "우리보다 가정형편이 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써 달라"며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에 기탁했다. 김주일 기자

"2010 인재불사 비전 성공할 것"

불교아카데미 전우희 2대 이사장 취임



"불교계 내 핵심 지도 역량 강화는 결국 인재를 얼마나,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 전통을 당대에 맞게 계승하고, 미래를 위해 응용불교의 역할을 정립하는 일 등은 모두 이를 주도할 전문 인재양성에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1일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 2대 이사장에 취임한 전우희 이사장(58, 가온감정평가법인 이사 · 사진)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이사장은 불교아카데미의 '2010 인재불사 비전'을 통해 구체적인 인재불사 계획을 제시했다.

'2010 인재불사 비전'에 따르면 2008년까지 불교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전문가 3인씩을 육성하고, 각 종단별 교육 종사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포럼을 창립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방송교육대학 설립을 목표로 내년에는 '방송교육대학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기초 작업을 추진한다. 사찰포교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찰건축불사 모델과 사찰신도회 NGO활용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 이사장은 "불교아카데미가 발족했던 7년 전에 비해 사회 환경을 급격히 변화하고, 종단이나 불교계 역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 실험의 장을 열어가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처님의 뜻을 널리 펼칠 인재불사에 원력을 가진 출 · 재가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기대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전 이사장은 30여 년간 감정평가사의 길을 걸어 온 인물로, 한국감정평가협회 기획홍보위원장과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감정평가사 불자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전 이사장의 임기는 2008년 말까지이다. 여수령 기자

종교간 문화 소통 진작…종교문화연구원 개원



"다양한 종교전통과 문화를 전문적으로 조사 · 연구하고, 이들이 지닌 수행 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올바른 종교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교육할 생각입니다."

최근 서울 하왕십리동에 문을 연 종교문화연구원 이찬수 원장(45 · 前 강남대 교수 · 사진).

그는 지난해 초 경기도 용인의 강남대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한 '전직 교수'다. 2003년 교육방송(EBS)의 '똘레랑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상 앞에서 절한 것 때문에 학교측에 미운털이 박혔다.

아직도 복직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이 원장은 요즘 2~3곳의 대학 강의와 종교문화연구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종교 간 대화위원으로 활동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이 원장이 이번에 다시 문을 연 종교문화연구원은 원래 1989년에 20여 연구원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적이 있는 단체다. 그동안 회보 발행, 단행본 출판, 종교강좌, 명상 교실, 종교 기행 등 전문적이면서 대중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도모해오다가, 지난 1994년 활동이 잠정 중단됐었다. 하지만 종교간의 활발한 대화와 문화교류가 필요하다는데 학계와 종교계의 전문가들이 다시모여 의기투합하게 됐다.

"한국 종교계에서 가장 먼저 공론화해야 할 주제는 근본주의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 안에 이웃을 함께 담아내는 종교적 근본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종교문화연구원 개원 기념 강연의 주제도 '우리 사회의 근본주의'로 잡았다.

종교문화연구원의 첫 번째 사업은 지난 3일부터 6월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대중강좌다.

이 원장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다양한 종교들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이번 강좌는 불교를 비롯해 기독교 · 이슬람 · 유교 · 동학 등 다양한 종교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대학 中 잠산사 자매결연

한국(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가 5월 7일 중국 청도의 잠방사와 문화와 학술 등 다각적인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자매결연을 위해 잠방사에서는 방장 명철 스님과 주지 묘원 스님 부주지 묘길 스님, 총무 묘연 스님이 방한했다. 손법천 대구 지사장

서울지방경찰청 나라안녕법회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원담)은 5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경승단 총재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5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월도 스님(서초경찰서 경승) 등 세 명이 서울경찰청장이 수여한 감사패를 받았다.

청주청원 봉축탑 점등식



청주청원사암연합회(회장 각의)는 5월 4일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연합회 고문 보현사 원봉 스님과 회장 각의 스님을 비롯해 남상우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각의 스님은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 참된 불자가 되자"고 발원했다.

전등사 외국인 초청 잔치



강화 전등사(주지 장윤)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제2회 외국인 근로자 초청 잔치'를 5월 6일 경내에서 개최했다. 4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전통무용과 록 밴드 공연을 비롯해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등의 민속 공연도 감상했다.

청주 용화사 어버이날 행사



청주 용화사(주지 각의)는 5월 8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용화사 신도 50여 명은 어르신들에게 점심공양을 대접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각의 스님은 "불자들이 독거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대구 원만사 경로잔치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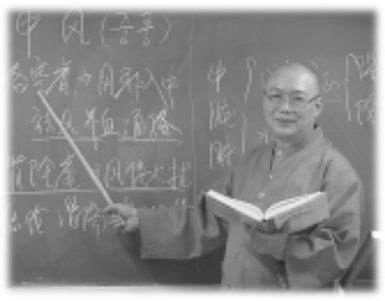
대구 원만사(주지 법홍)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7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윤순영 중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과 500여 어르신이 참가한 이날 잔치에서는 사물놀이 공연과 민요 원만사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으로 흥겹게 진행됐다. 법홍 스님은 "경로사상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암오행침구술 대특강

덕운큰스님의 비방공개 (3개월완성)

덕운스님은 사암오행침구술및 승가에 전해오는 침구술을 30여년 연구하신 큰스님으로서 불자들의 건강을 위한 활인공덕의 일환으로 최초로 비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강 사 : 사암도인의 침구술을 계승하신 덕운스님
▣ 일 시 : 2007. 6. 1 - 8. 30 (3개월)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오후5시)
▣ 보시금 : 일반인 - 월100만원
신도증소지자 - 월 50만원
승려증소지자 - 월 30만원
▣ 3개월 수료후 수료증 발급
▣ 문 의 : ☎ 02)3487-2311~3
FAX 02)588-1056
H.P 011-335-9351(담당자)



※ 참고: 동양의학방송국 사이트 무료강좌(토요특강)참조
(www.dytv.c●.kr)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67-3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활 인 정 사**

부처님 당시 경전 읽기

한글 니까야 독송회 회원 모집

부처님 당시 생생한 육성법문을 기록한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법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경전을 이야기 할 때 팔만대장경 또는 아함경(장아함 · 중아함 · 증일아함 · 잡아함)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 언어인 빨리어로 된 5부 니까야 (디카니까야 · 맛지마니까야 · 쌍윳따니까야 · 앙굿따라니까야 · 쿳다카니까야)가 진정 팔만 대장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알기쉽게 읽을 수 있게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부 읽는 신행결사를 갖고저 하오니 이런 귀중한 모임에 불자님들의 간절한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07년 6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동산불교회관 3층법당
- 특 강 : 전재성 교수
- 교 재 : 쌍윳따니까야 II (5부 니까야)
- 대 상 : 한글 니까야 독송을 원하는 불자는 누구나
- 회 비 : 동참회비 월 5만원 (교재제공)
- 독송지도 : 이미령 법사
- 문 의 : 02-732-1206 (청년회원 특전)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청년회**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독도 수호’ 불퇴전 신심으로…

태고종 ‘독도지키기 전몰군경 합동위령영산대법회’ 현장







전몰군경 위령 영산재를 시연(사진 위)한 뒤 태고종 스님들과 신도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땅’임을 외치고 있다.

면적 0.186㎢의 독도(獨島)는 울릉도 동남쪽 500리(87.4km)의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이다. 우리민족은 5000년 장구한 세월동안 독도를 삼봉도(三峰島),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돌섬으로 불러왔다. 현재의 명칭인 ‘독도’의 표기는 1906년 울릉도 초기 이주민인 전라도 남해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다.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는 동해의 햇살을 받아 초목과 해초가 살아 숨쉬는 천혜의 자연이 일품이다. 여기에다 하이드레이트(얼음으로 된 천연가스) 6억톤등 무수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한국의 보물섬이다.

그래선지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영유권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억지를 부리고 있다.

400여 불자 참여 일본 역사 왜곡 규탄 및 천도재
일운 스님 영산재 시연, 전몰군경 극락왕생 기원
독도 주민 김성도씨·독도수비대 등에 위문성금

태고종이 5월 8일 울릉도 도동항 선착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베총리 등 일본정부관계자들의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는 만행을 규탄하고, 독도 수호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진 분들을 천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초 독도의 부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독도지키기 국민화합 기원 전몰군경 합동위령영산대법회’는 높은 파도로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독도에서는 열리지 못했다. 결국 독도를 2번 선회하며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를 지키자’는 우리의 염원을 수차례 외친 후 도동항으로 돌아와 부두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어에서 “호국불교의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의 전통종단으로서, 이번 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회의 공덕으로 불자들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시 한 번 우리 땅 독도의 현실을 바로 알고, 전 국민이 독도지킴이가 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사를 주관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연산재 보존회 회장 환우스님(봉원사 주지)은 봉행사를 통해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키다 산화한 순국선열들을 위로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우리국토의 동쪽 끝 독도가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민족 자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진여심 봉원사 관음회장은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며 지성으로 발원한다”며 “우리땅 독도를 수호할 수 있도록 불퇴전의 신심으로 기도드린다”고 발원했다.

김영문 울릉군 부군수는 축사에서 “울릉도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 위령재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선조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받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남석 울릉군 교육장도 “일본을 규탄하고 전몰장병들을 위령하는 행사를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영산대재를 통해 전몰군경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그 분들의 의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부 순서로 진행된 위령대재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시연됐다.

삶과 죽음을 뛰어 넘어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한마당에 모여 고통, 망상 등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진리)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를 기원하는 마당인 영산재는 준보유자 일운 스님을 비롯 이수자들이 참가해 장엄하게 봉행됐다.

위령대재는 5000년동안 독도를 지키는데 힘쓴 신라인 이사부 부터 조선후기에 활약한 민간 외교가 안용복, 1953년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6. 25참전 경험이 있는 혈기 왕성한 청년 33명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주민등록 1호 최종덕씨의 영가천도로 진행됐다.

태고종은 법회가 끝난후 현재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씨와 독도수비대, 독도표지석회에 금일봉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가한 태고종 전법사인 수덕화 보살(남양주 양수리)은 “독도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돌아오니 우리땅을 소중히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며 “독도를 수호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전몰군경들이 좋은 곳에서 편히 쉬었으면 하는 기원을 했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씨가 통통배를 타고 반갑게 환영하고있다.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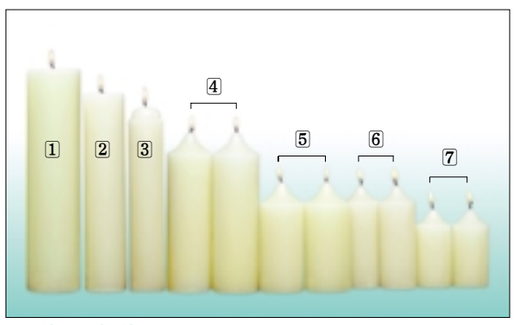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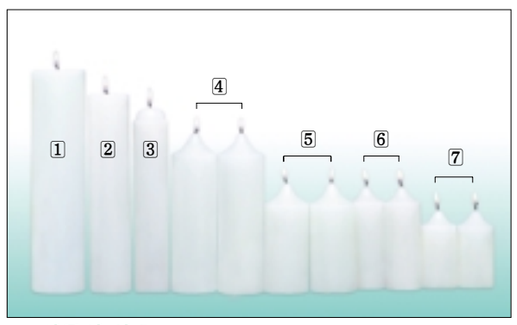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 식물성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9> 죄가 있으면 참회하라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이 진언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귀에 많이 익은 것으로서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독송하는 <천수경>에도 나오는 참회진언이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제가 지금 지은 허물도 돌아보지 않고 합리화 시키려 애쓰는데 마음 닦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언을 외워가며 과거에 지은 죄업,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까지 모두 참회한다. 참회를 통해 자신의 허물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다. 이러한 참회가 있으므로 수행자들은 흔들림 없이 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선가귀감> 69장에서 말한다.

有罪卽懺悔 發業卽慚愧 有丈夫氣象 又改過自新 罪隨心滅.

죄가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면 부끄러워하는 곳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또 허물을 고쳐 저절로 마음이 새로워지면 죄업이 그 마음 따라 없어질 것이다.

잘못 삶으로써 허물이 드러날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참괴(?愧)라 하고 자신의 허물을 부끄럽게 알고 고쳐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회(懺悔)라 한다. 육조스님은 참회에 대하여 <육조단경>에서 말한다.

"무엇을 참(懺)이라 하고, 무엇을 회(悔)라고 하는가? 참(懺)이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서 예전에 지은 나쁜 짓인 어리석음, 교만, 속임수, 시기, 질투한 죄들을 모두 뉘우쳐서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회(悔)란 뒷날 생길 허물을 생기지 않게 하려고 미리 다짐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지을 나쁜 모든 짓인 어리석음, 교만, 속임수, 시기, 질투하는 죄들을 지금 깨달아 영원히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를 회(悔)라고 한다. 참(懺)과 회(悔) 이 둘을 합쳤기 때문에 참회라고 부른다."

참회는 죄의 자성(自性)이 공(空)임을 깨달아 참회하는 '이참(理懺)'이 있고

죄업 벗어나려면 죄 가져온 중생의 마음 버려야
욕망 걷어내어 허물 짓지 않는 것이 올바른 참회

절을 하며 몸으로 뉘우치는 '사참(事懺)'이 있다. '이참'은 실상(實相)의 이치를 관하여 허물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로 잡는 참회이다. 죄란 비난 받을 만한 나쁜 행동이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본디 자성이 없다. 중생의 죄업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에서 부질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먼저 그 죄를 가져오는 중생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시비하는 분별심이 사라질 때,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에 따라 중생의 죄도 함께 없어진다. 죄도 없어지고 분별하는 마음도 사라질 때, 그 자리가 바로 모든 법에 실체가 없다는 공성(空性)이다. '나는 나쁘다, 이것은 죄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로서 마음이 사라지니, 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서 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주객이 함께 사라지는 경지를 터득해야 진짜 참회를 한 대장부이다. 이참의 뜻을 잘 설명한 게송을 보자.

죄무자성종심기(罪無自性從心起) 심약멸시죄역망(心若滅時罪亦亡)
죄망심멸양구공(罪亡心滅兩俱空) 시즉명위진참회(是則名爲眞懺悔)
죄라 함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
중생의 마음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생긴 죄도 없어지니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없어진 자리에 텅 빈 충만이 가득하면
이를 일러 진짜 참회라고 하니 다시는 허물이 있지를 않네.

'사참'은 예불(禮佛)이나 송경(誦經)과 같은 신구의 삼업의 행위로써 하는 참회이다. 참회를 할 때는 먼저 내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어온 온갖 나쁜 업들이 모두 오래전 세월부터 길들여져 온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몸으로는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남의 소유물을 몰래 훔치며, 잘못된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관계들을 사람들과 맺고 사는 것을 참회해야 한다. 입으로는 이간질을 시켜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험하고 거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며, 명성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말을 화려하게 꾸며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남을 현혹시키는 일들을 참회해야 한다. 뜻으로는 함부로 욕심내고 화를 내며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들을 참회해야 한다. 이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몸을 던져 뉘우치는 것을 사참이라고 한다. 사참은 현생의 잘못만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생에 지은 죄업까지 모두 참회하는 것이다. 사참의 뜻을 잘 설명한 게송을 보자.

아석소조죄악업(我昔所造罪惡業) 개유무시탐진치(皆由無始貪瞋癡)
종신어의지소생(從身語意之所生) 일체아금개참회(一切我今皆懺悔)
옛날부터 지은 죄가 한량없지만
이 모두는 알고 보면 탐진치 때문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
제가 이제 정성 다해 참회합니다.

신구의 삼업을 다스려 죄업을 뉘우치는 사참도 중요하지만 이참을 해야 비로소 본디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다. 죄를 만들어내는 중생의 마음 자체가 본디 실체가 없다는 이치를 꿰뚫어 보는 이참이야말로 진짜 참회이기 때문이다. 참마음은 본디 비어 고요해서 죄업이 붙어 있을 곳이 없으며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없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懺悔者 懺其前愆 悔其後過 慚愧者 慚責於內 愧發於外 然心本空寂 罪業無寄.

참회(懺悔)란 먼저 지은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똑같은 허물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이다. 참괴란 안으로는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밖으로는 그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참마음은 본디 비어 고요해서 죄업이 붙어 있을 곳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이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마음에 묻은 때를 씻어내지 못하고서야 참회를 했다고 할 수 없다. 본디 고요한 마음자리로 돌아가 지난날 지은 허물을 씻어버리고 욕망을 걷어내어 다시는 허물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올바른 참회이다. 제 허물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수행자야말로 뒷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지대방

지난해 연극 '지대방'이 공전의 히트를 치며 불교연극의 새 장을 열었다. 연극 '지대방'은 스님들이 동안거 기간 중에 지대방이란 공간에서 짬짬이 벌어지는 일들을 코믹하게 때론 장중하게 표현해냈다.

지대방은 수행 중 틈틈이 쉬는 스님들의 '휴게실'이다. 보통 큰 방에 딸린 작은 방을 가리킨다. 큰 방이 스님들의 수행 식사 회의 등이 열리는 공식적인 공간인데 반해 지대방은 사적인 공간인 것이다.

'지대방'의 어원은 '벽에 지댈 수 있는 방'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방에는 대중들의 걸망이나 이부자리, 목침 빗자루 등의 자질구레한 생활도구들을 넣어둔다.

지대방 사용자들은 그 사찰에 별도의 방을 갖지 못한 스님들이다. 다른 사찰에서 안거를 나는 수좌나 강원 학인, 갓 출가한 행자나 사미들이 주된 이용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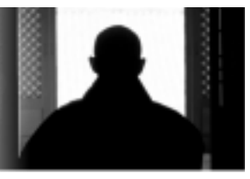
지대방은 휴식공간인 만큼 수행자에게 정해진 금기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병실과 겸하는 곳도 많아 수행 중 병이 생기면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 옷을 수선하거나 선어록 등을 읽기도 한다. 지대방은 다른 사찰이나 종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정보교환터이기도 하다.

<초발심자경문> 제10과 대중방에서의 생활을 보면 '고방에 나아가서 잡사를 견문하고 스스로 의혹을 내지 말지니라(不得詣庫房 見聞雜事 自生疑惑)'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방이 바로 지대방이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1>



상담 종결

상담은 시작과 진행 과정도 중요하지만, 종결도 중요하다. 종결을 잘 해야 내담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상담의 종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재탄생으로서의 종결이다. 상담을 시작할 때는 내담자가 심리적 문제에 압도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지만, 종결이 될 때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회복하여 심리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타협 형성으로서의 종결이다. 사실상 인간의 삶에서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상담에서도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은

내담자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대처 능력 등 가르쳐
부처님 열반 유훈은 현대 상담 종결 조건 다 포함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상담의 본질적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선에서 일종의 타협을 하는 것으로 종결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 실생활에 대한 적응 훈련 과정으로서의 종결이다. 내담자가 갖고 온 문제가 완화되었거나 해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종결을 한다. 상담에서 얻은 성과를 실생활에 적용해 보고,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만약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결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실생활에서 여러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를 바로잡고 넘어설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언제 상담을 종결할까? 현대 심리 상담에서는 성공적인 상담 종결의 조건으로 문제 증상의 완화, 현실 적응력 · 성격 기능성의 증진 등 세 가지를 든다. 여기서 성격 기능성의 증진이란 자신의 심리적 갈등의 기원 ·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며, 객관적인 견지에서 자신을 수용하고, 내 · 외적 현실을 잘 구분하며, 충동에 대한 인내력을 갖추고, 자기에 대해 과대 · 과소 평가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실제로 상담을 종결해 나갈 때 심리상담가는 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불안을 다루는 데 주력하며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앞으로 닥칠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내담자의 면역력을 쌓고, 증상 재발에 대해 준비한다. 즉 종결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감정을 정리하게 하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상담 종결을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의 상담, 즉 교화 활동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서 종결된다. 부처님은 "사랑할 만한 것은 모두 떠나는 법이니 괴로워하지 말라"고 자상하게 일러주면서 "자신을 등불로 삼고[自燈明] 자신을 의지하며[自歸依], 법을 등불로 삼고[法燈明] 법을 의지하라[法歸依]"고 말씀하신다. 현대의 상담 종결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내담자의 불안 다루기,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 극복하기, 내담자의 면역력 쌓기, 증상 재발에 대해 준비하기가 이 말씀에 다 들어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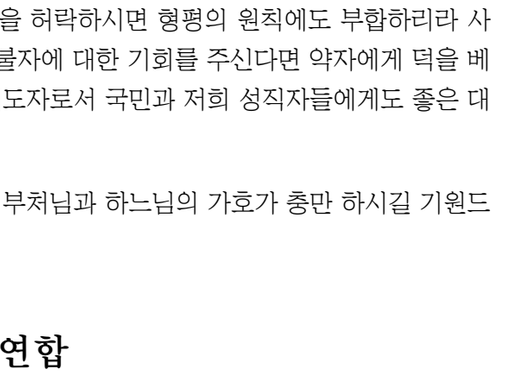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국가경영에 노고가 크신 노무현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저희들은 성직자로서 각하에게 앙청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전 민주당 대표였던 한화갑 불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한화갑 불자는 한국민주화에 헌신해온 몇 안되는 정치지도자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가 순간의 판단잘못으로 실정법을 어겨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국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성직자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정치활동과 민주화 운동과정을 통해서 실천하고 보여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그 사실만은 외면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죄는 밉지만 사람은 용서 받을수 있다는 생각에서 감히 각하에게 한화갑씨의 사면과 복권을 허락하여 주십사하고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각하께서는 대통령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어긴 사람을 그 당과 소속을 떠나 모두 다 사면과 복권을 시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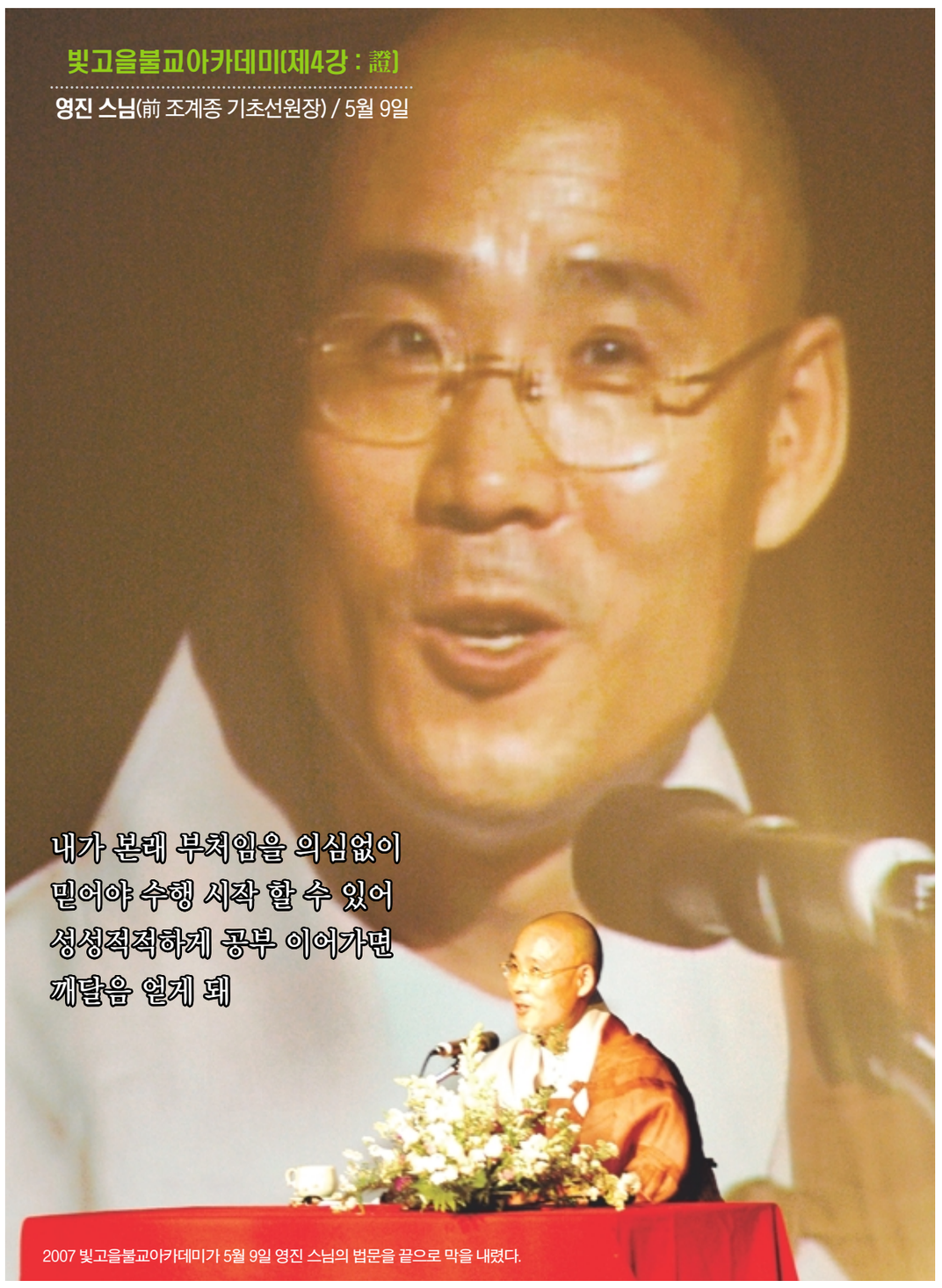
그래서 한화갑불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허락하시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런까닭으로 한화갑불자에 대한 기회를 주신다면 약자에게 덕을 베푸시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훌륭한 지도자로서 국민과 저희 성직자들에게도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리라 봅니다.

부디 저희들의 청원을 받아주시옵고 늘 부처님과 하느님의 가호가 충만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종교계의 현안과 고충을 함께 나누는 기구 · 전국 성직자 연합
공동대표 의장 석원일 스님

온몸으로 깨달아야 '증득'

빛고을불교아카데미(제4강 : 證)
영진 스님(前 조계종 기초선원장) / 5월 9일



2007 빛고을불교아카데미가 5월 9일 영진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제1강부터 제3강까지 믿음, 이해, 실천행에 대해서는 좋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바른 증득(證得)에 대해서 입니다.

증(證)을 해석 하면 '증득한다', '증험(證驗)한다'는 말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증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가 증득의 세계를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외도가 찾아와서 "대사문이시여 당신들이 내세우는 최고의 이상 경지는 니르바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르바나가 무엇입니까. 또 니르바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증에 대해서 묻는 것하고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기를 "당신의 질문은 니르바나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 외도가 나가려고 하니까 곁에 있던 사리불 존자가 "바라문이여 우리 위대한 대사문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저에게 물으십시오." 하니 바라문이 묻습니다. "그러면 니르바나가 뭡니까."

사리불 존자가 명쾌하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 타다가 꺼진 상태를 니르바나라 합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꺼지는 것을 적멸이라 하고 니르바나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외도가 다시 묻기를 "니르바나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 사리불 존자가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것을 끄면 그 불이 어디로 가느냐." 고 되묻습니다.

사라진 불꽃을 왜 찾습니까. 배를 타고 건넜으면 되었지 왜 메고 갑니까? 아직 내 생사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져있는가'라는 등의 고민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하면 그것을 니르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득의 경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득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절에 들어가서 등을 만드는데 촬사부터 종이, 연잎까지 접어서 풀어서 말리는 등 하나에서 열까지 다했습니다. 등에다가 스님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써요. 어린마음에 스님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서 왜 부처님 혼자 높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아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스님께서 "일체중생에게 하는 말이다. 일체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표현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이 단어는 불교가 있어야 하는 존재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중생이 지니고 있는 불성을 이야기 합니다. 이 선언을 지금 이야기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태어날 당시에는 사성계급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 당시 위대한 평등선언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부처입니다'고 말하신 것 입니다. 이 말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고 네가 곧 부처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증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는 말은 원래 부처임을 확인시켜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창조 종말은 불교와 관련 없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합니다.

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석에서 나옵니다. 광석을 금이라 하지 않아요.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면 다 녹고 금이 나옵니다. 제련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금은 흙 속에 넣어도 금이에요.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려면 제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무명의 구름을 벗기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종정이 되어서 종정추대식에 나가지 않으시고, 법문하나 보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철 스님 말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가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보면 물이 산이 되고 산이 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를 쓰다 보면 헛것도 보입니다. 공부하다보면 상기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쓴 흔적입니다. 산이 물 되고 그 것이 다시 산이 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단적으로 공부를 해서 마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이치에 가장 적응을 잘 하는 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빈 배같이 물결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 가장 자연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부처님 아니겠어요. 보여지는 것은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자기 생각이 최고인양 유추합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 시비분별을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첫째 조건은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믿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임을 확고하게 의심없이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수행의 점차를 이야기 합니다. 화엄경 오십이점차가 있습니다.

예전 중국에서 덕산 스님이 계셨는데 이 분이 남행을 합니다. 어느 절 밑에서 떡 파는 노인을 만나니 덕산 스님이 시장끼를 느꼈어요.

"노 보살님 떡 좀 파세요."

"걸망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강경입니다. 내가 금강경에 통달해서 주금강이라 합니다"

"스님.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면 떡을 공짜로 주고, 답을 못하면 떡을 안 팔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스님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이란 말이 나오는데, 스님은 어떤 마음에 점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꿈 해몽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날카로우면 스님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질문이 좋아야 대답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날카롭게 하려면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천하의 주금강 스님이 어떤 마음에 점심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힘이 싹 빠졌습니다.

"스님 떡 드시지 마세요. 이 위의 암자에 용담 스님이 계시니까 거기로 찾아가시오."

힘이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가다가 도량에 들어서서 용담 스님을 찾았습니다.

덕산 스님이 어두운 밤에 밖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용담 스님이 등불을 비춰주었습니다. 덕산 스님이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까 용담 스님이 훅 불어서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더 안 보이죠. 그 찰나에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찾으려고 하다 불을 껐을 때 덕산 스님이 완전하게 깨달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금강경 소초를 마당 가운데 놓고 불질러버립니다. 그동안 외우는 데만, 해석하는 데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임제 스님과 쌍벽을 이루던 덕산 스님입니다. 점차수행이 억겁다생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남방으로 가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덕산 스님에 대한 경계를 용담 스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라 때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이 소씨 동파라는 것은 호입니다. 이분은 위치가 태수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불교에 눈을 떠가지고 부임하는 곳마다 스님을 찾아뵙고 문답을 했습니다. 많은 스님이 골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호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서로 상견례를 하고 앉아있는데

승호 스님이

"시주께서는 성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저는 秤(칭)가입니다." (저울칭자입니다. 스님을 저울질 하러 왔습니다)

승호 스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동파가 놀랐습니다.

"그래 칭가라 하는데 이 억소리가 몇 근이나 나왔소?" 묻습니다.

천하의 소동파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수행하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몇마디 안했잖아요. 공부를 하면 번개처럼 빠릅니다.

소동파도 그렇게 해서 승호 선사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조계종의 전통수행법은 간화선입니다.

조계종 종헌의 전문에 보면 조계종은 간화선 수행을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선을 하는데 어떤 참선을 하느냐 ..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을 정통수행법으로 합니다.

화두를 드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대신근이요, 큰 믿음의 뿌리. 본래 내가 부처임을 확고히 믿고, 다음에 스승에 대한 선지식에 대한 믿음, 선지식이 제시한 것을 참구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둘째 대의단이요, 큰 의심입니다.

만공 스님께서 결제법문을 하실 때 일입니다. 꼬마가 법당에 끼웃하면서 들어오는 거에요. 만공 스님이 너 몇 살이냐.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 전에는? 네 살. 네 살 전에는? 세 살. 이렇게 하다가 한 살 전에는? 이러니까 꼬마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만공 스님께서 이번 결제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노라 하였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용맹입니다. 용맹심을 발하라. 하다보면 안됩니다. 그럴 때는 용맹심, 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만 하지 않을 뿐이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의 맛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전 십분, 깨어나서 십분 이렇게 화두를 참구하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삼십분씩 한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앉아있는 가운데 고요하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적적이고 화두를 또렷하게 드는 것을 성성이라 합니다. 성성적적하게 공부를 면밀히 이어가면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리=조영훈(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


빛고을불교아카데미 테이프를 구매하는 불자.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용성 스님(2)

용성 스님, 전강아! 전강 스님, 예!
용성 스님, 그것이 '제일구'니라

어느 날 용성(龍城, 1864~1940) 선사가 전강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제일구(第一句)냐?"

전강 스님이 답했다.

"예!"

"틀렸다."

이에 전강 스님이 손뼉을 치고 웃어 보였더니, 용성 선사가 다시 말했다.

"틀렸다."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이때 용성 선사가 느닷없이 "전강아!" 하고 불렀다.

"예!"

"그것이 제일구니라."

용성 스님이 후학을 일깨우는 수단은 능수능란한 달인의 경지이다. 두 번이나 대답이 틀렸다고 분심(憤心)을 일으킨 후 약이 바짝 달아올랐을 때, 학인의 근기에 맞게 선교방편(善巧方便)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단련을 받은 전강(田岡, 1898~1975) 스님 역시 당대의 선지식으로 이름을 떨친 것은 물론이다.

'제1구(第一句)'는 진리의 당체 지칭
분심 일으킨 후 '선교방편' 베풀어
후학 일깨우는 수단 '달인'의 경지

제자의 이름을 부른 후, '예!' 하고 대답할 때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공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문답은 '이뭣고?' 화두가 정형화되기 이전, 백장 선사의 문답에서도 나타날 만큼 학인의 본래면목을 일깨우는 효과적인 방편이라 볼 수 있다. <백장록>에는 이런 공안이 나온다.

"하루는 백장 스님이 설법을 마치고 대중이 법당에서 물러가자, 스님이 대중을 불렀다. 대중이 고개를 돌리자, 백장 스님은 '이것이 무엇인고(是甚麼)' 하고 물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면목'을 묻는 '이뭣고?' 화두는 다양한 공안집에 등장하지만, <벽암록>에 등장하는 운문 선사의 법문에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향림징원(香林澄遠)이 18년 동안 운문 스님의 시자를 했는데, 그를 가르침에 다만 '원 시자(遠侍子)!'라고 부르면, 원 시자는 '네!' 하고 대답하였고, 운문은 '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뿐이었다. 이렇게 하기를 18년 만에 어느 날 바야흐로 원 시자가 깨달으니, 운문은 '내가 지금 이후로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않으리라'고 하였다."

앞에서 용성 스님의 질문에 전강 스님은 똑같이 "예!"라고 대답했지만, 용성 스님은 한번은 "틀렸다"고 했고, 한번은 "맞다"고 했다. 같은 말이건만, 이렇게 맞고 틀린 차이가 벌어진 것은 과연 왜일까? 용성 스님은 '이뭣고?' 화두의 열쇠인 이 물건 아닌 '한 물건(一物)'에 대해 "찾으면 더 멀리 도망하고 그냥 두면 여러분 앞에 있어 항상 손바닥 안에 머문다"고 말한 바 있다.

진리의 당체(當體)를 직접 지칭하는 말인 '제 1구'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인 동시에, 구하려고 하면 얻을 수 없는 '무소득법(無所得法)'이다. 하지만 찾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원하는 바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바라제 존자는 "성품(性品)은 작용하는 데 있다"며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으며, 혀에 있으면 말을 한다"고 풀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예!" 하고 대답하는 이 작용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두 공부는 '모르는 게 약'일 때가 훨씬 많다.

김성우 객원기자

'깨달음의 문' 활짝 여는 그 순간까지…

해인사 백련암에서 만난 불자들…참회·업장소멸 위한 주력수행 구슬땀

'가야산 호랑이'가 포효하던 명찰답게 해인사 백련암은 진한 수행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산사를 둘러싼 부처 닮은 바위들과 절 마당 안에 우뚝 솟은 네모 바위가 성철(1911~1993) 스님의 꼿꼿한 기상을 상징하는 듯 했다. 주말 임에도, 성철 스님의 등신상(等身像)을 모신 고심원(古心院)을 비롯해 적광전, 천태전 등에는 절삼매, 주력삼매에 빠진 불자들이 '절하다가 죽겠다'는 비장한 표정으로 정진 또 정진에 매진하고 있었다. 행여나 방해가 될까봐 몰래몰래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 기도일념에 든 수행자들의 속마음이 궁금했다. 끝없는 참회의 절과 업장소멸을 위한 주력수행으로 저들은 육신의 고통마저 잊고 깨달음의 외길로 나아가고 있으리라.

출·재가를 막론하고 구도의 여정에서 한번이라도 좌절을 겪지 않은 수행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럴 때마다 불자들은 간절한 기도로 초발심과 신심을 다지고, 수행의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다. 질기고도 질긴 습기(習氣)의 발동으로 좌절을 겪는 수행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원점에서 수행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발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백련암 적광전에서 절 삼매에 빠진 불자들.

●절과 주력이 참선이다

"옴 아비라 훔 캄 스바하!" 성철 스님은 백련암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뜸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장궤(무릎을 꿇은 채 바로 섬) 합장하고 외우는 참회기도(아비라)를 시키곤 했다. 스님이 열반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백련암을 비롯한 성철스님문도회 사찰에서는 아비라기도 소리가 아직도 끊이질 않는다. 성철 스님은 불자들에게 '예불 대참회', 즉 108배 절하는 것과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그리고 화두참구를 하루 일과로써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1년에 4회 절에 와서 아비라기도를 빠지지 않고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비라기도는 중국 당나라 때 총림의 수행법으로 전해 오던 것을 성철 스님이 참선납자들에게 권하면서 불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스님은 한국전쟁이 지난 후(1952년경) 고통과 불행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과거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어온 업장의 과보"라며, 업장을 참회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도록 '예불 대참회'와 새로 음역한 능엄주를 외우게 하고, 아울러 아비라기도를 하도록 일러주었던 것이다.

이후로 참선은 물론 가지가지의 방편을 닦는 수행자들은 공부가 안 되면 전생의 업장이 많다고 생각되어 그 업장을 없애려고 '예불 대참회문'으로 참회하는 절을 하면서, 능엄주 주력이나 아비라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성철 스님이 "전생과 금생의 업장이 소멸되어야 지혜의 눈이 열려 수행이 제대로 된다"고 하였듯이, 수행의 입문자나 향상일로(向上一路)를 도모하는 구참자는 이러한 자력(自力)과 타력(他力)이 둘이 아닌 기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닦아서 얻은 바가 있다는 생각을 모조리 내려놓고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각오만 있다면, 참회하는 절과 주력이 참선이 되고, 참선이 절과 주력이 되는 도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수행의 기틀

참선 용맹정진에 앞서 21일, 100일 기도를 결제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은 것은 기도가 참회를 통해 업장을 녹이고 신심을 북돋울 수 있는 수행의 기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천수대비주 기도나 관음기도, 문수기도 등으로 득력(得力)해 참선 수행의 길로 나아간 고승들이 적지 않다. 또 이미 기도로 득력한 스님들은 단기간에 견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선 선조 때의 선하자(禪荷子) 스님은 묘향산 문수암에서 100일간의 관음기도를 회향하는 날, 포수가 쏜 총소리를 듣고 확철대오 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수제자인 수월 스님은 글을 몰랐지만 오직 천수대비주 기도를 통해 무명(無明)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어떤 경전을 들어도 뜻을 꿰뚫게 됐다고 전한다.

●일념삼매에 들면 깨달음의 문 열려

이처럼 기도가 삼매를 이뤄 오랜 시간 지속되면 곧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도를 하면서 힘이 드는 줄도,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고비를 넘기고 나면 묘한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된 상태에서 모든 상대적인 경계와 시비·분별, 생사마저도 초월하는 무심삼매에 빠져들면 마침내 오도(悟道)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일타 스님은 생전에 "기도가 꿈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일념삼매에 젖어들게 되면, 깨달음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스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의심도 나지 않는 화두를 들고 마구잡이로 씨름하기 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정해 업장을 녹이고 신심을 북돋울 수 있는 기도를 한바탕 열심히 하는 것이 장래의 수행에 훨씬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방편을 초월해 깨달음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없는 번뇌·망상으로 인해 미오(迷悟)를 반복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수행자들은 당장 절과 주문, 염불 속으로 들어가 기도일념에 빠져 보자.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수행게시판

- **禪으로 본 화엄경 강의**=부산 홍제사는 5월 17일(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1시 혜국스님(전국선원장회의 의장)의 선(禪)으로 본 화엄경 강의를 갖는다. (051)802-0130
- **간화선 특별법회**=부산 미타선원은 6월 16일까지 매주 토 오후 2시 효산 스님(효산선원 선원장)을 초청, 간화선 수행법 특별법회를 연다. 몸의 세계와 원리(5월 19일, 26일),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법(6월 2일), 마음을 찾아쓰는 법(6월 9일), 간화선의 여섯 가지 수행과정(6월 16일) 등으로 진행. 051)253-8687
- **위빠사나 집중수행**=경주 마하보디선원은 5월 19일 오후 6시부터~26일 오후 2시까지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초심자 수련법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익일 오후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054)746-9750
- **청화 스님 법문공부**=금강강독회는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10시 서울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원통불법의 요체>를 교재로 청화 스님의 법문과 염불선을 공부한다. (011)9069-149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특별증정품 손목단주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워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 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 염주는 인도에서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컷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오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 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청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 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100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7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재화막는 삼고금강저!

닥쳐올 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란 음양오행에 의해 세상사는 동안 일정한 기간에 액란과 환란이 오는 시기를 말한다. 삼재에는 드는삼재, 묵는삼재, 나는삼재 각 1년씩 3년동안 수.화.풍으로 큰화를 당할수 있다는 뜻으로 불가에서는 삼재를 소멸하는 의식으로 매년 입춘날 대부분 사찰에서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드린다. 삼재에는 나이에 따라 일반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다. 삼재가 든 사람들 중에는 하는일 마다 일이 안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제물손실이 계속되고 뜻하지 않는 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등 어려운 고통이 오지만 삼재라 하여 삼재가 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 중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삼재를 완벽하게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환란을 모면하게 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닥쳐올 화를 미리 막아주며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가로 5cm 폭 2cm로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된다.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 예방과 닥쳐올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가격 38,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달수 있다.
전화(02)741-4477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정해년 새지갑으로 사업성공! 평생부자!

남성용金나노중지갑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 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金·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종교갈등이 '가족의 연' 끊을 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⑮ 부모님의 눈물

종교를 강요하는 동서

L씨의 시동생 내외는 몇 년 전 다른 종교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L씨와 남편에게 '전도'하려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착하고 무던한 성격이던 동서가 굽힐 줄을 모르게 되었다. "형님, 00님을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셔야지요." "이 보게,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야. 나는 절에 다닌 지 오래 되었는데 이제 와서 종교를 바꾸라고 하면 되나?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들도 절에 다니셨지 않아.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누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네." "그러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조건 00님, 그 분을 영접해야 살 길이 있어요. 아니면 큰일 나신다고요!"하였다. L씨는 그 편협성과 아집에 기가 질릴 지경이었다.

L씨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것은 부모님의 제사 때였다. 시동생 내외는 제사 때 오면 한편에 앉아서 절대로 제사상에 절을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돌아갈 때까지 이제 제사는 그만 하시고 자기들 가는 곳에 함께 다니시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부모님 제사에 절하지 않으려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형제간 의가 상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 날도 시동생 내외는 제사 지내는 동안 한 쪽 구석에 앉아 자기들 식으로 기도를 계속할 뿐 상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날은 식사 후 유난히 더 동서가 날카롭게 말했다. "정말 효도가 뭐겠습니까. 부모님들을 00님께 인도해 드리는 길이에요. 형님도 이제 그만 하시고 저희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동서는 작정하고 온 것 같았다. "그래요, 더 이상 보기만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제사 때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문을 나서며 "알아 두세요! 저 오늘부터 작정하고 형님이 00님을 믿도록 백일

타 종교 믿게 된 시동생 내외
가족에 개종 요구·제사도 거부
꿈에 찾아오신 시부모님 눈물…
자식으로서 진실한 마음 회복

기도를 올리겠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래도 안 바뀌신다면 앞으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마치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시부모님의 눈물

그 날 밤 L씨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의가 끊기는 것은 이런 경우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다. 마음으로 조상님들께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다. 시동생 내외를 위하여 마음을 내었다. 동서가 백일기도를 한다고 했으니 나도 조상님들과 부처님께 기도해야지하고 마음먹었다. 절대로 시동생 내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누구든지 근본은 다 부처님이라고 하셨다.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불교에서는 무명(無明)만이 죄라고 하였다. "그들의 아만과 독선을 녹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상님께 불경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절에 못가는 날은 집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한 달이 넘은 어느 날 아침이었다. 뜻밖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L씨는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 가슴을 졸였다. 그런데 동서는 울고 있었다. "형님, 죄송해요. 매일 꿈에 시부모님이 나타나세요. 그날부터 벌써 한 달을 똑같은 꿈이에요. 저희 집에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붙잡고 우시기만 하셔요. 매일 밤,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L씨에게 부모님의 환한 미소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오직 모를 뿐

L씨는 동서의 독선에 대하여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가 불자가 되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낸 것이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말씀처럼 부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눈물로 동서에게 나투신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불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누구나 근본은 부처인데 잘못을 범하는 이유는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을 잠시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업도 공(空)하여 언제라도 한 생각 돌리고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서로에 대한 바른 믿음과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삼방세시팔

●제4회 한국선다회 다맥(茶脈)전수 대법회 및 제1회 108헌다례=범패의 본고장이자 차의 시배지인 하동 쌍계사에서 제12회 하동야생차축제 기간 중 5월 18~19일 제4회 한국 선다회 다맥전수 대법회 및 제1회 육조 · 진감 · 초의 선사 108헌다례를 개최한다. 쌍계사는 육조혜능 · 진감 국사 · 초의 선사 등 한국다맥 원류사찰로 그동안 다맥전수대법회를 봉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제1회 육조 · 진감 · 초의 선사 108헌다례 행사도 같이 진행한다. 18일 오후 1사~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4회 한국선다회 다맥(茶脈)전수대법회는 쌍계사 팔영루에서 열린다. 다맥전수식은 19일 오전 10시 30분이다. 제1회 육조 · 진감 · 초의 선사 108 헌다례는 18일 오후 2~5시에 선착순 10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진감 · 초의다맥 한국선다회가 주최한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 상하백색 한복과 말차 시연차구, 다완을 준비해야한다. (055)883-1901~2

●용궁사 연꽃문화제=밀양 용궁사는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용궁사 대웅전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전통놀이공연 및 체험마당이 펼쳐진다. 이날 어린이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도 같이 열린다. 어린이법회 개설 선포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055)354-4464

●장애인 수계법회=서울 조계사는 5월 19일 오후 12시 30분 장애인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계사로 나서는 이번 법회는 종단 차원에서 열리는 최초의 장애인 수계법회이다. 장애인 300여명이 연비를 받을 예정이다. (02)732-2183

●파라미타 음악놀이 페스티벌=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20일 제7회 파라미타 음악놀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참가자별 공연시간은 3분. 파라미타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오후 5시부터 서울 우정국로 야외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02)723-6165

●무료 의료검진=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날마다좋은날이 5월 19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 의료검진을 실시한다. 이날 의료검진은 양방 한방 검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02)732-7272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탱해준 인연 (상)

주보문심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매일 새벽 불교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새벽예불 소리에 맞춰 향을 사르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은 30여 년 전 부산의 한 산사의 새벽예불을 떠올리며 아련한 그리움의 감회에 젖어듭니다.

불교에 귀의하고, 2년 후부터 시작된 이 새벽예불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벽의 적막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염불소리는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과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지요. 이렇게 시작한 나의 새벽기도는 2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예불 후 1시간 동안 드리는 관음기도는 주지스님께서 꼭 주관하셨고, 20여명 남짓한 신도들이 매일 참석했습니다. 저는 기도 정진으로 차츰차츰 신묘한 불법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림: 문병성

가톨릭 신자에서 결혼 후 불교 신자로
집안몰락 좌절…새벽 관음기도로 극복

원래 저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처녀시절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 새벽 교리반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직장에 출근을 했었죠. 어렵게 영세를 받고, 1년 후 청년회에 가입하여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나의 친구들은 다 같은 교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저는 시댁이 불교집안이어서 관면혼배로 혼배성사를 했습니다. 결혼 몇 년 후 이웃에 사는 사람이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잘 안 된다는 말을 제게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척 상심했습니다.

그런 상심의 날들이 지속되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게 항상 미안해하던 남편은 다시 성당에 나가라고 권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니시던 절에서는 가끔 엽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대신 절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래 다니신 절의 행사에 불참하는 건 불효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여를 다녔는데 절에 가면 법당에서 절하고 공양하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혼자 "불교가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친정 고모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불교로 개종을 해야겠는데 주위에서 너무 미신적인 것을 강요하니 도저히 그런 것을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고모님은 그것은 정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서, 고모님이 다니시는 대각사로 데리고 가서 신도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 절은 내가 다니던 성당과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면, 성당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온통 내 마음을 휘젓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불교를 알려고 노력했고, 그 절의 큰스님께서는 초심자들이 알아야할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교신문도 구독하고 불교 서적도 읽으면서 차츰 불교에 심취해 갔습니다.

'보문심'이란 불명도 받고, 어린이법회에 남매를 보내 불심을 닦게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날로 번창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몇 년 후 남편이 친구에게 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어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바보스럽기만 해 몇 번이나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시던 보살님이 새벽 관음기도를 권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관음기도에 열심히 다니게 된 것이 나의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들은 나를 다시 가톨릭을 믿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냥 타의에 의해 맹목적으로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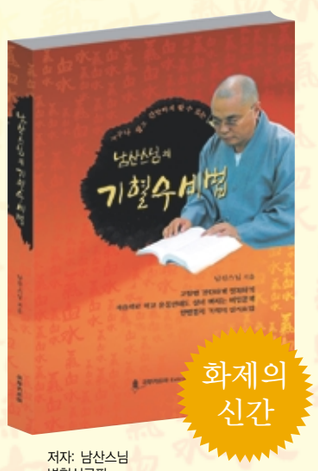
그 즈음 양산 통도사에서 보살계 법회가 있다고, 보살계를 받으라고 새벽기도 다니는 절의 공양주 보살님이 일러 주셨습니다.

저는 보살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통도사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처럼 30대 불자는 한 명도 없고, 다 노보살님들이 보살계를 받으러 가고 있는게 아닙니까.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보살님들 틈에 끼어 통도사에 도착한 저는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왜 딸, 며느리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사흘간 <범망경> 법문을 다 듣고, 계를 받았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을 합장하고 돌면서 참 불자가 될 것을 부처님께 발원했습니다. 이 보살계 수계식에서 들은 <범망경> 법문은 그 후 나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계속)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쉽게 살이 빠지는 비법 공개
관절염을 가정에서 쉽게 해결하는 비법 공개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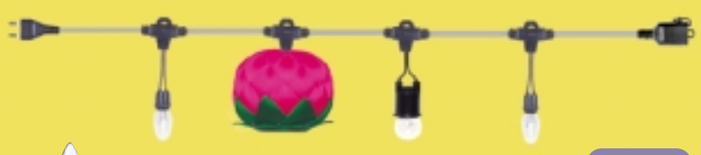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남산스님 약력
• 경북 칠곡군 기사면 출생
• 한사대(현 대구대)특수교육센터 졸업
•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과 졸업
• 중국 남경 중의대학 기공학 석사과정 수료
• 중국 요녕성 중의약 대학교 비만학과 교수
• 녹색 대학교 석좌 교수
• 한국대체의학 연구소 소장

국부카르마 문 의 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卍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5월 17일 제4회 서울환경영화제 개막식이 열린다. 세계 30여 개국 100여 작품이 상영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극영화, 다큐,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생생한 지구를 위한 영화선언'의 가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영화제는 5월 23일까지 계속된다. 영화 상영 시간표는 홈페이지(www.greenfestival.or.kr)참조. (02)725-4840

경북 영양 주실마을에서는
지훈 조동탁 선생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고 민족사상과 시 정신을 적극 계승하는 한편 문향의 고장 영양을 홍보하기 위해 '지훈예술제'를 개최한다. 5월 18일~20일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문학세미나와 웃음이 있는 문학강좌, 청소년 사행대회 및 음악제 등이 다양하게 꾸려질 전망이다. (054)683-2306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는
북한 어린이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10월 27일까지 박물관 내 아니마떼끄에서 북한 애니메이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를 비롯해 '날개달린 룡마', '령리한 너구리' 등을 상영한다. 또 남북 협력작품으로 화제를 모은 '왕후 심청', '게으른 고양이 딩가', '뽀롱뽀롱 뽀로로' 등도 차례로 상영할 예정이다. (033)243-3112

서울 호암아트홀에서는
전문무용단의 작품 중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대사가 있는 발레' 작품 <백조의 호수>가 선정, 공연된다. 공연 일시는 5월 17일~20일. (02)2263-4680

수원 장안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낙농농가 체험 희망어린이를 모집하고 있다. 체험일은 5월 26일이며 장소는 파주 모산농장. 다양한 낙농체험과 자연놀이 등이 기다리고 있다. 선착순 모집. (031)246-7982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불자들에 가장 기쁜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도량서 맘껏 뛰어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기쁜 날인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는 5월 24일 목요일이란 것, 알고 있나요?

부처님오신날이 무슨 날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러니까 생신이지요. 그럼 부처님 생신이 왜 중요할까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좋은 가르침을 얻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날, 우리 친구들 설마 집에만 있겠다고 하지는 않겠죠?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잔뜩 준비돼 있고 유혹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이라도 좋으니 가까운 절에 한 번 나가봐요. 평소 절에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도요. 그리고 부처님 생신을 다함께 축하해드려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돼 있답니다.

우선 19일과 20일 즉, 토요일이랑 일요일을 특히 주목해보아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등축제가 펼쳐진답니다. 서울에서는 20일 동대문운동장에서, 부산은 19일 사직운동장에서 축제를 한대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연등축제만큼 신나는 행사가 없을 거예요. 꽃처럼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연등들이 친구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 거예요.

또 서울 조계사(02-732-2183)에서는 19일 인근 인사동 일대까지 연등놀이가 펼쳐진대요. 갖가지 연등은 물론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요. 또 부산 삼광사(051-808-7111)에서는 19일에 어린이 철야법회가, 20일에는 삼광백일장, 독경 경연대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부처님 말씀 열심히 읽은 친구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부처님오신날인 24일에는 모든 사찰에서 부처님 생신 준비에 바쁘대요. 그 중에서도 안양 한마음선원(031-470-3100)은 부처님 생신 축제와 함께 학생회 공연이 3차례나 열린다니 친구들의 재주를 구경하고 싶은 사람은 찾아가도 좋을 거예요. 아, 능인선원(02-6414-1034)에서는 신기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티베트 만다라전이 열리거든요. 만다라는 불교의 진리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또 서울 봉은사(02-511-6070)에서는 어린이 합창단 공연과 함께 댄스 경연대회도 열린다니까 개성 있는 친구들이 찾아보면 좋겠네요. 부산 영주암(051-754-2210)도 부처님 생신잔치를 부지런히 준비해왔어요. 영주암 부속유치원 친구들이 만든 연등이 부처님 생신을 환하게 밝힐 것이라네요. 유치원 동생들이 만든 연등을 보면서 부처님 생신을 함께 축하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밖에도 서울 봉원사(02-392-3007)의 합창단 공연과 서울 옥천암(02-395-4031) 율동 공연도 마련돼 있어요.

와, 좋은 공연도 많고, 볼거리도 꽤 많죠? 사실 더 많은 사찰에서 친구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꼭 소개된 사찰이 아니더라도 부처님 생신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 누구든 기뻐하고 축하하니까요. 가까운 사찰 꼭 한 번 방문하기에요!

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친구들.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요? 불교 하면 '자비'죠? '자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렴풋이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것이란 것은 느끼고 있지요.

부처님 생신을 축하하려고 절에 가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 같아요. 먼저 텔레비전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과 비슷한 또래의 어려운 친구들이 사는 곳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의정부 선재동자원(031-876-2235)과 대부도 둥지청소년의 집(031-314-2985)이 대표적인 어린이청소년 시설이에요. 그곳 친구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가졌으니 덜 가진 친구와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방문하면 훨씬 더 행복할거에요.

어때요, 부처님오신날이 그냥 휴일이 아니죠? 올해는 텔레비전 보면서 빈둥거리기 없기, 부처님오신날 뜻 깊게 보내기, 약속해요!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집에만 있겠다고요? 절에 가면 신나요



조계사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 마법공연이 펼쳐지자 무대 아래로 어린이들이 모여 들었다.

20일 인사동 일대서 펼치는 연등축제 '함께 즐겨요'
한마음선원 · 봉은사 등 전국 사찰 봉축 프로그램 풍성
어린이청소년 시설 방문 · 마음나누면 더 행복해져요

어린이 책

부처님과 함께 생각키우기

"어린이들이 부처님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알 수는 없을까? 또 좋은 부처님 말씀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불자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 해봤을 듯하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신간 <부처님과 함께 생각키우기>(일곱발자국)를 주목해보자.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을 함께 접하게 할 수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은 부처님의 정진, 지혜, 사랑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15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편의 끝에는 '문제풀이'와 교과서 출현 빈도가 높은 한자어를 뽑아 만든 '한자공부'를 실어 논술공부와 한자공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02)722-5563

LotusLanternFestival 燃燈祝祭
"우리도 부처님같이" _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구 연등축제
2007년 5월 19일 대구 반월당 중앙로
법 요 식 | 오후6시~오후7시 반월당 중앙로
제 등 행 진 | 오후7시~오후8시30분 대구시내일원
문화체험 한마당 | 오전10시~오후9시 반월당 중앙로
청소년 댄스경연 · 락페스티벌 | 오후2시~오후5시30분 반월당 중앙로
회향 한마당 | 오후8시30분~오후10시 반월당 중앙로
(등불패 사물놀이공연 /퓨전국악공연 / 퓨전재즈공연 / 외국인가수공연 / 초청가수공연 - 조항조, 박주희, 윤정아 등)
대구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T.(053)623-6388 www.부처님오신날.kr

속독·한자·독서(논술) 강사과정모집
창업, 취업, 보람찬 교육자의 길 교육도 품격이 있습니다
◆ 속독 · 한자 · 독서(논술) 교육을 한꺼번에 습득
◆ 효과가 검정된 발명특허원 획기적인 영재교육
◆ 전문교수법 완료, 초보자도 능력있는 강사 될 수 있음
◆ 각 학교 특기적성교육, 공부방, 교습소, 학원 등 강사 절대 부족
◆ 등록기간 : 2007년 5월 16일부터 선착순 50명
◆ 교육기간 : 일요일반 - 6월 24일~ 9월 2일 오후 4시~7시(주1회, 11주)
월요일반 - 6월 25일~ 9월 3일(주1회, 11주) 아침반-10시~12시, 저녁반-7시~9시
◆ 수 강 료 : 60만원 ◆ 지원자격 : 본 교육에 관심 있는 분
◆ 입금안내 : 신한은행 308-01-179614(경기대 사회교육원)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 (02)390-5260 ~ 2
문의 : 담당교수 016-595-1137
부산 · 영남지역 교육
동아대 사회교육원 ☎(051)240-8452~6
문의 : 담당교수연구실(051)243-1137, 016-595-1137
(교육일 : 금요일반, 토요일반)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3월부터 한시적으로 회비를 대폭 할인(보시)해 드립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해가 지는 시간에 산등성이나 언덕에 홀로 서 있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온 세상이 한 낮의 분주함을 어깨 죽지 안으로 접어 넣으며 맞이하는 일몰의 고즈넉함. 그 시간만은 누구나 시인이 된 듯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홀로 있다는 것, 해가 지는 시간이라는 것, 그곳이 언덕이라는 것이 자아내는 고요하고 쓸쓸한 상황이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는 '고즈넉하다'는 표현이 맞지만 '고즈너기'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랍니다. '고즈너기'는 '고즈넉이'가 표준말인데 문학 작품에서 흔히 '고즈너기'로 쓰지요. 슬그머니, 고스란히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가납사니 : 되잖은 소리로 자꾸 지껄이는 수다스러운 사람.

가냘른 : 가냘프고 여린.

가두리 : 물건 가에 둘린 언저리. 예)가두리 양식장.

고주리미주리 : 아주 잘고 소소한 데까지 죄다 드러내는 모양. 고주알미주알.

괴덕 : 수선스럽고 실없는 말이나 행동

그러구러 : 우연히 그러하게 되어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아내 죽은 날이 '운수 좋은 날'이라니…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현진건作 '운수좋은 날'

열흘 동안이나 공을 친 김 첨지는 앞집 마나님이 부르러 와서 인력거를 끌고 나가려고 한다. 이때 아내가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라고 애걸한다. 그가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설 때, 아내는 울듯한 얼굴로 일찍 들어오라고 한다.

그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준다. 그의 행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학교를 돌아 나올 때 기숙사 학생이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냐고 묻는다.

그는 이상하게 계속되는 행운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는 조급해하는 학생을 역이용하여 일원 오십 전이라는 거금에 흥정을 하고 남대문을 향해 출발한다. 가뿐한 마음으로 인력거를 몰던 김 첨지는 집이 가까워 오자 아내의 원망하는 듯한 모습과 아들 개똥이의 곡성을 떠올리며 다리가 무거워진다.

우중에 터덜거리며 빈 인력거를 집까지 끌고 갈 일이 꿈만 같아서 그는 정거장을 빙빙 돌며 어슬렁거리다가 한 손님을 인사동까지 육십 전에 태워다 주기도 한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면 이상하게 그의 몸이 가벼워지고 인력거가 가벼워지면 그의 몸이 무거워지는데, 집이 가까워지자 그는 마음마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손님을 내려 주고 비를 맞으면서 빈 인력거를 끌고 집으로 가던 김 첨지는 길가 선술집에서 치삼을 만나 막걸리를 들이켠다.

궂은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나 김 첨지는 취중에도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을 사 들고 무시무시한 정적이 감도는 집으로 돌아와 허세를 부린다. 방문을 열자 아내는 죽어 있고, 개똥이는 빈 젖을 빨며 울고 있다.

김 첨지는 눈물로 아내의 얼굴을 적신다. 문득 김 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비비대며 중얼거린다.

하층민의 비참함 역설적 표현
극적 효과 자아내는 문체 특징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단편 소설, 본격소설, 사실주의 소설인 이 작품의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이지만 실제로는 운수가 좋지 않은 날이지요. 바로 아내가 죽은 날이잖아요. 이 날을 운수 좋은 날이라 했으니 이는 강한 반어법이에요. 이러한 반어법으로 도시 하층민의 비참한 삶과 불행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소설의 '맛'이라 할 수 있어요.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며 공간적 배경은 비 오는 겨울날 서울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작품에서 사용된 구어체와 속어는 주로 김 첨지의 대화에 많이 나오는데, 아내에게 혹은 치삼과 나누는 욕설 비속어 등은 당시 하층민의 생활상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으로 김 첨지가 겪는 비극과 대비되어 극적 효과를 자아내는 문체의 특징이 되고 있어요. 김 첨지는 동소문 안의 인력거꾼. 하층민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로, 겉으로는 아내에게 욕을 해 대며 화를 내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아내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순박한 사내입니다.

김 첨지의 운수 좋은 하루 일과는 그 속에 더 큰 비극을 안고 있는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말해 주고 있지요. 아내의 죽음에서 이 작품의 구조는 정점에 달하고, 운수 좋은 날의 반어적 의미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내의 죽음은, 의외의 행운이 바로 비극적인 불행과 교차됨으로써 삶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특히, 이 작품은 인간을 질식하게 하던 시대 상황이 한 노동자를 어떻게 파멸시키는가를 그리고 있다는데 주의 할 필요가 있어요. 김 첨지에게는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는 속담도 역시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착한 지아비가 몰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행운의 기적이 찾아와도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 영원히 그의 몫일 수 없음을 절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적도 희망도 없다는 절망감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식민지 상태에 있던 그 시대의 보편적 상황이었다는 것이, 작가가 말하고자 한 핵심일 것입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말 잘하는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소심하고 말을 잘 못해서 친구 관계가 쉽지 않아요. 또 남자라 그런지 시원시원하지 못한 제 자신에 자꾸 열등감만 생기고요. 말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요. (ID:고민이에요)

'조용한 강자' 내향적인 힘을 살리세요

친구의 고민은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하는 것이랍니다. 친구가 보기에는 자신감 넘쳐 보이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에요.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친구가 없고 대인관계가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고, 외향적인 성격보다 사려 깊고 신중하며 실수가 적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정리하고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데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더 필요한 유형입니다. 내적인 힘 역시 더욱 강하지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말을 잘 해 인기가 많은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고 했는데, 대화란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 실수하거나 막히기라도 하면 남들이 무시할 거라고 불안해하나요? 잘 해야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긴장은 더해지고 말은 더욱 잘 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거나 실수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강자'라는 말이 있어요.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가는 모임에선 대부분 조용히 경청을 잘 하는 사람이 힘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가진 내향성의 강점을 살려서 조용하고 진지한 열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줌으로써, 한 숨 돌려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진정한 우정을 얻고 신임도 얻을 것입니다. 때로 힘들거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조용히 들어주고 이해하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위안을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국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사계절 단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망사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지압식 깔창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초극세사
• 가격 : 5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 회색
발볼조절가능
건강슬리퍼
바이오실리콘
조극(세사 (방수원단)
풍산동 99%
지압깔창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본 원에서는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여 집중(3개월 속성) 개인지도 합니다.
◈ 불교의식을 모르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합니다. (스님포교사. 재가불자 법사교육)
◈ 교육과정
• 일상 상용반 : 도량석 조석종성
• 예 경 편 : 상단예불, 각단예불 (미타.명부.관음전 등)
• 불 공 편 :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관음.지장,신중청 등)
• 재 의 식 : 천도재 49재 예수재 점안의식 시다림
<바라춤>: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법고무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 도량게 운심게
• 시식과정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 법사과정 : 경전을 문법과 전문적인 한문공부로 경전을 배웁니다.
◈ 개강일자 : 2007년 6월 5일
(범패반 : 화요일 오후 3시. 상용반 : 화요일 오후 5시)
◈ 강 의 일 : 매주 화(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접수
대한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수림사
서울시 종로구(종로5가 3번 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011-9769-8868

비구니 스님 '바랑'에서 쏟아지는 희망과 그리움

동학사 승가대 '동학' 지 연재 '바랑 속 이야기' 출간

스님들의 바랑 속엔 무엇이 들었을까? 형형색색의 패션 가방이 넘쳐나는 도심의 거리에 남산 만하게 배가 부른 바랑을 등에 지고 가는 스님의 뒷모습. 스님 보다 먼저 바랑이 보이고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비구니 스님이라면….

바랑 속에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 속세를 떠나 절집에서 대중생활을 하며 겪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그 뒷이야기들. 내면을 닦기 위한 수행의 길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번뇌를 떨치기 위해 각고정진 하는 숙연한 이야기. 뒤늦게 가슴 저리게 느껴지는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지만 이미 부모도 스승도 곁을 떠나버린 황량한 시간, 눈물로 털어 놓는 절절한 심경. 바랑 속에는 가슴 적시는 이야기와 요절복통의 한담이 가득하다.

아무래도 비구니 스님들의 바랑에서 풀어져 나오는 얘기라면 더 흥미롭고 애절하지 않을까? 그것도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강원이라는 빡빡한 대중생활 속에서의 공부 이야기, 인연이야기, 그리움의 마음들 그리고 좌충우돌 실수담까지라면 책에서 눈을 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계룡산 동학사 승가대학(학장 일초)이 발행하는 <동학>지에 실린 학인 스님들의 이야기가 <바랑 속 이야기>(운주사 9000원)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졌다.

"백천만겁이 지나더라도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을 나에게 굳게 맺어 주시고선 당신이 가셔야 할 곳으로 한 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떠나가셨다"며 은사 스님을 그리는 지후 스님의 보은형 이야기. "행복! 내가 강원을 다니면서 터득한 행복은 단지 그것! 경전보기를 즐기는 것입니다"라는 서형 스님의 학구파적 이야기. "그러나 정작 출가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날 바로 통장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했건만 직장문제로 3년을 허비해야만 했다. 3년 동안 나는 스님 연습을 했던 것 같다"는 선재 스님의 출가 이야기.

고즈넉이 속내를 드러내며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숙연한 이야기도 정겹지만 스님들의 실수담은 배꼽이 아프도록 웃게 한다. 행자시절 검은 쌀밥을 하라는 원주 스님의 지시대로 검은쌀을 찾아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게 밥을 잘 했는데 공양을 마친 대중 스님들의 표정은 가지각색. 까닭을 알고 보니 검은쌀이라고 쉬어 넣은 것이 검은 깨여서 '검은깨밥'이 되었더라는 혜총 스님. 대중과 함께 하는 아침 예불에서 창불(예불문 등을 선창하여 부르는 것) 소임을 맡아 엄청나게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선창을 했는데 끝나고 보니 헌향진언을 '옴 바아라 도비야 믹('훔'이 맞는데…)'으로 하여 부전 스님에게 경책을 받고 '스타'가 되었다는 경원 스님. 걸레 빠는 소임을 할 때 윗반 스님 방에 걸레를 배달하며 "스님 있습니까? 치문반 걸레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정우 스님. 그래도 속가의 어머니를 그리는 젊은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는 눈물을 꾹꾹 찍어 누르게 한다. 성기 스님의 사모곡을 들어보자.



"삭발일을 하루 앞둔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산 속에서 세 시간이 넘도록 저는 당신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지난날의 무엇도 떠오르지 않았고 어떤 아쉬움도 미련도 남지 않았지만 오직 어머니 당신에게만은 떳떳하고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산은 온통 빨갛게 불타고 있었지요. 마치 당신을 버린 나의 가슴처럼.(중략) 오늘은 당신이 만들어 주시던 수제비가 먹고 싶습니다." 임연태 기자

행복의 문을 여는 '영혼의 지침서'



바가바드 기타
잭홀리 지음 | 이지수 옮김
체온 펴냄 | 8000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바가바드 기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일상의 문제를 의뢰하는 나의 사전이 되었다. 모르는 영어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영어사전을 펴보듯이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민과 시련에 합당한 조치와 행동을 찾기 위해 이 사전을 펼쳐본다."

<바가바드 기타>는 700구절로 된 노래집으로,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거룩한 자의 노래'가 된다. 이 경전은 베다, 우파니샤드와 함께 힌두교의 3대 경전중 하나로 인도의 정신을 대변하는 최고의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은 주로 인간을 대변하는 아르주나 왕자의 질문에 신을 대표하는 크리슈나의 충고와 위안으로 이루어진 시가 주를 이룬다. 자기 내부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어떤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바닷가 근교 사찰 기행 에세이



바닷가 절한 채 / 정성욱 글 / 은행나무 펴냄

현대인들에게 영혼의 청량제가 될 아름다운 사찰기행 에세이. 불교에 심취해 국내 사찰이란 사찰을 샅샅이 훑고 다닌 중년의 시인과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사진작가가 의기투합해 바닷가에 인접한 기도 도량 14곳을 유람하고, 그 감상을 담았다. 동해 감추사를 비롯, 강화 정수사, 남해 보리암, 강릉 등명락가사, 여수 향일암, 강진 백련사 등의 방문기가 실렸다. (1만원)

'마음의 고향'으로 떠나는 여정



아니온듯 다녀가소서 / 안재인 글 / 호미 펴냄

이 책은 저자가 마음을 찾아가는 수행 방편으로 2년에 걸쳐 수십차례 오대산 서대 염불암을 오르고, 그러던 끝에 그 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게 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가는길에 만난 작은 생명들과 염불암의 풍경, 그리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제 마음의 풍경을 꾸밈없이 소박하게 글과 흑백사진에 담았다. (1만원)

스님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詩語'



백련잎에 청개구리
정신 보덕 스님 지음
고문당 펴냄 | 1만원

"악은 스스로 죄를 받고/선은 스스로 복을 받는다
선이나 악의 과보는/피할 수 없는 것/그 일만은 남이 대신 할 수 없느니라" -<인과응보 중에서>-

지리산 견불사 주지 보덕 스님이 시집을 펴냈다. 제목은 '백련잎에 청개구리'이다.

보덕 스님은 "제목에서 '백련'은 천정무구의 부처님을 뜻하며, '청개구리'는 귀한 법문을 경청 할 때는 부처의 마음이 됐다가 돌아서면 곧바로 중생이 되는 우리네 마음자리를 표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복잡하고 탁한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순수한 자기 내면의 본바탕을 잃지 말자는 바램으로 작은 글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시집에는 '구도' '성불' '환희심' '풍경소리' 등 40여편의 시심이 담겨져 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5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오체투지	한경혜	작가의 집
7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8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9	행복한 공부	김정섭	김영사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스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그리고 면면이 이어지는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의 핵심.



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시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
국내 초역인 "밀전참선요법"과 "밀전불법통지"수록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음은 물론 고암 스님이 쓰시던 발우와 주장자, 금란가사를 물려받으신 오등선원의 조실 한암대원 스님. 부처로부터 이어지는 황금의 여러 법맥 중 한반도에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한 가지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암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곧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눈짓해 보인 소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요, 팔만사천 법문의 핵심으로 짓쳐들어가는 일이며, 이 혼란스런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에 거하는 묘한 도리를 깨우치는 일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양장본 / 352쪽 / 값 13,000원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Tel:02)2004-8219, Fax:02)737-0696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탕카로 만나는 티베트 불교

'탕카의 예술 展'

화정박물관/내년 10월까지



석가 여래도

보여주는 여성보살을 그린 불화가 벽에 걸린다. 특히 이 여성보살 불화는 동아시아 불화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관객들의 발을 고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년 5월 6일~10월 26일에는 티베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티베트 사자의 서와 정토'를 주제로 세 번째 특별전이 기획된다.

이번 전시물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석가여래도'. 석가모니의 탄생에서 열반까지의 장면을 묘사한 불전도 세트 가운데 하나로 사문출유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카비라바스투 궁전에서 시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싯다르타 태자를 화면 중앙에 묘사하고 그 주위에는 외출한 싯다르타 태자

석가모니 사문출유 작품 눈길
불교 의식용구 등도 볼거리



육도윤회도

가 노인과 병자, 죽은 자, 출가자(出家者)들을 목격하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화면 아랫부분 태자가 사캬족 젊은이들과 궁술 경기 하는 장면은 흥미롭다.

'탕카'란 일반적으로 길게 내려뜨린 '축(軸)' 형태로 표구해 걸 수 있는 모양의 티베트 불교회화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보통 면(綿)으로 된 바탕에 광물성 안료와 금니(金泥)로 그린다. 탕카에는 불교적 주제 외에도 여신을 숭배했던 티베트의 산악신앙 등이 섞여있어 다른 불교권 나라의 불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성이 표현돼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탕카 전반적인 소개에 그쳤던 이전 전시들과는 달리 이번 특별전에서는 티베트의 의식용구와 불상 등 공예품들도 전시돼 티베트 불교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2075-0123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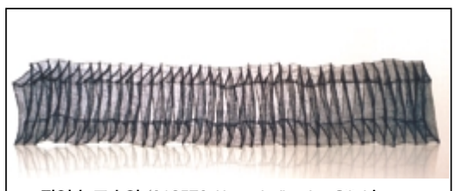
강행복 판화展

송광사서 7월 31일까지

판화가 강행복씨가 사찰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순천 송광사서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리는 '강행복 판화특별전-나를 찾아 안으로 걷네'가 바로 그것.

이번 전시회에서는 강씨가 지난 2004년부터 <월간 송광사>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송광사 주변의 유적과 풍광을 작품화한 40여점을 선보인다.

김주일 기자



장연순 교수의 '012570 Abaca Indigodye, Stitch'.

인드라망 속에서 현대인 자화상 발견

장연순 교수 4년만에 개인전 열어

우리나라 섬유예술의 권위자 장연순(이화여대 조형예술학부)교수가 4년 만에 펼친 개인전 '늘어난 시간 메트릭스'(5월 2~8일, 서울 인사동 포토하우스)는 급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숨구멍'을 틔워주는 자리였다.

장 교수는 이번 전시에 17점의 작품을 내 놓았다. 그간의 전시에서는 작품명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012570 Abaca Indigodye, Stitch'의 형식이 모든 작품에 붙은 공통 명칭이고 뒤에는 사이즈를 설명했을 뿐이다.

왜 그랬을까? 모호성, 불분명성이야말로 끊임없이 구체성을 요구받는 현대인들에게 '숨구멍'을 틔워 주는 안락처가 아닐까?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 경계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금강경>과 <화엄경>의 가르침으로 설명되어진다.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님으로 볼 때 바로 여래를 볼 수 있다(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는 <금강경>의 시각에서 형

'금강경' '화엄경' 가르침 작품으로

상 지어진 모든 것의 비존재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 하나 명확하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전시공간은 '말 없는 곳에서 말없는 곳으로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구도의 자리였다.

가늘게 뽑아낸 마직을 성글게 직조하여 30회 이상 쪽물을 들인 바탕 소재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적 영성을 갖는다. 사각형을 기본으로 이뤄진 것도 동양적 세계관 그 자체다. 무한을 추구하지만 형상으로서의 유한을 벗어날 수 없는 중생계의 범위가 그 사각형 안에 들어 있다. 안과 밖의 모호한 경계가 오히려 선명한 형상을 지어내는 아이러니를 바탕으로 마음의 변화를 이어나가는 작품들은 낱낱이면서 전체이고 전체면서 다시 낱낱의 의미(一卽多 多卽一)로 놓여 있다. 거기에 빛이라는 장치가 주는 신비로운 체험을 합하면 <화엄경>이 가르치는 '우주가 한 티끌 속에 있음'(一微塵中含十方)을 보게 된다.

시간의 분절체를 형상화 한 듯한 마디마디들은 스스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듯한 이미지를 강하게 발산하며 형상을 지탱하지만 사실 거기에 형상은 없다. 나는 너를 비추고 너는 나를 비추며 끊임없이 연기(緣起)하는 인드라망이 있을 뿐이다. 그 속에서 헐떡거리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발견하는 일, 장 교수가 '침묵'으로 던져 주는 화두다.

임연태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⑩

찬불가 세미나 · 경연 등 활발

1990년대 중반

90년대 불교음악의 저변 확대가 이뤄지면서 95년 10월 31일 불교 TV가 불교계 합창단 단장과 지휘자 및 작곡가를 초청해 '찬불가 보급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작곡가 박범훈 교수, 정부기 교수, 변규백 씨 등과 불교음악계의 지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불교TV 제작국 김종현 편성부장이 참석해 창작찬불가 발전을 위해 불교TV도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대다수 참석자들은 불교방송에서 제작된 창작 찬불가를 통해 불교음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창작찬불가 발표회를 경연대회로 열어 상패와 상금을 준 것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왜냐하면 경연대회는 상대방의 사기를 올려줄 수도 있지만 수상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반대급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찬불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조계사합창단이 봉축을 맞아 몇 번 더 개최했다. 그러나 매번 주제발표 내용이 비슷해 세미나 참석률은 저조한 편이었다.

불교음악과 무용의 학술적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94년 국악과를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동국대 국악과는 98년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불교음악 논문 · 작곡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 또한 98년 6월에는 불교음악예술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동국국악예술단을 경주캠퍼스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창단했다. 이 예술단은 전통음악과 불교음악을 두루 섭렵한 90여명의 졸업생들로 구성됐다. 또한 창단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불교관현악단의 태동은 97년 한국불교음악연구회 회장 정부기 교수가 창작찬불동요 '귀의' '내마음 연꽃' '스님생각' 등을 작곡한 뒤 음악회를 준비한 것이 계기가 됐다.

동국대 국악과 개설로 음악 연구 체계화
3대 종교방송 주최 종교문화예술제 열려

종교문화예술제도 1990년대 들어 빼놓을 수 없는 음악 행사였다. 90년 9월부터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가 주관을 했고 불교 · 평화 · 기독교 방송이 공동 주최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 예술제는 종교간, 비종교인간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종교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95년에는 원불교가 찬조 출현해 참여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참가는 못했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3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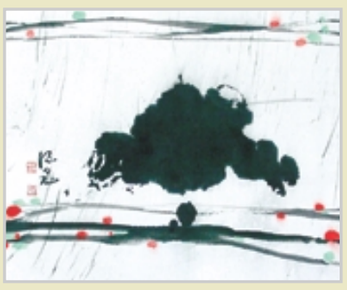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⑬

팔공산 성전암

장인성 시인

암자로 드는 길이 풀잎처럼 가느랗다
바람 한 줌 불어와도 이리저리 뒤척이다
아무래도 방향이 꺾이고 말 것 같다.

길을 가는 나그네도 길을 닮는지
휘파람이 풀잎처럼 향기롭고 푸르다



성전암(聖殿庵)-성철 스님이 외부와의 단절을 위해 철조망을 치고 수행정진했던 도량으로 유명한 파계사 부속암자 그림: 이상배 화백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 초 과 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뼈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6. 4 (월 · 화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1개월 완성)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합시다!(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대웅전완공 초파일대법회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문



부처님의 가피가 가내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원 국제선원의 목조 대웅전(150평)이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대원력과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10여년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이 대웅전에서 초파일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삼원 국제선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77대 조사이시며, 조계종 선사님들 중에서도 그 법이 가장 뛰어나 '지혜제일'이라 불리우신 정전강 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으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서 조실로 주석하시고 계십니다.
금년 초파일 대법회에 오시면 명안종사이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법문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생한 육성의 심지법문을 들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정법의 인연을 맺으십시오.
포천의 국제적인 선도량, 삼원국제선원의 초파일법회에 나오셔서 정법을 부촉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 : 2007년 5월 24일 목요일(음 4월 초파일)
• 시간 : 오전 11:00 ~ 12:00

☎031-531-8805 www.zenparadise.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8. 선종의 사구게(3)

6조 이후에 정립된 게송이지만 이 사구게야말로 육조혜능의 말씀인 <육조단경>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인 동시에 선의 황금시기에 다각도로 전개된 5가7종의 종지가 된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不立文字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고 敎外別傳
사람의 마음을 곧 바로 가리키니
直指人心
자성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見性成佛

사람의 마음을 곧 바로 가리킨다
直指人心
와륜은 뛰어난 기량이 있어
臥輪有技倆
능히 백가지 생각을 끊고 能斷百思想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일지 않으니
對境心不起
보리수가 나날이 자란다. 菩提日日長
–와륜

혜능은 별 재주 없어 慧能沒技倆
온갖 생각이 끊이지 않네 不斷百思想
경계 마주함에 마음 자주 일어나
對境心數起
보리인들 어찌 자랄까 菩提作麼長
–혜능

사실 혜능은 마음을 자성의 하수인이라 생각했다. 자성이 본체이고 마음을 응용으로 보았다. 자성과 관계없이 마음이 외경(外境)에 이끌리어 시시각각 변화하니 마음을 휘어잡는 것보다는 자성을 밝게 꿰뚫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둘이 아니라 일심(一心)이다. 이 마음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인 것이다. 혜능의 깨달음은 <금강경>의 '머무는바 없이 마음을 낸다(應無所住而生其心)' 에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본원을 통견(通見)하는 돈오(頓悟)의 내용이다.

마음은 자성의 하수인 · 본체의 응용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에서 기인
"보리자성은 본래청정하니 마음 사용하라"

위의 와륜의 게송을 한 승려가 혜능에게 매우 올바른 견해인 것 같다고 읊은 것인데, 혜능이 듣고 단박 견성하지 못하였음을 간파했다. 그래서 혜능은 와륜의 견해가 바르지 못함을 게송으로 답했다. 그의 게송은 4행에서 보리수가 본체이고 마음이 작용이며 3행에서는 경계에 대해 마음이 일지 않으면 죽은 마음이니, 어찌 마음이라 할 수 있는가. 단지 무주(無住)로서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로 읽힌다. 그리고 혜능은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마시오. 이는 곧 법에 묶임이니 변견(邊見)이라고 합니다"(<돈황본단경>18) 라고 말한다.

"선지식아!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바라밀을 생각하시오."
잠시 후,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단지 이 마음을 사용하시오. 바로 성불할 것입니다."(<육조단경> 제1 '오법전의')

이 말은 혜능이 조계의 보림에 이르렀을 때, 대범사 강당에서 베푼 설법의 첫 마디며, <단경> 모두의 글귀다. 돈오법문을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바로 선을 아는 요체이다. 이제 혜능은 "지혜의 완성만 생각 하십시오"하고 대중에게 조용히 말한다. 그리고 "지혜자성은 본래 맑고 깨끗합니다. 단지 이 자성의 응용인 이 마음만 사용하십시오. 이러면 성불해 마칠 것입니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❽

초심
백무산 | 실천문학사 | 6000원





불교적 상상력으로 삶의 원리 통찰

백무산은 1973년부터 조선, 전기, 금속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시 쓰기를 한 시인이다. 그는 1984년 <민중시>에 노동자 정서를 탁월하게 형상화한 연작시 '지옥선'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첫 시집 <만국의 노동자여>(1988)에서 "무슨 밥을 먹는가가 문제다/ 우리는 밥에 따라 나뉘었다/ 그 밥에 따라 양심이 나뉘고/ 윤리가 나뉘고/ 도덕이 나뉘고/ 또 민족이 서로 나뉘고"('만국의 노동자여')라며 밥에 따라 지금까지 영호남과 인종과 종교와 남북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외쳤다. 밥이야말로 계급적인 것이라며, "그대들은 무슨 밥을 먹는가"라며 애매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그는 현재 시에 노동계급의식이라는 당파성과 계급투쟁 정서를 온존시켜오고 있는 거의 유일한 시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노래하여 오던 그의 시에 최근 들어 불교 제재가 많이 발견된다. "자본주의 너머에 있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불교적 상상력을 통해 통찰하는 것이다.

폐사지의 가을
서 있는 것은 오직 돌탑 하나뿐

천지만물은 허물어진다는 걸
뱉고 나면 허물어질 말로 말해야 하고
허물어지기 전에 이미 무상함을
상을 지어 소리쳐야 했던 것은

세월의 풍상이란 건 없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허물고
허망을 허망으로 허물고 나서

긴 세월
돌탑 하나 남김 뜻은
허망에 머물지 말라고
마음 한 그루 남겼는가
– '마음 한 그루' 전문

폐사지에 가서 남아있는 돌탑을 보고 창작 동기를 얻어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의 주제는 "허망에 머물지 말라"이다. 창작자는 천지만물의 무상함을 폐사지에 남아있는 돌탑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다. <반야경>에 모든 존재의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모든 존재의 형상이 실존의 형상이 아닌 줄을 알면 여래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시인은 "세월의 풍상이란 건 없다"라고 단언한다. 모든 존재가 원래 허망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 경주 남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머리가 없는 돌부처를 보고 서정적 충동을 일으켜 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발상이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있게 읽힌다.

머리 없는 돌부처님 바위에 앉으셨네
그 무슨 상관이냐고 처연히도 앉으셨네

놓아라 전부 내려놓아라 하셨으니
眼, 耳, 鼻, 舌, 身, 意
어느 것 하나 들고 계실까
여섯 도적을 때려잡아라 하셨으니
스스로 머리를 내려놓으셨나

그 어깨 위로 밤이면 달이 앉았다 가고
구름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고
봄밤 꽃 향기도 머물다 가고
지나가는 토끼 노루 머리도 잠시 얹히고
아침엔 새들이 앉았다 가더니
저녁엔 흰 눈이 소복이 내리고
나를 내려놓으니 나 아닌 것이 없노라는데

내 어쩌다 오가는 산길에 계신
머리 없는 부처님
그 길 지날 때면 나는 조심을 하네
내 머리가 어쩌다 저기 얹히면
몸통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 '머리없는 돌부처' 전문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❽ 법성게전

두릅은 산채의 제왕(帝王)이라고 불릴 정도로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두릅은 두릅나무의 어린 순을 말하는데 가지 끝에 달린 산채란 뜻으로 목두채(木頭菜), 늙은 까마귀발톱 같은 가시가 있다 하여 자노아(刺老鴉)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두릅의 종류에는 나무두릅, 민두릅, 땅두릅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두릅은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릅나무 껍질 당뇨 등 약재로 사용
산채의 제왕…입 맛 돋우는데 최고

두릅과 같은 산나물은 농약이나 인공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자연의 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영양 또한 뛰어납니다. 특히 봄철 춘곤증에는 입맛을 돋우는데 두릅이 최고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또한 두릅을 유난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파랗게 데쳐낸 두릅의 쌉쌀한 향을 즐기지 않고 어찌 봄맛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무두릅은 참두릅이라고도 불리는데, 전국의 산기슭이나 골짜기에서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3~6cm 정도의 크기에 타원형 혹은 계란형의 잎에 톱니가 있고 끝이 뾰족합니다. 두릅나무의 껍질은 당뇨병과 신장병의 약재로 쓰입니다.

사찰에서도 봄철 귀하게 먹는 두릅은 흔히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쌉쌀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싱그럽습니다. 혹은 산적을 만들거나 튀겨서 초간장에 찍어 먹어도 일품입니다. 된장국에 넣어서 끓이면 향기 진하게 우러납니다.

오늘은 두릅으로 '법성게전'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대산 신흥사에서는 재일 법회 중에 법성게를 돌고 나서 옴자가 찍힌 절편과 두릅, 두부를 넣어 만든 법성게전을 먹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래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그 맛을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법성게전
재료: 두릅, 밀가루, 참기름, 깨소금, 두부, 된장

1. 두릅은 연한 소금물에 파랗게 데쳐서 포기를 나눠둔다.
2. 두부는 으깨어서 깨소금, 참기름으로 간하고 두릅을 넣어서 같이 버무린 후 된장으로 간을 맞춰서 묻힌다.
3. 밀가루는 반죽해서 전을 부치고 그 위에 두릅과 두부 무친 것을 그 위에 얇게 편 다음 김밥 말듯이 둘둘 말아서 먹기 좋게 썰어서 참기름에 소금을 넣은 기름소금에 찍어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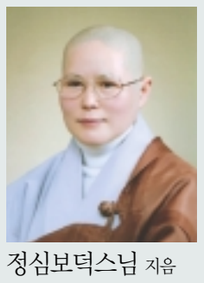
얼굴에 분 칠 한 번 안 하셔도, 화려한 장신구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지 않으셔도,
언제나 맑은 빛을 발하시는 단아한 모습처럼 스님의 시에는 그 어떤 치장도 보이지 않는다.
습작기 문학도들이 흔히 쓰는 시학 기법등의 기교도 없다.
오로지 정신, 할일의 경지에서 나오는 천상의 언어들만이 있을 뿐이다.

다 쓰고 난 후 갈고 다듬는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무녀가
예행연습 없이 굿을 하여 중생의 한을 풀어주듯,
가슴속에 가득 담긴 불심의 언어들을 일필휘지로 풀어내시는데 있다,
막힘없이, 물 흐르듯 읽히는시!!

백련잎에 청개구리
정심 보덕스님 詩集

천정무구의 부처님의 귀한 법문(백련)을 경청할때는 부처가 되었다가 돌아서면 중생되는
불자의 마음 자리(청개구리)를 시로 표현한 보덕스님의 명상시집.





물질만능주의에 찌들고, 지쳐가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집을 꾸미게 되었다는 보덕스님, 지리산 함양에 위치한 견불사에 오늘도 한결같이 오가는 불자들에게 변함없는 메세지를 전한다.

정심보덕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055)962-3931 / Fax 055)962-3920 **지리산 견불사(실상선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역학 수강생 모집
명리 · 작명 · 자미두수 · 택일 · 풍수
(3개월 · 6개월 완성)
기초반 · 중급반 · 연구반
※직장인을 위해 저녁반도 운영합니다
032)508-0381
019-9007-9746
불광사 박혜암 합장

청정다도해 나로도
자연산(100%)수산물판매
꽃게 새우 대하 농어 민어
생선회 장어 오징어 멸치 양태
서대 문어 제수용 등
등대지기
(www.enarodo.com)
061)835-7735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 49재 · 점안식
범음범패 바라 작법무 태평소
살풀이 지전무 극락무 회심곡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051)516-5691
010-4870-8359
범음범패 무형문화재 9호 전수자

역학 속성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실제감정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문서 기증함
(출장개인지도가능)
도성암 점법스님
010-7443-3060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제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절학을 1~2개월 완성
(지방인 숙식제공)
051)818-2358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명리 성명 택일 풍수
실전 위주 최단시간
핵심 강좌
출장 강의도 가능
반야원 대안 합장
016-243-2148(부산)
(전화상담 환영)

육효 기문 사주

사주(일진법)	5월29일(화) 낮2~5시 첫강의
사주(용신)	5월30일(수) 낮2~5시 첫강의
육 효	5월31일(목) 낮2~5시 첫강의
기문둔갑	6월 1일(금) 낮2~5시 첫강의

* 첫 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 강의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389-6597(연신내)

청암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51)202-8770
www.달마.kr

생 솔나무 36그루를 판매합니다
▷수령: 2~3백년
▷둘레: 한아름이상이며
낙랑장송 무성
053)746-1809
010-6456-1599

퇴마 영혼을 치유합니다
빙의 · 신끼 · 무병 · 정신질환 ·
우울증 · 두통 · 알콜중독 · 만성질환
조상이나 타인 영가를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명없이 몸이 아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병고치유함
055)261-1230
011-586-6091
※청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 봉사나 보시하실 분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매주 토요일 2시 법문
지도법사 : 적파명등 합장
행자 및 동자 모집
문의 :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선원

秘法 전수
붓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중 도법(윤회)
3. 도인 참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선암사)
052)282-8793
011-9556-8793

법회 주관할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보살님모십니다
▷부산시 북구
051)362-2339
011-594-1526

모십니다
· 공양주보살
· 찻집보살
· 종무원(남 · 여불문)
<강화 전등사>
032)937-012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9854-9810

조용한 산사에서 천일 기도하실
스님 · 행자 · 처사님 ·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1-561-6644

명산에서 수행겸 공양주하실분 모십니다
011-696-8500

평생사실 도반스님 모십니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051)518-772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부인 경우도 환영
(최고대우 해 드림)
▷김해지역
011-405-4952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광주시
010-6251-21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0-9357-6966

기도승 부전 원함
010-5311-002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철원 심원사)
033)455-3468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간부스님은 특별 혜택이 있음)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행자(예비스님)모집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제한 없음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살풀이)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행사문의 051)557-1130 / 011-482-2091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 · 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교성지순례 안내
1. 불교 4대명산 오대산/대동/북경6일
◆일정 : 인천-북경-오대산(1)-대동(1)-북경(2)-인천
◆출발 : 매주 목요일
◆경비 : 899,000원

2. 하늘로 떠나는 티벳 열차순례 9일(칭짱열차)
◆일정 : 부산-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2)-부산
◆출발 : 매주 월,목요일
◆경비 : 1,890,000원

3. 영혼의 도시 티벳 일주 9일
◆일정 : 인천-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1)-인천
◆출발 : 매주 수요일
◆경비 : 1,650,000 ~ 1,890,000원

4. 불교 4대명산 상해/구화산/보타산/황산/항주 8일
◆일정 : 인천-상해-수주-항주(1)-구화산(1)-황산(2)-항주(1)-보타산(1)-상해(1)-인천
◆출발 : 매주 목요일
◆경비 : 1,190,000원

5. "산과 바다의 어울림" 상해/보타산/낙가산 4일
◆일정 : 인천-상해(1)-보타산(1)-상해(1)-인천
◆출발 : 매주 월, 수, 토요일
◆경비 : 649,000원

♣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전문판매대리점
(주)VIP여행사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055)743-5001, 팩스 743-5003
E-마트 : ☎055)741-9999, 팩스 742-4444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지역
● 법당 : 30평
● 명부전 및 요사 : 300평
● 부지 : 1200평 외 1500평
● 가액 : 18억(급매가격임)으로 꼭 필요한분 직접상담요

● 위치 : 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임대 : 3000/25

● 위치 : 경남
● 법당 : 24평
● 요사 : 169평
● 부지 : 5600평
● 가액 : 19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외동
● 평수 47평
● 기타시설 완비
● 가액:전세 2,000만원 월 65만원.시설비 2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55)324-1865
011-582-186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평수 : 28평
● 대지 : 1,100평
● 교통편리, 최고의 명당
● 가액 : 8억 7천만원
010-7795-88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접면
● 대지600평, 법당25평(단청), 요사채30평, 20평
● 상담 후 가격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바람
010-4583-2035

포교당안내
● 위치: 원주 문막읍 시내버스 정류장 앞
● 법당 : 25평(2층) 방2, 주방, 샤워장. 시설비 500만원
● 보증금300만원,월25만원
● 특징:사람 내왕이 많은 중심지 역학하시는분에게 최적지
033)731-9277
011-9483-922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산속
● 부지 : 국유지
● 건물 : 25평
● 가액 : 1억5천만원

● 위치 : 서울산속
● 부지 : 1300평
● 건물 : 30평
● 가액 : 13억5천만원

전국 사찰 · 포교당 · 부전스님 · 공양주 소개합니다
사무실이 독립문역 1번출구 150m로 이전하였습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웅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지하철 4호선 상계역부근
● 건물 : 2층 법당, 접견실 34평 3층 방3, 주방, 세면장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888-0130

사찰(급)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16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 법당 : 조립식 15평, 요사1동, 사무실1
● 보증금 없이 연240만원 가액없음, 설비일체 3천만원
● 특징 : 역학 보유자 최적지
010-7156-4855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 부지 : 200평
● 가건물 임법당 뒷쪽은 야산, 앞쪽은 시내와 바다가 보임. 아주 조용함
● 가액 : 1억
011-693-5324
-오후에 통화 가능-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근처 양산
● 대지 : 700평
● 법당 : 35평, 지하법당 40평 납골당 1500기 요사, 방사 10호실
● 산자락속의 마을 도량 정리 완벽
● 가액 : 7억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소액 5천만원 ~ 20억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 부지: 20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 요사 : 30평
● 명부전:20평, 산신각:5평
● 가액:6억5천만원
● 특징:납골(300기 안치시설)당과 매장허가를 가지고 있는 도심인근의 산중사찰임

● 위치: 경남
● 부지: 약 1000평(종교용지)
● 법당: 30평(목조,단청)
● 요사: 40평
● 산신각:5평(목조,단청)
● 가액: 2억 5천만원
● 특징: 도심인근의 정통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68-0875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하동
● 부지 790평, 법당 25평
● 요사채2동,창고,주차시설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 별장용 명당 각종채소밭 있음, 관상용 양어장
● 가액:2억
010-3138-4897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 (표충 비각 인근) 국도변 위치
● 대지 : 약 200평
● 요사채 60평(적벽 슬라브) 1동 초고급시설, 법당 20평 1동
● 태양열, 단독 지하수 완비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 일절
● 가액 : 2억1천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55)356-6777
010-5883-5005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구미시
● 대지:800평
● 법당 24평, 요사채 45평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 요사채 에어컨 설치, 심야전기보일러
● 하천부지사용, 주차장 완비
● 가액:2억 5천만원
016-818-3088

소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 1층 방2, 삼존불, 법당집기 일체 주방기기, 가전제품 일체 화장실, 세탁실, 세면장
● 보증금 250만원/월 15만원
● 법당집기, 살림가전 일체 300만원 (철학관으로도 사용가능)
010-7760-7080

포교당 양도안내
● 총평수 : 38평(실평수 45평) 25평(최고의 시설로 장엄하였음)
● 삼존불 및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탱화
● 방사 : 방2, 거실, 욕실, 화장실2, 창고 등
● 특징 : 청정수월도량, 교통편리, 인근에 밀리오레백화점, 버스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등
● 인구밀집 지역으로 포교최적지임
● 가액 : 1억원(전세 5천만원) 월세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사찰전문용역 011-789-2255
금 강 기 획 011-279-3538

사찰터 및 별장터 안내
● 위치 : 소백산 자락(영주에서 부석사 중간), 산 270고지
● 평수 : 독립구역 5,300평 (과수지목 4,308평). 명당산세
● 차량진입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 인입 4구역 평지 토목공사 완료(경치 좋음)
● 인근에 승마장 및 온천개발지, 숯가마 체험장 등 있음
● 양도가 : 2억2천만원(필요한분만 문의요)
금강송 소나무 양도
● 수량 : 5년생 800 그루 ● 양도가 : 일천만원
016-573-2032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남덕위산 자락
● 부지 : 1,630평
● 가옥 : 황토기와집 2동
● 특징 : 집뒤에 솔숲과 맑은 개울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 4억 5천
010-9304-2322

포교당안내 도심속의 포교당 조용한 단독주택
● 위치 : 부산 오륙도 부근
● 가액 :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절충
051)623-1384
010-3449-3278

토굴(별장)안내
● 위치:경북 성주(대구에서 30분)
● 대지125평, 남향 황토집40여평
● 심야전기 방3, 거실, 주방, 목욕실 등
● 집뒤는 죽림, 청정한 수행명당
● 100여종 꽃밭 정원과 활용가능 텃밭
● 가액 : 8천5백만원
054)933-341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 평수 : 40평(5층건물 3층) 내부시설완비 (인테리어 1년미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상담 후 결정
010-5529-8799
02)529-8799

사찰적지안내
● 위치: 경북 의성읍 읍을끼고 교통편리 아주 적지임
● 총 460평, 건물80평있음
● 평당 80만원
● 현재 휴게소로 사용중
054)832-6300
016-823-9439

전원주택 농장 별장
● 위치 : 경북 성주읍
● 황토 전원주택, 심야전기 전2000평, 대추나무 심어져있음
● 창고 40평(1동)
그림같은 풍경, 전부 2300평
● 가액 : 5억3천만원
011-9853-384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200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 부지 1290평
● 건물(3동) 53평, 25평, 17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010-6317-2741

포교당안내
● 위치: 창원시(창원역부근)
● 법당, 삼존불, 공양간 완벽조성 2층 50평
● 전세 1천만원, 월세 55만원
055)299-3536

포 교 당 안 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감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2000만원 가격절충가능
031)405-4181
010-6321-163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시장입구
● 평수 : 4층건물 2층(33평)
● 법당, 다다미 시설비 안받음
● 전세 5천만원, 월10만원 원 각 선 원
017-585-5114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가례면 국도옆
● 실내법당, 큰방, 작은방, 거실, 다용도실, 창고별도,주차시설완비
● 대지 120평 ● 주위 텃밭 이용가능 전통동굴(삼존불 동240kg) 의령시내에서 2~3분 거리
● 가액 : 7천만원
011-569-7665/010-8953-8979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명륜 2동 부근 1층 법당 30평, 삼존불, 2층 요사채 20평
● 대지 71평, 마당에 주차 가능, 정원있음 지하철 역 5분, 버스 1분거리
● 가액 : 1억 8천만원
051)555-8516
010-8550-844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법당, 약사전, 산신각
● 평수 : 대지114평, 공양간, 요사채, 방 4칸
● 가액 : 1억 (융자 2천만원 포함) 내방 후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함
017-846-466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 (대중교통편리)
● 건물1, 2층(각60평) 법당완비
1층 : 법당(약40평), 산신각, 용왕당
2층 : 종무실, 요사채
● 월(1,2층 포함) 110만원
총 양도액 : 2300만원
010-3534-3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백용사
● 법당, 칠성각,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 부지 : 약3600평
● 가액 : 7억5천만원
055)353-0611
016-422-061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서구
● 평수 : 25평(임법당)
● 심야보일러 (태양열 온수기)
● 가액 : 4천7백만원 (가격절충가능)
010-4603-1299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아산뒤 KTX 고속전철 15분거리
● 대지:3,700평 ● 법당, 요사채:150평
● 큰석축, 조경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천하의 절경, 명당자리, 큰바위가 많음
● 가액:23억
※인연이 되시는 분 전화 주시면 상의하에 양도해드리겠습니다.
011-850-0176

사 찰 터 안 내
● 위치:부산 포교당 최적지 수영구 광안동 수영지하철역 도보로 5~6분
● 대지 : 98평 (실사용평수 100여평) 벽돌 슬라브 건물 35평(구옥)
● 가액 : 2억9천만원
010-5084-0108

사찰전세 및 월세안내
● 위치 : 주문진 바닷가 옆
● 방 5개, 창고 1개
●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011-9918-525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9-656-276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속초 중심가 최요지 4층건물 중 3층 건평 60평
● 완전 황토방 시설 완벽 (법당20평,방3칸)
● 환자처료및 역학하시는 스님 좋은 환경임 (좌욕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천만원(보증금1천만원포함)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4631-7621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알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 종평수 : 343평
● 가액 : 5천만원
● 땅 230평
● 가액 : 5천만원
● 비구니스님 적합, 계곡있음
010-9267-33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 평수 33평, 법당15평, 요사, 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2)747-9122

속리산이 맞닿은 청화산의 방화동 의상대사가 불통참선하시던곳 계곡이 수려함(쌍용계곡이 접함)
● 대지 : 밭 2541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주변 국유지 불사하실 분도 원함
011-9588-30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 부지 1290평
● 건물(3동) 53평, 25평, 17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010-6317-2741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밀양 IC에서 10분 거리)
● 대지 235평,목조 기와지붕 단층 법당(35.10평방미터)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요사채(67.145평방미터)
● 산신각 용왕당 사찰내부에 있음 도로 시멘트 포장,
● 사찰 내부 주차 10여대 가능
● 가액 : 2억3천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10-6782-2916
054)373-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밑 남원시내에서 5분거리
● 평수 : 2,000평
● 대웅전 20평, 별채 20평,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조립식) 50평, 심야전기보일러
● 특징 : 송림이 울창하고 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음
● 가액 : 2억5천만원(전,월세가능)
063)625-9992
011-411-05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마산, 대구, 창원 인접)
● 평수 : 1400평
● 법당, 칠성각, 용왕당(연못), 요사채 총 100평 이상
● 가액 : 3억5천만원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랍니다
010-2592-1523

포교원(급)안내
● 위치:마산시 양덕1동 마산학원 정문앞 2층
● 약 40평, 위치최고, 법당, 거실, 방2, 주방
● 비구니스님 4년 거주, 손볼것 없이 깨끗함.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스님은 경북으로 절 지어 갑니다
● 가액 : 전세2천만원, 월20만원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011-869-8608

성년의 날, 이렇게 준비하세요

5월 달력에 새겨진 수많은 기념일 중 '성년의 날'은 그 존재감이 크지 않다. 자녀가 어엿한 어른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래 친구들과 장미꽃이나 향수 등의 선물을 주고받는 날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성년을 맞는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 함께 '어른이 된다는 것'의 참뜻을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20세' 의젓한 어른으로



20세기 중반까지 마을 단위로 축하 전통 의례
어른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 '여행 다니기'

■ 성인으로서 자신감 · 책임감 부여

5월 21일은 35회를 맞는 성년의 날이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는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날이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성년례(成年禮)'라고 해서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는 상투를 틀어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는 꽂아주는 관례(冠禮) 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남자는 관례의 절차를 마치면 아명(兒名)을 버리고 평생 쓸 이름과 자(字)와 호(號)를 가졌으며, 결혼할 자격과 벼슬길에 오를 권리도 갖게 된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으나, 갈수록 서양식 성년식에 밀려 전통 성년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최근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전통 성년례를 복원해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문화관광부가 1999년 정한 표준 성년식에 따르면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놓고 상견례(相見禮) 삼가례(三加禮) 초례(醮禮)를 거쳐 성년선언을 한다.

■ 부모와 함께 성년의 날 축하하세요

일생에 한 번 맞게 되는 성년의 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하고 어떻게 보내야 성년이 되는 자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해 한국방송(KBS)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른이 되면 가장 먼저 해 보고 싶은 것'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행 다니기'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성년을 맞는 자녀가 혼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성년이 되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친지 어른을 찾아뵙거나, 좋은 부모 · 자녀가 되겠다는 다짐을 써 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서로에게 편지를 건네본다면 의미 있는 성년의 날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준비한 성년의 날 행사에 부모가 함께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와 성균관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경희궁에서 35회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례 행사를 개최한다. 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상견례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초례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 성년 의식 재현과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남녀 선착순 100명씩 참가할 수 있다.(02)747-1301

한국전례원 충남지원은 21일 오후 2시 공원녹지사업소 체육관에서 만 20세를 맞는 청소년 250명을 초청, 축하 퍼포먼스와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성년을 맞는 지역 3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격려 서한문을 발송하고, 성인으로서의 의무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줄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한옥문화원 강좌 18일부터

아파트를 한옥처럼 꾸며볼 순 없을까?

한옥문화원(원장 신영훈)은 5월 18일부터 강좌 '아파트를 한옥처럼'을 개최한다.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생활공간인 아파트에 한옥의 장점을 접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강좌는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신영훈 원장과 실내디자이너 남숙현, 이원복 국립전주박물관장, 김진욱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이사 등이 강사로 나서 '생활 속의 목재' '흙벽치기' '한지도배' '우리 가구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비 23만4000원. (02)741-7441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www.youthexpo.net)가 6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우주체험, 로봇 및 미래교실체험, 미래주택체험 등의 체험교실이 열리는 것은 물론 청소년단체, 시설 등의 홍보, 폭력 추방운동, 취업진로지도, 여행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국무총리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주관하며 참가비는 무료.

여수령 기자



37. 일본 차산지

개량종 '야부기다' 일본차의 70~80% 차지
타카바야시 켄조 제다 기계화 성공 생산 확대

일본의 많은 차산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지역은 교토와 시즈오카다. 교토는 역사적으로 차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는 주로 우지(宇治)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가마쿠라 시대에 에이사이 선사가 차씨를 가져와 묘에(明惠) 스님에게 전해주어 우지(宇治)에 심으면서 차나무가 전해졌다고 한다.

14세기 후반에 아시카가 3대 장군 요시미츠가 우지칠명원(宇治七名園)이라고 불리는 다원(茶園)을 조성했다. 다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지차의 명성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장군가문의 두터운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하자 장군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우지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다도(茶道)를 좋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지차는 명성을 유지하였다.


마키노하라 다원(소화 초기).

우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갓 수확한 신선한 차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쇼군에게 진상되었다. 차를 진상하기 위해 교토와 에도를 오가던 차 운반 행렬이 있었다. 차를 운반하던 관리들은 권력을 휘둘러 마을을 지날 때 마다 나쁜 짓을 일삼았다. 그들에 대한 원한이 담긴 노래까지 유행하였다. 차를 나르는 행렬이 지나갈 때는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은 연을 날리지 못하였으며, 모두 길 옆에 엎드려야 했다. 이러한 악명 높은 어차(御茶) 행렬은 후에 개선되기도 한다.

한편 차의 명소로 알려진 시즈오카 현은 고승 쇼이치 국사가 송나라에서 종자를 가져와 차 모종을 심은 것이 최초라고 한다. 이 때문에 쇼이치 국사는 시즈오카 현의 차 시조로 알려져 있다. 요코야마 개항 이후 차는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 되어 시즈오카 현의 각지에서 많은 다원이 조성되고 이 지역 차의 존재가 서서히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메이지유신을 맞이하여 일자리를 잃은 도쿠가와 번사(番士)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 등이 다원을 개간하여 차밭을 크게 발전시켰다. 수익 증대를 위하여 제다 방법과 품종 개량에 노력을 기울인다. 다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품종을 개량하여 우량품종인 '야부기다'를 발견하였다. 이 종(種)은 일본차의 70~80%를 차지하게 된다.

이 밖에도 가고시마 현은 예부터 자생하는 차나무가 있다는 설이 있다. 사람들이 차나무 잎을 상처 치료에 이용하고, 무사들의 저택에 차나무를 울타리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고시마 현의 차는 서서히 일본 전국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이 지역은 기온이 따뜻하여 일본에서도 가장 일찍 생산되는 '빠른 차'가 생산된다.

전차(煎茶)를 만드는 방법에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찻잎을 따서 솥에서 덖어 돗자리에서 손발로 비벼서 햇빛에 건조시켰으나 1738년 소엔은 제다법을 개량하여 차를 손으로 비비고 불로 건조시키는 등 차를 만드는 방법을 개량한다. 차를 만드는 방법이 개량되면서 일본 녹차 기술의 기초가 된다. 점차적으로 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차를 따는 것에서부터 만들기 까지 모든 과정이 기계화 되어갔다. 차 재배와 제다의 기계화에 몰두한 타카바야시 켄조 의사는 찻잎을 찌는 기계화에 성공하였다. 종전의 수작업이었던 것이 기계화됨에 따라 차의 생산량이 증가된다. 차 생산량의 확대와 보급을 위하여 기계화에 의한 차의 제조법이 확립되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영인본 불교원서 보관본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니다.
책방 여시아문을 항상 이용해 주시는 스님,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항상 불자님들의 곁에서 불서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원서목록 영인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스님 및 불자님들의 문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책자를 보급합니다.
보급수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양해 바라옵니다. (선착순 접수)

▮문의전화 : 02)2004-8219 (담당 : 박원범)

도 서 명	저 자 명	보관수량	가 격
~~望月佛敎大辭典(全10권)~~	~~望月信亨~~	~~절판~~	~~350,000~~
~~佛光大辭典 (全8권)~~	~~臺灣佛光寺~~	~~절판~~	~~200,000~~
~~佛書解說大辭典 (全14권)~~	~~小野玄妙~~	~~절판~~	~~350,000~~
新修大藏經 索引 (全31권)		1	900,000
祖堂集索引(全3권)	柳田聖山	1	100,000
慧遠硏究 (全2권)	木村英一	1	50,000
~~高麗華嚴變相圖(고급한지인쇄본)~~		~~절판~~	~~580,000~~
韓國近世佛敎百年史(全2권)		28	55,000
漢語大辭典		1	500,000
선문염송(불교문화연구원)	木村英一	1	200,000

경신도통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철야용맹 정진비법으로 운명을 바꿔 성공출세 운수대통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귀하는 인생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도통군자제위 귀하를 용맹정진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상통천문 타심통 하달지리의 비전인 천문유초에 감추어진 오경명성과 서성명성 진법이 유성에 베일을 벗기는 경신일밤 자시와 오시에 진인도통군자들에게 원방각해인도법을 직접받아 즉시도통하고 즉시 성불하는 이번 법회에 귀하를 초대하오니 다시없는 기회이오니 동참하시어 도통군자 되시길 바랍니다.

● 병마귀신 잡신 천신 만신 구랑신 모든신들을 하늘나라 불사신 광명천으로 경신일 자시에 불러모아 경신일 정오시에 영산대제 범패로 회원상생시키는 천지대도법이 무자천서와 혈단법이 도통경인 것이다.

● 경신도통이란?? 자신의 주인공을 찾는 참선인 것이다.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신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재하는 수행법인것이다.

정해년 경신은 출세와 명예 경쟁에서 이기고 국가에 문관 무관 관록을 엇어 진급 및 정치,경제,문화,사회, 자신이 경영하는 총수가 되려면 경신도통 특별기도 동참으로 경영사업, 결혼 못한 가정, 고시합격을 못한 가정, 생남발원, 건강 부귀 장수는 물론 모든 소원과 한가지 소원을 얻는 기도인 것이다.

특별 경신도통을 하여야만이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전생빙의와 해리로 고통받고 중음신과 삼시구충으로 육신의병, 정신의 병, 잡신에 빙의된 빙의제도법 특별 태일대사 직강

◆신장과 귀속들을 부려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옥추경을 강의하여 신장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룰 수 있는 특별비법 전수

경신수행의 근본은 참선수행을 방해하는 시습마 즉 이 뭣고 참선의 마장을 제도하는 것이며, 주인공인 자신에 수행척도 즉 견성의 경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참선에 마장은 수마인 고로 수마의 자신의 업장을 제도하는 날인 경신수행 날인 것이며 진공묘유인 것이다.

心 견성과 도통을 하려면 조상과 전생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업장과 모태유산 사대부집안 구대선망 오대조상 해탈만이 도통을 하는 것이고 혈단법인 예단경으로 일체영가가 알아듣고 원없는 광명천으로 천도되는 것이고 결혼에도 예단을 주고 받아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타심통경신 법회에 혜명을 득도하는 비법인 진법을 도통군자들에게 참된여래의 종자와 주인공인 나를 감추고 있는 으뜸가는 관문인 혜명과 성품이 갈라져있는 참법을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혜명과 성품이 둘로 갈라져 혜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육신만 자라면서 성장하자마자 늙고 병들어 제육신하나 관리못하는 모든수행자들에게 특별 경신수행으로 신선이나 도인이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살아가는 천하제일의 유래없는 견성도통 심령도통 자신도통, 말문도통으로 하늘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대법회

◆본종단 불사금 부적으로 소장했던 탄허대선사 큰스님친필 평풍, 일봉 서경보 큰스님 반야심경 평풍 친필과 강석주 대선사 큰스님 현판 및 오유지족 친필, 수덕사 방장 원담 큰스님 반야심경 친필 평풍을 소장하여 일체고액을 소멸하고 큰 행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바람

● 입제 : 양력 2007년 5월 25일(음, 4월 9일 금)(해시)
● 해제 : 양력 2007년 5월 26일(음, 4월 10일 토)(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버스 6513, 6514, 5711, 461 이용)

웅조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중충본산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8) 운악산 현등사

극락전·노송·영봉…그림처럼 어울려


현등사 극락전 뒤 소나무.


영화 '쉬리'로 더 유명한 '쉬리'.

조종천에 쉬리 배가사리 참종개 등 고유어종 서식
화강암이 토양화된 마사토 집중호우때 산사태 위험
현등사 일본목련 우리나라 사찰 중 최고 수령 자랑

문화는 자연조건의 소산이다. 석탑, 석등, 부도 등 우리의 석조문화가 뛰어난 것도 지질 환경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지질은 화강암과 화강암질 편마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풍부한 화강암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불교문화재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 화강암은 형성된 시기에 따라 대보화강암과 불국사화강암 등 크게 둘로 나뉜다. 설악산에서 북한산에 이르는 한북정맥의 암산들은 대보화강암대에 속한다. 현등사가 자리한 가평 운악산(935미터)도 그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다.

현등사의 창건은 <봉선사본말사지(奉先寺本末寺誌)> 등에 신라 법흥왕 때 인도의 마라하미 스님을 맞이하여 세운 절로 소개되어 있지만, 오히려 신라 말 도선국사가 개성 송악산을 비보하기 위해 지었다는 창건설이 더 비중 있게 다가온다.

현등사 가는 길은 청평을 지나 북한강의 지류인 100리 조종천과 함께 한다. 조종천 유역은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이곳만은 살리자'며 1993년도에 자연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이다.

현등사 입구인 조종천에는 쉬리, 배가사리, 참종개, 긴몰개, 돌마자, 미유기, 퉁가리 등은 우리 고유어종들이 살고 있다. 영화로 유명세를 탄 쉬리는 몸의 길이가 10센티 남짓 작지만, 멋쟁이 물고기이다. 날씬한 몸통에 황금색 가로띠 위아래로 갖가지 색깔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쉬리는 현등사 입구인 석거리 운악교 주변에서도 관찰된다.

조종천은 물고기들만의 고향이 아니다. 철쭉꽃 필 무렵이면 도요새류, 물떼새류, 할미새류가 돌아와서 모래밭과 자갈밭에다 알을 낳는다. 깝작도요 부부가 현등사로 건너가는 운악교 다리 아래 모래밭 갯버들 속에다 알을 낳아놓고 연방 들락거린다.

운악산은 가평군과 포천군에 속해 있다. 면적으로는 포천군 쪽이 넓지만, 명찰 현등사는 가평군 하면 하판리에 속해 있다. 이번 탐방은 조종천-운악교-현등사-절고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일주문에 이르면 주변에 잣나무들이 많다. 지금 있는 잣나무들은 모두 식재된 것이지만, 원래 가평 운악산 지역에는 잣나무가 많았다고 전한다.

일주문에서 현등사까지는 흙길과 돌길이 반반인 1.5킬로미터 숲길이다. 제비꽃 종류를 비롯하여 각시붓꽃, 세잎양지꽃, 앵초, 산괴불주머니, 큰앵초, 노랑제비꽃, 민들레, 개별꽃, 알록제비꽃, 현호색, 꽃다지, 양지꽃, 황새냉이, 애기나리 등이 나보란 듯이 숲 가장자리와 길가에 피어 있다.

전국에 흔한 각시붓꽃은 4월경 자주색 꽃이 피는 키 작은 붓꽃이다. 가끔 5월경 피는 귀한 솔붓꽃과 헷갈리기도 한다. 각시붓꽃은 꽃잎에 흰색의 무늬가 많고, 솔붓꽃은 적다. 흔히 '뱀딸기'라고 부르는 세잎양지꽃은 비교적 이른 봄에 햇볕이 좋은 산자락에서 볼 수 있다.

운악산의 조류는 매우 다양하다. 여름철새로는 현등사 경내에 둥지를 튼 흰배지빠귀를 비롯하여 호랑지빠귀, 큰유리새, 파랑새, 후투티, 찌르레기, 꾀꼬리, 검은등뻐꾸기, 뻐꾸기 등이 있다.

몸집이 큰 호랑지빠귀는 가슴에 초승달 모양의 얼룩무늬가 있다. 산 속의 외딴 곳을 좋아하는 토굴납자(衲子) 같은 새이다.

화강암은 대체적으로 다른 암석에 비해 가볍고 풍화작용에 약하다. 풍화작용으로 푸석푸석해진 화강암을 '썩은 바위' 또는 '석비례'라고 한다. 지질용어로는 '새프롤라이트(saprolite)'라고 한다. 이 새프롤라이트가 토양화한 것이 마사토이다. 운악산은 해발 300미터 정도에서 마사토가 나타난다. 마사토는 점성이 없어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가 쉽게 일어난다.

눈을 올려다보면 운악산 능선들이 멀리 용의 등 갈기처럼 달리고 있다. 백록(白鹿)처럼 눈부신 운악산 화강암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중창주인 함허 선사가 산중에서 길을 잃었을 때 폐사된 현등사 옛 절터로 안내해 주었다는 흰사슴[白鹿] 전설이 떠오른다.

흰 사슴은 전설이나 지명에 단골로 등장하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그런데 흰 사슴은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 흰 점박이 꽃사슴에게서 10만분의 1 정도의 확률로 태어난다고 한다.

현등사까지는 계곡이 함께한다. 산길 왼쪽으로 정상인 만경대와 절 고개 골짜기에서 발원한 계곡이 청아한 물소리를 데리고 산을 내려오고 있다. 기암과 암벽들이 백년폭포와 무우폭포를 비롯해 크고 작은 폭포와 많은 소(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 관찰된 나비로는 유리창나비, 뿔나비, 청띠신선나비, 호랑나비, 애호랑나비, 멧팔랑나비, 흰나비 등이 있다. 유리창나비는 앞 뒷날개 모두 주황갈색 바탕에 큰 검정무늬가 있다. 양쪽 앞날개 끝에 크고 작은 하얀 점 2개가 유리창이나 비닐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유리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계곡 주변에 서식하며 나무의 즙이나 동물들의 배설물에 앉아 영양분을 찍어먹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운악산엔 보호야생동물인 까치살모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파충류로는 아무르장지뱀과 도마뱀 등이 서식하고 있다.

운악산의 식생은 주능선을 중심으로 소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등이 보존된 자연식생을 보여주고 있다. 현등사 아래 구간에서는 대상식생(substitute vegetation)으로서 리기다소나무식재림, 일본잎갈나무식재림, 잣나무식재림, 밤나무식재림, 아까시나무식재림 등이 보인다.

일주문을 지나 현등사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참나무 종류와 귀룽나무,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쪽동백, 때죽나무, 당단풍, 개옻나무, 당단풍, 쇠물푸레, 마가목, 고로쇠, 왕버들 등이 있었다.

계곡 주변으로 몸집 좋은 귀룽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귀룽나무는 줄기가 용처럼 휘어서 '구룡목(九龍木)'이라고도 한다. 깊은 산에 자라는 낙엽활엽수 교목으로, 나무 높이 15미터에 이른다. 나무껍질은 흑갈색이고 세로로 갈라진다. 초여름이면 새로 돋은 가지 끝에서 하얀 꽃이 핀다.

산의 경사지에 앉은 산중사찰은 어딜 가나 높고 낮은 석축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등사 석축만큼 고풍스럽고 소담스런 석축도 흔하지 않다. 석축은 눈맛 좋은 수문이 자리한 하단, 장방형 댓돌로 여섯 켜를 쌓은 중단, 그리고 다시 층을 두고 두 켜를 올린 상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등사 문화유산으로는 진신사리가 나온 3층석탑과 풍수비보를 목적으로 쌓았다는 지진탑이 우선 손꼽힌다. 재질은 이 지역에서 나는 화강암이다. 운악산의 화강암은 연한 복숭아 색깔을 띤다.

극락전은 현등사 전각 가운데 가장 고색창연하다. 특히 제대로 다듬지 않은 울퉁불퉁한 자연목 기둥이 눈에 정겹게 들어온다.

보광전 기둥에 큰 목탁 하나가 빛이 바랜 채 걸려 있는데, 언제부턴가 해마다 곤줄박이가 와서 목탁 구멍 속에다 둥지를 튼다고 한다.

극락전 뒤로 노송들이 눈맛 좋게 서 있다. 노송 너머 멀리 운악의 화강암 영봉들이 마치 일월오악병(日月五嶽屛)처럼 자리하고 있다.

경내에 심은 조경수로는 지장전 담장 바깥에 심은 네그루 일본목련이 그나마 눈길을 끈다. 현등사의 일본목련은 우리나라 사찰에 심어진 일본목련 가운데 최고(最高)의 몸집과 수령으로 짐작된다.

현등사 앞으로 절고개로 오르는 산길이 나 있다. 현등사 중창주인 함허(涵虛) 선사 부도와 석등이 그 산길 초입에 있다. 함허 선사가 지었다는 선시 한 수를 읊으며 저녁시간을 마무리한다.

靜聽溪流嚮幽谷 깊은 골에 울리는 저 개울 소리
回看明月掛西峰 뒤돌아보니 달은 서쪽봉에 걸렸네
時中無限好消息 이때의 무한한 이 소식이여
却恨傍無可與通 더불어 이야기할 사람 곁에 없구나.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현등사 석축의 수구.


깝작도요새의 알.


유리창 나비.


현등사 일본목련.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서원불교 문희 043-647-2378, 011-467-1472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은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대행스님

뜬구름 같은 이 환상천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두운 길을 밝혀 주실 부처님

문 산천초목의 푸르름이 온 산하대지를 생동감 넘치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만 전에 있었던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이라든지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피랍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니 말입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초파일은 다가와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어두운 저희들의 마음에 밝을 빛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연등처럼 저의 마음을 밝혀서 시비하거나 간택하지 않고 부처님의 환희광명세계를 체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이라면 좀더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원 불생불멸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불심을 좀더 돈독하게 가지시고, 진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부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삼 배를 올릴 때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몸이 내 몸이요 바로 부처님의 그 무한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도 할 터인즉, 내가 아프다면 바로 내 지극한 마음속에서 바로 의사가 나올 것이고, 바로 지극한 마음에서 가난을 물리칠 것이고, 지극한 마음속에서 유생 무생(有生無生)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의 그 능력의 빛이 바로 세균의, 보이지 않는 세균의 모든 것을 뿌리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빛에 의해서 녹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녹아 버리는가 하면 피해서 그것이 다시 몸이 화(化)해서 다른 걸로 창조가 되기도 하니 죽이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미물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억겁 전년서부터 우리는 이 몸뚱이를 사람의 몸뚱이로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뱀의 몸뚱이나 거북의 몸뚱이나 소의 몸뚱이, 어떤 벌레의 몸뚱이,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 몸뚱이 저 몸뚱이로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또 인간으로서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데 합쳐서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쳐 온 거를 생각할 때에 나 아님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모두가 나입니다.

그래서 석존께서 짐승의 뼈다귀나 사람의 뼈다귀나, 여자의 뼈다귀나 남자의 뼈다귀나 어린애의 뼈다귀나 어떠한 뼈다귀를 막론하고 예전에 그 뼈 무더기 있는 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절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생자부(四生慈父)이신데 거기에 절을 하나이까?" 하니까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억겁 전년서부터 그 몸뚱이가 사람의 몸뚱이로만 가져온 게 아니니라. 저 몸뚱이가 뱀의 몸뚱이다 할지라도, 거북이의 몸뚱이 뼈다귀다 할지라도 그 거북이도 어미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형제가 있었느니라. 우리도 억겁을 거쳐 올 때 그 모습의 형제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느니라. 부모도 고정되게 있지 않고 자식도 고정되게 있지 않고 형제도 고정되게 있지 않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짚단과 같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인연에 따라서, 자기 마음 쓰는 데에 따라서, 업보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한데 질서 있게, 업보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지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지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그거를 모르겠걸랑은 우리 세상을 잘 보십시오. 금방에 금이 있고 넝마전에 넝마가 있고…. 또 사람들 사는 걸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지게꾼은 지게꾼대로, 그 외에 한 마디 더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질서가 지켜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만 볼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으로서 차원대로 질서를 이루어 가지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다고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억겁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현실을 볼 때, 현실의 '참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억겁 전년서부터 그 모습을, 수많은 벌레의 모습, 짐승의 모습, 무정물의 모습을 내가 지니고 거쳐 왔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거를 아시게 된다면 아마 자기 생명만 생명으로 알고 남의 생명이라서 우습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느 한 생명도. 그래야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다른 생명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너 나 할 것 없이 겸손하게 대할 겁니다. 스님네들에게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렇게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겸손해진다면 아무렇게나 "저 스님은 저렇고 저 스님은 저래." 하고 말을 해서 싸움을 붙이거나, 또 신도들끼리도 서로 말들을 전달해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렇질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이 있고 불이 있고 흙이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쓰는 대로 바람이 일고 불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대로 우리가 업을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묵언하라!" 예전에 선조들께서 "묵언하라! 모든 잘못된 것은 안으로 돌려라!" 했던 거죠. 아주 괴로운 일이 있으면 '주인공, 당신이 일체 만법을 해 나가는 거고 당신께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고 바로 당신이 운전수며, 나는 차일 수밖에 없으니 당신께서 기름도 넣고 이 몸뚱이도 잘 지도해서 이끌어가 달라.' 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는 마음이 갸륵하고 진실하다면 여러분도 바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다 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문 자식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가계의 문제도 다 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매사 것이 걱정이고 신경이 쓰입니다. 스님 말씀처럼 내 근본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산다면 이렇게 속을 끓이지도 않을 것이고 몸도 건강할 텐데 다 놓지를 못해서 그런지 소화도 잘 안되고 짜증도 나고 짜증이 나면 가족들에게 퍼붓게 됩니다. 스님, 다 놓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답 여러분은 그냥 그저 찰나찰나 살면서 응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아주 설거지를 하면서 탁탁 치워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난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럽니다. 다 놓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놓고 가면서도. 돈을 한 묶음을 쥐고 가더라도 그건 놓고 가는 겁니다. 금방 쥐고 있다고 해서 고정되게 그냥 그것만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갖다가 놓습니다. 장 속에 넣든지 은행에 갖다 넣든지 증권에 갖다 넣든지 어디다 갖다 놓든지 하여튼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쥐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것은 놓고 가는 겁니다. 관리만 했다 뿐이지 놓고 가는 겁니다. 내 몸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놓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음식을 먹고, 먹고 싶은 대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면서 이것도 소화가 되고 저것도 소화가 돼야 좋지 놓을 수가 없다니, 그러면 그것이 잔뜩 고여 있으면 좋겠습니까? 소화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화를 시켜서 스스로 소화가 된다는 거, 먹고 싶어서 우리가 먹으면 스스로 소화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소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 공장에서 모두, 이건 우스갯소립니다만, 위장이니 간장이니 직장이니 소장 · 대장 · 방광 · 이자 이런 모두가, 심장이니 하는 모두가 공장에서 회전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를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듯이 '모든 것은 한마음 주인공에 놔라!' 이겁니다. 거기다 딱 일임을 해라 이겁니다. 어디 신호가 왔다, 아프다 그런다면 이거를 거기다 딱 맡겨 놓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팠거든요, 이 몸에서. 그 자리에서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호가 온 겁니다. "지배인, 이렇게 여기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아! 그럼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공장장이고 뭐고 다 이거는 서로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파업을 막아라!" 하고서는 거기 주인공에다 탁 놨단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건 한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업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대처를 해야 금방 건강이 되찾아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가슴이 아픈데도 여기 이 형성시킨, 여기서 회전하고 있는 공장에다 맡기질 않곤 딴 공장으로 가요. 딴 공장으로 가서, 이 마음의 도리를 서로 벽이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갖다가 맡기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는 병세가 많고 유전성이라든가 업보성이라든가 영계로 인해서, 인과로 인해서 나오든가 또는 몸에서 솟든가 이러한 것도 누구나가 다 이것을 알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가 모자란다고 봐야죠. 70%는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이 충당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70%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 다 가졌지만, 우리가 외관상 부러지거나 어디 잘못되거나 이러면 딴 기술자를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0%를 가지고 쓰되 100%를 다 가져라. 왜? 의사의 손이 가더라도 그거는 남의 손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도리를 알면.

옛날에 선혜보살(善慧菩薩)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은 너무도 착하고 어질고, 행을 너무도 참 정확하고 밝고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대로 이익을 주고, 아픈 사람을 보면 간호를 해 주면서 항상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내 아픔같이 생각해 줘서 건져 주시고, 또 악한 자를 보면 악한

☞22면으로 계속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를 위한

2007황금돼지해 으아! 김흥국 디너쇼

인 사 말 씀

그윽한 향 내음따라 웃음과 기쁨 전하는 호랑나비되어 여러분 곁으로
훨훨 난지 20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더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성원에 보답코자 합니다.
그동안 가수로서 방송인으로서 때로는 개그맨으로 함께 해온
제가 여러분 곁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정성껏 Dinner Show를 준비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 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아! 행복합니다.
김 흥 국 손모음



· 현재 tbs FM95.1MHZ(오후6시~8시)
'김흥국 · 정연주 으아! 행복합니다' 진행



* 일 시 : 2007년 5월 18일(금) 오후7시
* 장 소 : 리베라호텔 베르사이유홀(3층) ☎ 541-3111
* 주 관 : 김흥국을 사랑하는 모임
* 후 원 : (사)대한가수협회 · 해병대중앙회 · 대한민국축구사랑모임 · 김흥국장학재단
* 협 찬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티켓구입문의 : (02)713-2905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국 1103호

동참후원금 150,000원

그대로 여여하게 우리는 놓고 가고 있습니다!

☞21면에서 계속

자도 이 물컵에 물 한 방울 넣듯이 내 마음으로 안아서 항상 착한 사람 되게 이롭게 해 주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착한 사람도 고정되지 않고 또 악한 사람도 고정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또 바보라고 해서, 거지라고 해서 병신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한 찰나입니다! 그것도 돌아가는 게. 그러니 잘나고 도도하고 위대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 찰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혜보살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어떤 꽃 한 송이도 돌 하나도 그냥 이렇게 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의 스승이 연등(燃燈)으로 화(化)하시고, 연등으로 화하셔서 나중에는 그 연등부처님으로 하여금 석가세존(釋迦世尊)이라는 부처님을 증명해 주셨고, 그러니 오늘날까지도 그 석가모니는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이름은 아마도 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모든 밝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절에 다니시면서 "아이구,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떤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한 말이 들리걸랑 그저 그 자리에 맡기시고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그것이 또 오래 갈 것도 아니니 달라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으니 그런 걸 개의치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가 행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정말 여러분은 진짜 부처님이 되시고 관세음이 되실 겁니다.

사대와 오온이 공했다는 말뜻

문 책을 보다 보니까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이 공(空)했는데 무엇을 가질 게 있고 놓을 게 있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요? 이해하기 쉽게 일러 주십시오.

답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말만 알았지 뜻을 모를 때는 안 것 그 자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작해서 한번 침착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스님이 화두를 줬다 그러면 이차적으로 이 화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삼차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서 앉으나 서나 끊이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좌선을 해도 이것을 꼭 가지고 '뭣고 뭣고 뭣고'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써 공했기 때문에, 내가 공하고 세상이 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저도 공했고 내가 가질 것도 가진 것도 공해 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점은 뭐냐?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침착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거를 나쁘다 좋다 해 왔고, 여러분이 다 움죽거리고 있고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 못하고 남한테 이끌려 가는 것도 바로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이 준 화두, 바로 이것을 꽉 쥐고 굴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일 초도 머무르지 않고, 그냥 머물렀다가 돌아가고 머물렀다 돌아가고 이것이 한정 없이, 어느 한군데 고정적으로 국한된 게 없이 전부 변천해 돌아가고 부서져 버리고 상해 버리고, 또 만날 때마다 변하고 또 말할 때마다 딴 말 하게 되고 만날 때마다 딴 사람 만나서 딴 사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공했다는 얘깁니다. 갖가지로 소소영영하게 가지고 소소영영하게 하면서도 공했다는 얘깁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우리가 간다는 얘기죠. 놓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랬으니 항상 그릇은 비어 있다는 얘긴데, 마음으로 만들어서 지어가지고, 문도 없고 걸릴 것도 없는 것을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큰스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걸 쥐고서는 그거를 놓질 못하고 가기 때문에, 외려 자기 마음이 자기 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지 못하고 닫지 못하는 그런 이치가 허다합니다.

> 내가 공하고
> 세상이 공했기 때문에
> 내가 하는 것마저도
> 공했고
> 내가 가질 것도 가진 것도
> 공해 버렸으니까
> 모든 것이
> 가질 게 하나도 없다.

예전에 이런 말들을 했죠. '참선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주 제 일등으로 쳤죠. 그러면 어떤 것이 참선이냐? 참선은 행선도 참선이요 좌선도 참선이요 입선도 참선이요, 모든 행 전부가, 일거수일투족 전부가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 결제가 되면 한 철 선방에 가서 나야지. 앉아서 좌선을 해야 그것이 으뜸이지.' 요렇게 변경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이. 육신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 마음 떨어지면 코도 떨어지고 입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것을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그렇게 이 육신을 가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마음이 주인공에 모든 걸 일임을 시켜서 놓는다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편안한 반면에 반드시 내가 생각을 하면 바로 자(子)가 되는 것이고 생각을 안 하면 부(父)가 돼서, '부와 자가 둘이 아니니라.' 하는 뜻은 '부는 자로 가면 자가 돼 버리고, 자는 부로 오면 부가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걸 어떻게 생략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음을 가만히 두면 부가 되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부처님이다 이 소립니다. 또 마음을 내고 움죽거렸다 하면 그것이 바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법신(法身)이자 화신(化身)입니다.

내가 움죽거릴 때는 부처가 아들로 가고,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움죽거렸던 게 바로 부로, 자부처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체가 없는 거라 왔다 갔다 해도 왔다 갔다 함이 없이, 함이 없이 그냥 가고 옴이 없이 그대로, 그대로 자가 될 땐 자가 되고 부가 될 땐 부가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 도리를 아실 것 같으면 우리가 수많은 유생(有生)이나 무생(無生)이나 전체, 즉 말하자면 이런 게 있죠. 저 물이나 산이나 들이나 어느 곳을 막론해놓고 보이지 않는 데 영계, 유령, 유체 또는 세균이나 또 사람들 사는 마음, 천차만별로 마음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주인공에 모든 걸 일임하는 겁니다.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 쳐 들었다고 하니까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손가락이 아니라 우주를 든 겁니다, 전체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손 든 것도 방편이니 손 들 것도 없이 내가 '아! 이런 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자 바로 주인공과 함께 하는 거죠. '승보(僧寶)도 그러하니라. 불(佛)과 법(法)이 둘이 아닐지언대 승보도 그러하니라. 승보는 그냥 따라가느니라.' 이러거든요. 이 육신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마음이 생기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불과 법과 승보가, 불과 법이 즉, 아비와 자식이 둘이 아니게 돌아갈 때는 승보도 그러하니라. 몸은 그냥 따라가느니라 이런 거죠.

그렇다면 참, 그 도리를 안다면 어떠한 거든지 못할 게 없고, 어떠한 거든지 주인공이 하는데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의 거라고 할 것도 없을 겁니다. 모두는 내 것도 아니면서 전체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내 것이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체 한생각에는 나도 건질 수 있거니와 남도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능력이 샘솟듯 한다. 그래서 감로수가 돼서 그 감로수로서 양식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문 이 어두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삶의 의지처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진정 올바르게 부처님 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답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꼭 말을 해야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갈 때 학식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어떠한 이름으로써 이론으로써 공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역대에서부터, 즉 말하자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고, 어디를 향해 지금 그대로 여여하게 걷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탐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수화풍 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산다는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일체 생명이 다 지수화풍에서 생겼고, 그 생명으로 인해 진화가 돼서 이렇게 무정물이나 또, 일체 생물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사라지고 거기서 사라졌다가 다시 뜨고 하는 이 진리, 허공에 뜬 꽃잎 한 잎이 바람이 너무 세면 이지러지고, 또 어떠한 개체가 바람을 막아 주면 이지러지지 않고 이러다가 떨어지곤 하죠.

이 모두가 뜬구름 같은 이 환상천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풀포기 하나 버리지 않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곤충 하나 버리지 않고 또는 축생 하나 버리지 않고 무정물이나 식물 하나 버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그 내면세계의 한마음 속에 같이 항상 일 분 일 초도 쉬지 않고 함께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같이 운행을 하고 있으나, 너 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 나가 있긴 있는데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공(空)해서, 그 가운데 무엇이 특출하게 꼭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기 위해서 같이같이 서로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도 죽어야 하고' 했습니다. 일체를 놔라! 맡겨 놔라! 어디다 놓느냐?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있으니깐 일체가 있고 천지와도 직결돼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가발전소가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밝은 자가발전소! 그래서 여러분의 자가발전소는 이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면 발전소에서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도 않고 이쪽에서 끌어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전력이 옵니다. 오지만 그 전력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 육신 떨어지면
> 마음도 떨어지고
> 마음 떨어지면
> 코도 입도 다 떨어질 것을
> 뭐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 이 육신을 가지고
> 매달리고
>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일체의 생활이 참선이며 좌선이라고 합니다. 몸을 꿇어앉혀서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다 놓게 되면 그것이 좌선이며,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톡톡한 주관적인 내 중심이 없이 그대로 공(空)에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고 편안한 마음도 편안치 않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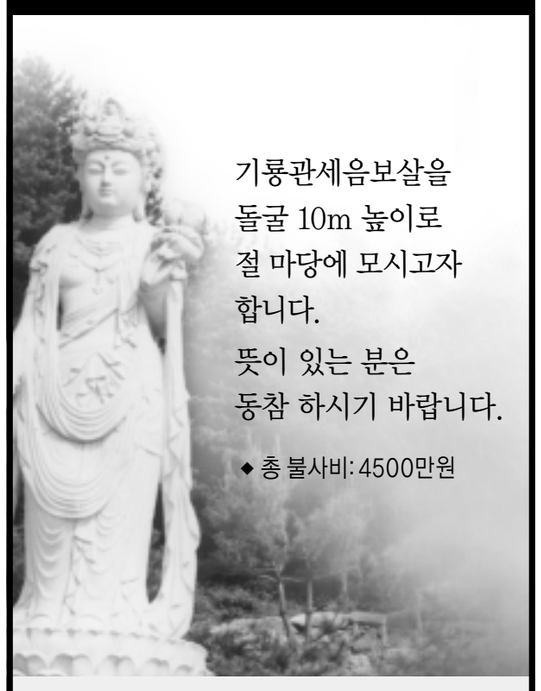
그러니 첫째도 맡겨 놔라, 일체를. '일체'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 또는 우환과 병고 같은 모든 일체 말입니다. 일체 생활을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 놓고 가시라. 이것이 바로 방하착이며 이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말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놓고,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참 좋다 할 때는 감사하게 놓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는 그것도 고정됨이 없으니 '그것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밖에는 길을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놓고, 이렇게 해 나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놨을 때에 비로소 과거의 나와, 즉 말하자면 주인공의 성품을 부(父)라고 한다면, 현재에 사는 나의 마음을 자(子)라고 한답니다. 자와 부가 한데 합쳐졌을 때에 바로 내 정통의 마음은 탄생하는 겁니다. 그거를 견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견성을 했어도 했단 말 하지 말라' 고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를 방금 낳은 거와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를 낳은 것을 돈오(頓悟)라고 한다면, 어른이 될 때까지 길러지는 것은 점수(漸修)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길러져서 어른이 된다면 그거는 성불이라고 하겠죠, 어른이 됐을 때.

그런데 어른이 돼 가지고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합류화시켜서 용무를, 작용함이 없이 작용할 줄 알아야만이 또 그것은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 죽어야 하는데, 즉 다 죽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거기까지 당도할 때는 어떤 이름이 붙여지느냐 하면 돈수(頓修)가 붙여집니다. 돈오 · 점수, 그것이 합류화돼서 화했을 때는 바로 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우리가 제쳐 놓고 생활하는 데서 얻어라. 생활하는 데서 당신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모든 것이 벌어졌으니 그 벌어진 생활을 하되, 모든 것이 그렇게 바람결처럼 나툰다 이런 거죠.

우리가 부처님의 그 길을 따른다면 올바르게 자력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놓고 참자기의 중심에 의해 이리로도 흔들리지 않고 저리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갈 길을 똑똑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룡 관음불사 모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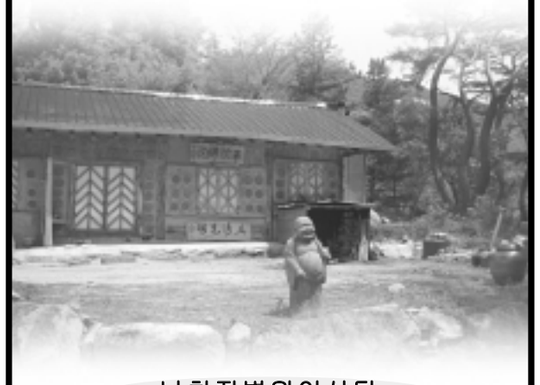


기룡관세음보살을
돌굴 10m 높이로
절 마당에 모시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분은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총 불사비: 4500만원

卍 대한불교 조계종 하얀마음선원
주지 덕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031)707-0108

봉 축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 구 교 구
달마선원 보 국 사
도 광 사 도 선 사
혜 각 사 광 원 사
법 성 사 구 도 암
인 각 사 제 왕 사
용 담 사 정 토 사
대 각 사 무 상 사
문 수 사 천 월 사
소 원 사 덕 성 사
용 암 사 영 통 사
팔 정 암 관 등 사

華陀禪院
건강질병상담
병원, 한의원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거나
병원치료로 치료되지않는 난치질병상담.
예를들어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에 침뜸부항
치료를 하는 것은 증상치료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난치질병원인상담
약사도량 화타선원
문자전화 043)834-7138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74
문경가은에서 15분, 청주에서 1시간, 연풍IC에서 25분거리
e-mail:kj7675@naver.com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 특강 안내
易學은 본래 어려운 학문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古典 命理學者들이 주장하는 格局과 用神 때문이다. 四柱는 단지 陰陽五行의 변화법칙일뿐 格局과 用神을 몰라도 정확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다. 著者 역시 3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해답을 얻지 못했다. 太極四柱는 命理學을 보완한 것이다. 古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지만, 太極四柱는 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 시간씩 독학(獨學)으로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 감정하므로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스스로 인정할 것이다. 이번에 발간한 增補 太極四柱는 前日에 著者가 출간한 太極四柱를 획기적으로 수정, 보완(修正, 補完)한 것이다. (안내서 무료배부)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테이프 16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524-2468 / 053)326-4585
(080-322-4684)

불자 세상보기



손 기 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

웃음은 경영을 춤추게 한다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는 말이 있다. 웃음이 있는 가정에 만복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소문만복래는 가정은 물론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우스웨스트(Southwest)는 고객 불만이 가장 적은 항공사, 30년간 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항공사, 시간을 잘 지키는 항공사, 짐 분실이 없기로 유명한 항공사이다. 또한 포춘지가 선정하는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에 단골로 상위권에 선정되고 있으며, 1971년에 설립된 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으며 고속성장을 해온 회사로서 최근 20년 주가 수익률 1위 등 수많은 신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성과는 경쟁 항공사들이 따라가기 힘든 경영전략이 주효한 원인도 있다. 비행기 기종을 하나로 통일하여 관리비용을 줄이고, 이착륙시 소규모 공항을 이용하여 공항이용료를 줄이고, 기내식을 포함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비용을 극소화함으로써 경쟁사보다 훨씬 싼 운임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우스웨스트가 성공하게 된 더 큰 이유는 화목한 가정과도 같은 훌륭한 기업문화에 있다. 그 회사는 요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웃음경영'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 회장과 웃기는 직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늘 웃음꽃이 만발하고 함께 즐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예컨대 스튜어디스가 흡연금지 안내를 할 때는 "부득이하게 흡연하실 손님은 비행기 문 밖으로 나가세요. 문 밖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상영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여 승객들을 웃기기도 한다.

사우스웨스트 본사는 1층에서 5층까지 모든 벽면에 직원들의 가족사진이 즐비하기 때문에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 이 회사의 경영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기업을 냉정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화목한 공동체로 본다.

이와 같이 즐겁고 행복한 기업문화가 경쟁사에 비해 승무원에게 적은 연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회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훌륭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모두 미소를 띠거나 멋진 유머감각을 지니고 있다.

웃음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 준다. 잘 웃으면 보약이 따로 필요 없다. 나아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 준다. 최근에는 웃음치료사라는 전문 직종까지 등장했다. 이와 같이 웃음이 가정경영과 기업경영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식사회에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 있는 자원이었지만, 이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되지 않고 창의성과 감성이 중시되는 지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웃음에 기반을 둔 가족 같은 조직문화가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모든 성인이 최고의 덕목으로 말씀하신 것은 한마음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과 공자님의 인(仁)이 모두 한마음을 의미한다. 지혜사회에 있어서 경영의 최고 덕목은 한마음경영이다. 한마음경영이란 조직구성원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웃음이 없는 조직에서 한마음경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가족들의 표정을 둘러보라. 우리 회사는 왜 이리 성과가 잘 안 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직원들의 표정을 둘러보라. 아니 거울을 통해 자신의 표정부터 둘러보라. 그리고 웃음이 꽃피는 가정과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부터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기 바란다. 웃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웃음도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 오늘부터 가족과 조직구성원들과 고객까지도 함께 즐기면서 행복을 나누자. 그것이 한마음경영으로 가고 지혜경영을 실천하는 길이다. 웃음은 경영을 춤추게 한다.

'종교자유' 칼럼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학교 내 종교 강요 역사적 사건…종교인권 사회 이슈로"

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는 교사나 학교장 개인의 종교성향도 문제지만, 그보다 종교 사립학교 내에서 제도화 · 관행화 된 강요나 차별의 폐해가 더 크고 고질적이란 점에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초법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기득권화 · 권력화 된 일부 종교계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새삼 요구되고 있다.

종교 사립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 모르거나 간혹 문제가 불거져도 그저 교사나 학생 한 개인의 특수한 문제이겠거니 하며 남의 일처럼 생각해온 게 사실이다. 설사 일부 국민들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다가 결국은 입시라는 중대사를 핑계 삼아 마음속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넘기던 사안이었다. 종교사학 입장에서 보면 입시를 볼모로 아무 거리낄 것 없이 마음대로 강제 종교교육을 해왔던 셈이다.

그러다가 3년 전 한 고등학생이 학교 내에서의 종교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실상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학생인권'과 '종교인권'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2004년 6월 16일, 당시 대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자 학생회장이기도 했던 강의석 군이 아침 교내 방송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거부합니다"라고 선언, 강제가 아닌 예배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달라고 주장하였다. 강 군은 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한 달 간 1인 시위를 하고 45일간이나 단식도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동안 수십 년 간 사실상 '금기'에 가까웠던 기독교계 학교에서의 예배 및 기도 강요를 인권차원에서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그해 7월 학기말 시험 중 학교로부터 제적 통보를 받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발전함으로써 사회적인 파장은 더욱 커졌다. 그 후 법원의 복학 판결과 강 군의 대학진학으로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개선된 것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내 종교자유 실현을 촉구하는 강의석군의 기자회견 모습.

자유와 인권 관련하여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도대체 대광고에서 종교문제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이 단식까지 하며 사회에 호소하려 했는가. 학교와 국민을 향해 강 군이 말하려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학교는 본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전체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 오전 한 시간씩 개신교식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한다. 그 외에 매일 아침마다 짧게 열리는 아침예배 때는 종교가 없거나 타종교를 믿는 학생이라도 돌아가며 '기도'를 해야 했고, 입학식 때는 기독교 이념에 따라 교육을 받겠다는 '선서'를 해야 했으며, 학생회 임원 자격에 '교회를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학교 규정 때문에 타종교학생은 아예 입후보 자격도 없다고 한다.

처음 대광고를 배정받았을 때 종교가 없는 강군은 '기독교 학교'라는 것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교 소개를 본 뒤, "인성교육이 목적이지 설마 종교를 강요하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스스로 합리화 했다고 한다. 1학년 말 학생회 부회장 선거에 나가려 했을 때 '종교'가 걸림돌이 되어 교목실장 교사와 상담했을 때만 해도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서양철학으로 공부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1년 정도 교회를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 군은 "2년 전 종교를 이유로 떠나갔던 친구, 예배 때마다 나와 같이 얼굴을 찡그리던 친구들, 말없이 잠들던 친구들, 입만 벙긋거리던 친구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해야 하다니,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아예 학생회 간부로 나서지도 못하다니…. 이런 교육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을까!

강 군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모두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을 것이며, 기독교계 학교의 대부분이 이런 식의 종교 강요를 해왔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면,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생각해 보라. 불교인이 평준화 제도 하에 국가에 의해 기독교 학교에 강제 수용되어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며 찬송가를 부르고, 게다가 돌아가며 기독교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과연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의 종교폭력에 익숙해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데 반해 강 군은 자신의 이해보다 사회의 개선을 위해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젠 국민 모두 내 일처럼 관심을 갖고 사회적 합의와 다짐의 장치를 새로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차례다.

불자의 눈

'희망의 연등'을 밝히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감사와 축하의 잔치로 이어지는 월에 부처님오신날이 있어 불자들은 더 즐겁다. 이미 절당에는 형형색색의 연등이 내걸렸고 거리거리에도 연등 걸려 밤이면 아름다운 불빛으로 길을 장엄한다.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 사방으로 일곱 걸음 걸은 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을 외쳤다. 이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탄생했음을 알리고 인간이 말로 가장 존엄한 존재임을 알리는 우렁찬 선언이었다. 간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 설한 팔만대장경의 지도인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 고 인 <열반경>에서도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추고 있음(一衆生悉有佛性)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세상은 어떠한가? 인간의 숭고한 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 앞에서 빛을 바래가고 있다. 누구 짓인가? 인간의 짓이다. 이 엄연한 인과의 도리 앞에서 오 날의 인류는 자신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불성을 꽃피울 을 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사찰을 찾 연등을 밝히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 아직 정법을 만나지 못한 이에게 법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 '보살'들도 얼마든지 있다. 비관적인 눈길로 보는 세상은 둠뿐이지만 희망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밝고 아름답다.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보다 경건하고 희망적인 마음으 연등을 밝히자. 그렇게 밝힌 연등이 가장 먼저 비춰 줄 곳 자기 자신의 불성이 아니겠는가?

율원령 제정, 한국불교의 비전

조계종이 '율원령'을 제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뉴스 접한 많은 불자들이 "아니 아직 그런 법조항이 없었단 말 가요?"라며 의아해 한다는 전언이다. 잘 알다시피 총림의 본 요소는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선불교 중심의 조계종에서는 그간 염불원의 설치에 대해 한해 왔다. 율원 역시 마찬가지다. 계율을 전문적으로 연 하는 스님들이 그리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율원을 설치 여 운영할 만큼 계율에 대해 철저한 인식도 없었다는 평 들어 온 것이다. 그래서 율원의 설치는 총림 구성과 관계 이 등한시 되어 왔고 관련 법령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율원을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설립 겠다는 종단적 의지가 표출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율 장이나 교수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교육 연구 과정도 합 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계율에 대한 승가의 인식이 상당 견고해질 것을 믿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율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을 갖추는 것보다 승가는 물론 재가불자들이 계율 정신 보다 투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율은 '하지 라'는 제약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라는 가르침 기 때문이다. 계율과 수행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에도 구하고 계율은 연구자들의 몫이라는 인식까지 일반화 되 있다. 이런 마당에 율원의 기능이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비전이 아닐 수 없다.




신륵사 경내로 들어가는 3000여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 맨 앞줄 왼쪽부터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 선묵혜자 스님, 이기수 여주군수.


❶


❷


❸


❹

천년 도자기의 도시에 퍼진 '부처님 가피'

108산사순례기도회 여주 신륵사서 9번째 법회…세계도자기 비엔날레 관람도

"들은 평평하고 산은 멀다." 고려말 유학자인 목은 이색이 여주를 표현한 언어다. 여주는 목은이 태어나고 말년을 보낸 곳으로 유명하고 명성황후가 태어난 곳으로도 이름 높다.

왕이 먹던 쌀이 난 곳도 이곳이다. 구비구비 돌던 한강수가 서울에 이르기 전 한 순간 쉬는 곳. 바로 경기도 여주다. 그 중심을 흐르는 남한강변에 천년고찰 신륵사가 있다.

신륵사는 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천년고찰이다. 이곳에 5월 9일과 12일 3000여명의 순례단들이 찾아왔다.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다. 이번이 9번째다.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은 일주문 밖 주차장까지 나와 선묵혜자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세영 스님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순례단의 모습이 너무 장엄하다. 제가 해인사, 불국사 등 여러 교구본사급 사찰에 오래 있어봤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찰을 방문하는 모습은 처음"이라며 "남을 위해 기도하며 군법당과 사찰 인근지역의 농촌을 돕는 108순례단은 우리나라를 불국토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법회가 시작된 후 이기수 여주군수는 "여주는 천년 도자의 맥을 잇고 있는 세계적인 도자산업의 중심지로서 신륵사 등 전통사찰 4곳을 비롯해 28개의 사찰과 목아불교박물관 등 불교 문화와 역사의 보고"라며 "이번 108사찰 순례를 계기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주전역에 퍼져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기수 군수는 순례객들에게 여주 특산물인 쌀과 고구마를 선물해 열띤 환호성을 받기도 했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선묵혜자 스님이 이기수 군수에게 지역 복지시설에 기탁해 달라며 108만원의 보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기도정진과 법회 등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선묵혜자 스님으로부터 순례에 참가했다는 일종의 증표인 신륵사가 새겨진 염주알을 한 개씩 받았다.

점심 공양 후 선묵혜자 스님과 순례단들은 신륵사 옆 여주세계생활도자관에서 5월 27일까지 펼쳐지고 있는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 19회 여주도자기 축제'를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선묵혜자 스님은 "이기수 군수님 이하 여주군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수준 높은 세계 도자예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순례 기행은 전국 사찰에서 108배 기도를 하며 번뇌를 없애자는 취지를 넘어 우리 농산물 애용과 농촌살리기 운동, 환경활동까지 펼치는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축제장 내에 마련된 농특산물 판매장을 찾아 쌀과 고구마 등을 즉석 구매하고 택배주문을 하는 등 여주 청정 농특산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후 3시 여주에서 양평 20기계화보병사단으로 자리를 옮긴 순례단은 군 특수부대 장병들이 펼치는 특공무술시범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즐거워했다. 이 자리에서 선묵혜자 스님은 오정석 사단장에게 초코파이 3만5천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오정석 사단장도 인사말을 통해 "부대창설이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방문에 힘입어 우리 아들들이 큰 힘을 얻어 나라를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흐뭇해 했다.

한편 모든 순례기도 일정이 끝난 뒤 두 달전 발족한 108순례기도회 환경지킴이 회원 100여명은 신륵사 경내를 돌아다니며 환경미화 활동을 펼쳤다.

여주=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❶ 선묵혜자 스님이 오정석 20기계화 보병 사단장에게 초코파이를 전달하고 있다.
❷ 108산사순례단 회원들이 군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건네주는 모습.
❸ 선묵혜자 스님(가운데)이 세계 도자기엑스포장을 이기수 여주군수의 안내로 둘러보고 있다.
❹ 108산사순례단이 여주 신륵사에 있는 나옹화상 부도탑을 참배하고 있다.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희담석 전제품 20%할인 (일부품목제외)
건강을 생각하는 희담석찜질팩
그냥 사용하셔도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출됩니다
[이럴 때 사용해 보세요]
- 근육통, 어깨 결림, 오십견, 척추디스크 및 교통사고 후유증등으로 찜질을 원하시는 분
- 아간근무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등
희담석 허리 찜질팩 값 44,000원 → 35,200원
희담석 어깨 찜질팩 값 65,000원 → 52,800원
희담석 찜질팩 값 38,000원 → 30,400원
사은품 : 찜질팩 구입시 눈찜질팩 증정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통상 렌지에 데우거나 끓는 물에 끓인 후 수건이나 헝겊에 싸서 사용하지만 희담석의 모든 찜질팩은 찜질 부위에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 주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보이차 선물용품
멋스러운 수공예 자사통에 최상의 보이차를 담았습니다
궁정 보이차는 1급 찻잎만을 엄선해 만든 특급 보이차로 운남 하관에서 만든 차 입니다.
궁정보이산차(黃) – (120g) 80,000원
궁정보이산차(紅) – (120g) 80,000원
동흥보이산차는 진년 17년의 야생교목산차로, 박하향과 함께 탕색맛이 일품인 고급차 입니다
동흥보이산차(黃)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紅)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小(200g) 12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大(500g) 220,000원
차통은 자사호가 나오는 중국의 이싱(宜興)에서 작가에게 주문 · 제작한 작품입니다.
차통의 무늬는 하나하나 수작업한 수공예품입니다. 자사차통은 돌 가루를 분쇄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입자가 매우 미세해 통풍이 매우 잘되므로 차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차를 다 드신 후 다른 차 보관 통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소중한분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수입원 : ㈜홍다원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 주문전화 02)2004-8219 [국민은행] 023-25-0007-617 (주)에이치비엠씨